I·SEOUL·U
너와 나의 서울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2019년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12

연구수행기관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성호(한국성서대학교) 공동연구원 방진희(한국성서대학교) 공동연구원 차현미(마들종합사회복지관) 공동연구원 박종두(마들종합사회복지관) 공동연구원 박종무(평화와생명동물병원) 공동연구원 이형주(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공동연구원 오덕 보조연구원 신문영(마들종합사회복지관) 보조연구원 황찬범(한국성서대학교)

- 목차 -

연구요약 ····· **19**

제1장. 서론 ····· **3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5

제2절. 반려동물관련 통계 및 현황 ····· 38

제3절. 취약계층 개념 정리 ····· 45

제4절. 해외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례 소개 ····· 52

1. 저소득층을 위한 반료동물 사료 지원 ····· 52

2.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 53

3. 동물보호단체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 56

4. 수의대학, 수의사 협회 혹은 개인 동물병원의 취약계층 지원 ···· 65

5. 정부 및 지자체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 70

제2장. 설문조사 연구결과 ····· **73**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 75

1. 양적 연구 방법 ····· 76

2. 질적 연구 방법 ····· 77

제2절. 빈도 및 기술 통계 ····· 79

1. 빈도분석 ····· 79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기초사항 ····· 79

- 목차 -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 ····· 82

3) 반려견 양육 실태 ····· 86

4) 반려묘 양육 실태 ····· 102

5) 반려동물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116

6)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 ····· 119

7)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 ····· 127

8) 반려동물의 노년 대비방법 ····· 128

9)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방법 ····· 130

10)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청할 곳 ····· 131

11)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은 충동 ····· 132

12) 반려동물 사망시 대처방법 ····· 135

13)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정책에 관한 욕구 ····· 137

14) 소결 ····· 143

2. 교차분석 ····· 146

1)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에 관한 교차분석 ····· 146

2) 반려견 특성에 관한 교차분석 ····· 150

(1) 반려견 동물등록에 따른 교차분석 ····· 150

(2) 반려견 중성화 수술에 따른 교차분석 ····· 151

(3)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에 따른 교차분석 ····· 153

(4) 반려견 중성화 수술 안하는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155

- 목차 -

(5)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 156
(6) 반려견 의료비 감당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 160
(7) 반려견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 161
(8) 반려견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 162
(9) 반려견 양육 시 어려운 점에 관한 교차분석 ····· 163
3) 반려묘 특성에 관한 교차분석 ····· 165
(1) 반려묘 사료비 및 간식비 감당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 165
(2) 반려묘 의료비 감당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 166
4)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 167
5)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 169
6)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 방법에 관한 교차분석 ····· 171
7) 반려동물 노후준비에 관한 교차분석 ····· 173
8) 반려동물 어려움 해결방법에 관한 교차분석 ····· 174
9)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욕구에 관한 교차분석 ····· 175
10) 소결 ····· 176
3.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 179
1)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 179
2) 소결 ····· 182

- 목차 -

4. 차이분석 ····· 183

1) 인구학적 특성 집단 간 반려동물 긍정적 효과 차이 분석 ····· 183

2) 보호구분 세대 간 반려견 지출 품목 비용 차이 분석 ····· 184

3) 소결 ····· 185

제3장. FGI 연구결과 ····· 187

제1절. 반려인 FGI ····· 189

1. 연구결과 ····· 191

1) 반려동물 양육 특성 ····· 191

(1) 반려동물 양육 동기 ····· 191

(2) 반려동물 양육 경로 ····· 192

2) 반려동물 양육 관련 ····· 193

(1)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좋은 점 ····· 193

(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 194

3) 반려동물의 돌봄 관련 정보 출처 ····· 196

4) 반려동물 돌봄지원 이용 경험 ····· 197

5) 반려동물 양육관련 지원욕구 ····· 197

(1) 비용 분야 ····· 197

(2) 돌봄 분야 ····· 199

- 목차 -

6)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사회에 대한 바람 ····· 199

(1) 정부 차원 ····· 199

(2) 사회 차원 ····· 200

2. 소결 ····· 202

제2절. 사례관리자 FGI ····· 203

1. 연구결과 ····· 204

1) 참여자 소개 ····· 204

2)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반려동물 ····· 204

(1)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려동물관련 변화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 ··· 204

(2) 사회복지실천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 205

(3)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에 대한 의견 ····· 206

3)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돌봄 현황 ····· 207

(1) 대상자 및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돌봄 현황 ····· 207

(2) 참여자의 의식이나 태도 변화 ····· 209

4) 반려동물관련 사례 경험 ····· 211

(1) 반려동물과 직접 관련된 사례 경험 ····· 211

(2) 어려운 점 ····· 213

5) 제안 ····· 217

(1) 일반적 제안 ····· 217

(2) 사회복지실천 내에서 제안 ····· 218

2. 소결 ····· 220

- 목차 -

제4장. 결론 ····· **225**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 225

제2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 228

제3절. 제언 ····· 229

참고문헌 ····· 231

별첨1. 설문지 ····· 236

별첨2.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 ····· 250

별첨3. IRB 승인서 ····· 253

별첨4. 자료사진 ····· 255

- 표목차 -

<표 1-1> 서울 및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 39
<표 1-2>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개/고양이 마리 수 ····· 40
<표 1-3>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장소 ····· 41
<표 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80
<표 2-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 ····· 83
<표 2-3> 반려견 수와 연령 현황 ····· 85
<표 2-4> 반려견 품종 ····· 86
<표 2-5> 반려견의 특성 ····· 87
<표 2-6> 반려견 데리고 온 장소 ····· 88
<표 2-7> 반려견을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이유 ····· 91
<표 2-8> 반려견 돌봄 비용 지출 현황 ····· 93
<표 2-9> 반려견 산책 빈도 ····· 95
<표 2-10> 반려견 동물병원 방문 여부와 방문 이유 ····· 96
<표 2-11> 반려견 예방접종 실태 ····· 98
<표 2-12> 반려견을 키우면서의 어려운 점 ····· 100
<표 2-13> 반려묘 수와 연령 현황 ····· 102
<표 2-14> 반려묘의 특성 ····· 104
<표 2-15> 반려묘를 중성화 수술 하지 않은 이유 ····· 106
<표 2-16> 반려묘에 함께하는 시간 ····· 107
<표 2-17> 반려묘 지출 비용 ····· 109
<표 2-18> 반려묘 동물병원 방문 여부와 방문 이유 ····· 111
<표 2-19> 반려묘 예방접종 실태 ····· 113

- 표목차 -

<표 2-20>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운 점 ····· 115
<표 2-21> 반려동물 관련 정보 취득 경로 ····· 118
<표 2-22>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 121
<표 2-23>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 124
<표 2-24>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 ····· 128
<표 2-25> 반려동물 노년 대비방법 ····· 129
<표 2-26> 반려동물에 따른 어려움 해결방법 ····· 130
<표 2-27>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청할 곳 ····· 131
<표 2-28> 반려동물을 보내고 싶은 경험에 관한 응답 ····· 134
<표 2-29>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방법 ····· 136
<표 2-30>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 ····· 138
<표 2-31>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에 바라는 점 ····· 141
<표 2-32>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척도 신뢰도 ····· 179
<표 2-33>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 180
<표 2-34> 인구학적 특성 간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차이 분석 ·· 183
<표 2-35> 보호 구분 세대 간 반려견 지출 품목비용 차이 ····· 185
<표 3-1> 연구참여자 정보 ····· 189
<표 3-2> 반구조화된 면접질문 ····· 190
<표 3-3> 연구참여자 정보 ····· 203
<표 3-4> 반구조화된 면접질문 ····· 203

- 그림목차 -

<그림 1-1>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도식 ····· 48

<그림 2-1> 연구의 흐름도 ····· 75

<그림 2-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 (다중응답) ····· 82

<그림 2-3> 반려견 품종 ····· 85

<그림 2-4>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 ····· 87

<그림 2-5>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은 이유 ····· 89

<그림 2-6> 반려견을 중성화 수술 하지 않은 이유 ····· 90

<그림 2-7> 반려견 산책 빈도 ····· 94

<그림 2-8> 반려견 1년 이내 동물병원 방문 이유 ····· 95

<그림 2-9>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다중응답) ····· 99

<그림 2-10> 반려묘의 품종 ····· 103

<그림 2-11> 반려묘를 데리고 온 장소 ····· 105

<그림 2-12> 반려묘를 중성화 수술 하지 않는 이유 ····· 106

<그림 2-13> 반려묘와 함께하는 시간 ····· 107

<그림 2-14> 반려묘 동물병원 방문 이유 ····· 112

<그림 2-15>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움 (다중응답) ····· 114

<그림 2-16> 반려동물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다중응답) ····· 117

<그림 2-17>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다중응답) ····· 119

<그림 2-18>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다중응답) ····· 123

<그림 2-19>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 ····· 127

- 그림목차 -

<그림 2-20> 반려동물 노년 대비방법 ····· 128

<그림 2-21>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방법 ····· 131

<그림 2-22>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은 충동 ··· 132

<그림 2-23>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방법 ····· 135

<그림 2-24>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 (다중응답) ····· 137

<그림 2-25>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에 바라는 점 (다중응답) ····· 140

<그림 2-26>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연령대 ····· 146

<그림 2-27>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가구형태 ····· 147

<그림 2-28>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장애유무 교차분석 ····· 148

<그림 2-29>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장애등급 교차분석 ····· 149

<그림 2-30> 반려견 동물등록에 따른 주택형태 ····· 150

<그림 2-31>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에 따른 보호구분 ····· 151

<그림 2-32>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유무에 따른 반려동물 성별 ··· 152

<그림 2-33>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에 따른 연령대 ····· 153

<그림 2-34>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에 따른 가구소득 ····· 154

<그림 2-35> 반려견 중성화 수술 안하는 이유에 따른 연령대 ····· 155

<그림 2-36>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연령대 ····· 156

<그림 2-37>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가구형태 ····· 157

<그림 2-38>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 158

<그림 2-39>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 159

- 그림목차 -

<그림 2-40> 반려견 의료비지출 감당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 160
<그림 2-41> 반려견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따른 보호구분 ····· 161
<그림 2-42> 반려견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따른 반려견 연령대 ··· 162
<그림 2-43> 반려견 양육 시 어려운 점에 따른 가구 형태 ····· 163
<그림 2-44> 반려견 양육 시 어려운 점에 따른 보호구분 ····· 164
<그림 2-45> 반려묘 사료비 및 간식비 감당 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 165
<그림 2-46> 반려묘 의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 166
<그림 2-47>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에 따른 연령대 ····· 167
<그림 2-48>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에 따른 보호구분 ····· 168
<그림 2-49>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따른 연령대 ····· 169
<그림 2-5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따른 보호구분 ····· 170
<그림 2-51>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 방법에 따른 연령대 ····· 171
<그림 2-52>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 방법에 따른 보호구분 ·· 172
<그림 2-53> 반려동물 노후준비에 따른 보호구분 ····· 173
<그림 2-54> 반려동물 양육 시 어려움 해결방법에 따른 보호구분 ·· 174
<그림 2-55>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욕구에 따른 보호구분 ····· 175
<그림 2-56>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 180

연구요약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이미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 1,481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거하고 있음(농촌경제연구원, 2017).

○ 반려동물 양육이 취약계층 반려인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육에 대한 준비 정도가 낮은 경우 반려동물을 방치하게 되거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음. 이들이 반려동물을 잘 보살피고 문제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현재 반려동물 현황에 관하여 조사된 자료는 대부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주로 온라인 설문이나 패널을 활용한 것이어서 반려동물 양육관련 주요 특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조사방법과 대상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과 동거하는 반려동물 양육 실태에 관한 정보는 찾기 어려움.

○ 서울시 일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돌봄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분석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취약계층 반려인의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사회복지 사례관리자 및 취약계층 반려인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 그리고 동물보호활동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행됨.

○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외부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고 pilot-test를 실시 한 후에 최종 점검을 하였음. 연구진들은 설문을 시행하기 위해서 모두 IRB 교육을 수료하고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IRB 승인을 받음.

○ 완성된 설문지의 주요 내용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관련 특성, 장애유무, 반려동물 관련 경험과 태도,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행태, 동물등록 여부, 중성화 여부,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 실태, 반려동물 돌봄지원 욕구, 정부와 서울시의 동물 보호정책에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됨.

○ 설문 조사는 2019년 10월 15일 ~ 2019년 12월 3일까지 이루어짐. 사전교육을 받은 설문 요원들이 연구진과 함께 서울시 일대의 임대아파트 등 20여 곳의 지역사회복지관과 지역의 지하철 역 주변과 공원 그리고 경로당 등에서 설문조사를 실시 함.

○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시 25개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북부권역 155명(25.7%), 서부권역 152명(25.2%), 동부권역 150명(24.8%), 남부권역 147명(24.3%)] 실시됨.

○ 총 612부의 응답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이들 중 무응답이나 문제점이 많은 설문지 8부를 제외하여 총 604부를 통계프로그램(IBM 23.0)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 함. 분석방법으로는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관련 특성, 장애유무,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행태, 동물등록 여부, 중성화 여부,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 실태, 반려동물 돌봄지원 욕구, 정부와 서울시의 동물 보호정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변수(집단)들 간의 t- test,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 등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 변화를 묻는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함.

○ FGI와 간담회 등의 모든 인터뷰는 연구진이 소속된 대학의 회의실에서 연구책임교수에 의해 2시간가량 진행되었고, 공동연구원 2인이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음. FGI 질문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담아내고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전문 속기사가 전사 함.

제2장 설문조사 결과

□ 조사 참여자

○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604명 중 저소득세대는 54%에 해당하는 326명〔수급자 242명(40.1%), 차상위 84명(13.9%)〕이었으며 독거노인은 188명(31.1%), 장애인은 194명(32.1%)임(중복적용).

○ 성별로는 여성 445명(73.7%), 남성159명(26.3%)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 148명(24.5%), 60대 141명(23.3%), 50대 98명(16.2%), 80대 이상 75명(12.4%), 40대 55명(9.1%), 20대 이하 51명(8.4%),

30대 36명(6.0%) 순으로 나타났음. 거주 주택형태는 아파트 거주자가 434명(71.9%), 연립 · 빌라 · 다세대주택 110명(18.2%), 단독주택 50명(8.3%),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10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는 2세대(부모와 자녀 함께 거주) 216명(35.8%), 독거노인 세대 188명(31.1%), 노인부부 세대 61명(10.1%), 1인 세대(청장년) 51명(84%), 한부모 세대 49명(8.1%), 기타 20명(3.3%), 조손세대 19명(301%)의 순이었음.

○ 조사 참여자의 가구소득은 50~70만원 미만 188명(31.1%), 100~200만원 미만 107명(17.7%), 70~100만원 미만 101명(16.7%), 50만원 미만 85명(14.1%), 200~300만원 미만 69명(11.4%), 300만 원 이상 54명(8.9%)의 순으로 나타남. 장애유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194명(32.1%)이었으며, 이 중 중증 장애인은 101명(52.1%), 경증 장애인은 93명(47.9%)이었음.

○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는 동물을 좋아해서(29.7%)와 외로워서(20.4%)가 높은 비율이었음. 키우게 된 계기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20대(58.8%)가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는 비율이 높은 반면 70대(31.1%)와 80대 이상(24.0%)은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가 많았음. 또한 독거노인세대(34.6%)와 조손세대(42.1%)가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장애가 있는 세대(25.3%)가 장애가 없는 세대(18.8%)보다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이 높았음.

□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 효과

○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중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조사한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 운동량 증가, 자신감 향상, 외로움 감소, 생활이 활기차짐, 책임감 증가, 건강이 좋아짐)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895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임.[1)]

○ 10개의 문항 중 책임감 증가(3.48)가 가장 높았으며 외로움 감소(3.44), 삶의 만족도 증가(3.31), 생활이 활기차짐(3.28), 긍정적인 사고(3.24), 스트레스 감소(3.21), 운동량 증가(3.07), 대화 증가(3.06), 건강이 좋아짐(2.95), 자신감 향상(2.90) 순으로 나타남.

□ 반려견 관련 사항 및 특성

○ 반려견의 평균 연령은 6.42세였으며 2~7살 미만(52.6%)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음. 반려견을 데리고 온 경로로는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은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애견분양가게에서 구입한 경우가 20.2%로 나타남. 애견분양가게에서의 구입한 경우는 20대 이하(36.6%)가 높았고,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은 경우는 80대 이상(55.7%)이 가장 많음.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애견분양가게에서의 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며, 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반려동물을 맞이하게 되는 양상이 다름을 확인함.

○ 반려견 등록비율은 60.3%로 다른 조사에 비해 높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음. 반려견 등록 여부는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단독주택(42.1%) 및 연립/빌라/다세대 주택(48.9%)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아파트(65.3%)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반려견 등록 비율이 낮았음. 반려견 등록을 안 한 이유로 '잘 모른다(51.9%)'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던 KB연구보고서(황원경, 2017)와 농림축산검역본부(2018)등 기존의 다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임.

○ 반려견의 중성화 비율은 53.2%이었으며 수컷(67.7%)이 암컷(45.3%)보다 중성화율이 높음. 수급자(46.0%) 계층이 비수급자(65.5%) 보다 낮은 중성화

1) 검사의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한 검사 내에서의 변수들 간의 평균상관관계에 근거해 검사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율을 나타냄. 이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조사 결과인 45.8%보다 높은 수치임.

○ 반려견 양육을 위한 월 평균 지출은 138,437원으로 일반세대(168,587원), 차상위세대(134,871원), 수급세대(108,465원) 순으로 나타남. KB금융보고서(황원경 외, 2018)의 128,000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2018)의 96,000원 보다는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에서 보고된 145,000원보다는 적었음.

○ 반려견의 의료비를 위한 월평균 지출은 65,241원[수급세대(42,496원), 차상위세대(60,714원), 일반세대(85,405원)], 사료비는 평균 57,281원[수급세대(52,412원), 차상위세대(56,955원), 일반세대(62,162원)], 미용 및 관리용품비는 평균 37,180원[수급세대(30,740원), 차상위세대(35,898원), 일반세대(43,355원)] 으로 나타남. 조사 참여자의 36.3%가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27.5%가 사료비 감당이, 23.6%가 미용 및 관리용품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함.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비를 포함한 사료비와 관리용품 구입에 큰 부담을 갖고 있음.

○ 지난 1년 이내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78.6%로 수급 및 차상위세대(76.3%)가 일반세대(81.5%) 보다 낮게 나타남. 동물병원 주요 방문 이유는 예방접종(31.3%)과 질병치료(21.0%)였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의 연구결과와 유사함. 반려견 연령에 따른 동물병원 방문이유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은 2살 미만(82.9%)이 가장 높았고 질병치료는 10살 이상(37.0%)과 7~10살 미만(26.3%)에서 높게 나타남.

○ 반려견 양육 시 어려운 점으로는 병원비(23.8%)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남. 노인부부세대(45.5%) 및 한부모세대(47.7%)가 병원비 충당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독거노인(18.7%) 및 조손세대(17.6%)가 사료 및 간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일반세대(14.7%)가 차상위(4.1%) 및 수급

세대(4.0%)보다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의 외출 시 어려움을 호소했고, 수급세대(23.0%)가 사료 및 간식비 지출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여행하기 힘듦(44.2%), 배설물, 털 등 관리 번거로움(32.3%), 비용이 많이 듦(27.3%) 순으로 나타난 KB연구보고서(황원경, 2017)와 차이점을 보임.

□ 반려묘 관련 사항 및 특성

○ 반려묘의 연령대는 2~7살 미만(58.8%)이 가장 높은 비율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87세였음.

○ 반려묘를 데리고 온 경로는 유기묘(길고양이, 아기고양이 포함)를 구조한 경우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친척/친구/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가 16.8%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 전혀 다른 결과임.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와 KB연구보고서(황원경외, 2018) 모두 반려묘를 맞이하게 된 경로 1순위는 친구/친척/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각각 37.8%, 43.7%였고, 18%정도가 유기묘를 데리고 옴.

○ 반려묘의 73.7%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으며 반려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비싼 수술비용과 정보부족이 가장 큰 이유(각각 22.2%)로 나타남.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의 연구에서 나타난 반려묘 중성화 비율 57.8과 비교할 때 본 연구참여자들의 반려묘 중성화 수술 비율은 매우 높음.

○ 반려묘 양육을 위한 월 평균 지출은 평균 124,346원[수급세대(109,666원), 차상위세대(91,390원), 일반세대(138,829원)]이며 의료비 평균 56,526원[수급세대(40,750원), 차상위세대(49,428원), 일반세대(59,913원)], 사료비 및 간식비 평균 52,795원[수급세대(37,055원), 차상위세대(55,090원), 일반세대(59,146원)], 미용 및 관리용품비 평균 28,327원[수급세대(24,466원), 차상

위세대(20,000원), 일반세대(31,848원)] 순으로 나타남. 조사 참여자의 36.8%가 반려묘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18.8%가 사료비 감당이, 18.2%가 미용 및 관리용품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함. 수급세대의 경우 87.5%가 의료비 감당이 어려우며, 38.9%가 사료비 및 간식비 비용이 부담된다고 호소함. 이 같은 결과는 KB연구보고서(황원경 외, 2018)의 월 평균 지출 비용 78,000원보다는 많고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의 연구결과인 사료비 170,000원, 미용비 83,000원, 용품구입비 131,000원 보다는 훨씬 적음.

○ 지난 1년 이내 반려묘가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2.9%이었는데 이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의 60.2%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음. 병원방문 이유로는 예방접종(29.6%), 질병치료(18.5%)순이었음.

○ 반려묘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위생관리(22.7%)와 병원비(20.5%)가 높은 비율을 보임.

□ 반려동물 양육 관련 지원 욕구

○ 반려동물 양육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로는 친구 및 동료(22.7%), TV프로그램(19.9%), 동물병원(17.8%), 인터넷 및 SNS(16.8%), 가족(12.3%), 복지관과 구청 및 동물단체(2.8%), 어플리케이션(2.1%), 동호회(1.8%), 분양센터(0.5%)의 비율 순으로 나타남. 60대 이상의 경우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파악 비율은 낮았음.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KB보고서(황원경, 2017)는 1순위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검색(76.8%)이었고, 가족/친구/지인(34.6%), TV/라디오(31.2%), 카페 동호회 블로그 등의 자료(27.9%) 순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받고 싶은 교육으로는 돌봄상식교육(24.8%), 의료교육(21.3%), 문제행동 개선교육(16.1%), 사회화교육(12.4%), 행동풍부화교육(12.3%), 법적준수사항 및 기본에티켓교육(8.6%)의 비율 순으로 나타남.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30.1%), 사료 및 간식지원 (21.8%), 돌봄 용품 지원(11.8%),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10.8%), 돌봄지원(9.1%),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8.3%), 문제행동 교정훈련(8.6%)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료 및 간식비 지원에 욕구가 높았고,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30대(66.7%)와 40대(60.0%)에서 높게 나타남. 또한, 수급세대는 사료 및 간식지원(37.2%)에 높은 욕구를 보였는데 이는 소득 150만원 미만인 가구는 사료 및 간식비 지원의 욕구가 다른 집단 보다 높게 나타난 동물권행동카라(2019) 연구결과와 유사함.

○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집에 둔다(26.8%), 가족에게 맡긴다(23.9%), 지인에게 맡긴다(21.7%), 애견(애묘)호텔을 이용한다(8.3%), 펫시터를 이용한다(0.7%)의 비율 순으로 나타남. 70대(34.5%)와 80대 이상(36.0%)의 경우 외출 시 그냥 집에 둔다는 비율이 높으며, 수급세대(31.8%)가 외출 시 그냥 집에 둔다는 비율이 높음.

○ 반려동물의 노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자의 46.5%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33.8%가 대비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함. 차상위세대(46.4%), 수급세대(43.0%), 일반세대(21.9%)의 순서로 반려동물의 노년기에 대해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함.

○ 조사 참여자의 62.1%가 반려동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함.

○ 반려동물 돌봄 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결 방법으로 조사 참여자의 37.7%가 생활비를 줄였으며, 이는 수급세대(45.5%), 차상위세대(32.1%), 일반세대(32.7%)의 비율로 수급세대가 차상위 및 일반세대보다 생활비를 줄인 경험이 많았음.

○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로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 개설(24.5%),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19.0%),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12.6%), 호텔링 및 임시보호 지원체계 구축(9.2%), 무료교육의 기회 확대(6.5%),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6.5%)의 비율 순으로 나타남. 수급세대(43.0%)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부분의 욕구가 높았으며, 일반세대(38.1%)는 공공수의 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욕구가 높았음.

제3장 FGI 결과

□ 반려인 FGI

○ 본 FGI에 참여한 반려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으로 M 사회복지관의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업을 이용한 경험자들로 구성됨.

○ 연구참여자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된 계기는 홀로 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과거 반려동물을 키우던 기억을 좇아서, 반려동물의 충성심에서 위안을 얻기 위해서, 자녀가 원해서, 주변인의 반려동물 양육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등인 것으로 나타남.

○ 연구참여자들은 반려동물로 인해 겪는 어려움으로 양육비 부담,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대처 불가, 잘못된 양육 방식으로 인한 반

려동물의 건강 악화, 자신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부재로 인한 장기간 외출 불가 등을 꼽았음.

○ 연구참여자들이 반려동물 등록, 접종, 치료, 돌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보살피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연구참여자들의 반려동물 양육관련 지원 요청으로 의료비, 사료비, 미용비 등 양육비 지원과 산책서비스, 임시보호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문제행동 교정 프로그램,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지식 및 기술 습득 프로그램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비용을 들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타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 이외에 동물병원의료비 정찰제, 동물의료보험, 동물학대 및 유기방지법 강화, 저소득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취약계층 반려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사회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힘.

□ 사례관리자 FGI

○ 사례관리자 FGI 참여자들은 구청(1명), 종합사회복지관(4명)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1명(1년 6개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며 이중 3명은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를 직접 경험 함.

○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경험의 대부분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반려동물 양육방법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한 문제나 이웃과의 갈등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정서적으로 도움을 받고 삶에 활기가 생기며, 더 나아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

○ 연구참여자들은 대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을 위해서는 반려인 교육과 지원금 보조가 우선적이라고 언급함. 그리고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져야 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돼야 할 필요성을 제시 함.

○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 경험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상자들을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생활이 대상자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됨. 또한 사례관리를 할 때 대상자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역할을 제시하는 등의 변화를 보임.

○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자원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반려동물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경험 함.

○ 연구참여자들은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반려동물 돌봄, 훈련, 급식 등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필요한 서비스를 거부함으로 인해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또한 제도의 미비로 인해 기관의 예산을 반려동물관련

사례관리에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공공기관 담당부서의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인해 혼란을 경험하면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관련 문제를 도와줄 지역자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함.

○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문기관 설립, 관련 프로그램 시행 및 국가 보조금의 지원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 학계가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느낌.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 일선에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관점이 우선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공유하는 장의 필요성을 제안 함.

□ 제언

○ 반려동물로 인해 취약계층 반려인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그들이 반려동물과 일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 또한 취약계층 반려인 지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함.

○ 신중한 고려 없이 저소득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무분별하게 반려동물 입양을 권유하거나 소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함.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의 행동과 습성에 대한 반려동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함.

○ 취약계층 반려인의 성향에 맞는 반려동물 돌봄 및 의료교육 방법을 사용해야 하며 그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지역사회복지관 등을 활용한 교육과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일 것임.

○ 저소득층 반려인들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려동물의 의료비, 특히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함.

○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만이 아닌 반려동물 관련 돌봄욕구사정 및 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및 자원연계 노력이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의 지원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및 지자체단위의 담당부서와의 협치가 필수적임.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례관리과정에 반려동물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시범사업 도입이 필요함.

○ 다양한 취약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적/질적조사 및 인간과 동물의 관계 및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함.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한국펫사료협회가 실시한 “2018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응답자의 27.9%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었다. 이는 2018년 KB 금융그룹 25.1%,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결과의 21.8% (2012년 17.9%, 2010년 17.4%), 2015년 한국 갤럽조사 결과인 19%, 2016년 서울시 통계인 20.4%보다도 높은 것으로 해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꾸준히 그리고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넘어 1,481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농촌경제연구원, 2017).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유대 관계는 반려인들에게 잠재적인 건강상의 혜택을 제공하는데(Blouin, 2012) 노인들에게 반려동물은 심리적, 정서적 지지, 역할 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문영희 & 김효정, 2011). 특히 사회 경제적 지위가 낮은 노인은 신체질환 및 정서장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경우 동반자로서 정서적으로 교류하고, 사회적 격리를 줄이며, 신체 활동과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적 혜택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바르게 돌보지 못할 경우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를 야기할 수 도 있는데(Janet Hoy-Gerlach & Scott Wehman, 2017) 노인들의 경우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함께 살기 위한 경제적 부담, 신체적 제약, 자신이 아프거나 사망했을 때에 대한 우려사항 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Anderson, e al, 2015).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로 반려동물을 택하는 노인가구가 늘고 있으나 독거노인이나 저소득 노부부 등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아파트에 혼자 살던 60대 기초

생활수급자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신체 일부가 기르던 개에 의해 훼손돼 있었고, 역시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죽은 상태로 방치된 반려견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한국일보, 2018.02.26).

2017년 서울의 M복지관이 지역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려동물 관련 현황을 전수조사 한 바에 따르면, 약 13%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이중 응답자의 70%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났는데, 비용부담(33.3%), 이웃과의 불화(8.3%), 산책의 어려움(8.3%), 양육정보 부족(5.6%)의 순으로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비 4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반려견을 돌보는데 사용하여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도 있었고, 손주들이 맡기고 간 중형견 네 마리를 좁은 집에서 돌보느라 밖으로 나가기조차 어려운 노인도 있었다(김성호・박종두, 2018).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이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준비 정도가 낮아 반려동물을 방치하게 되거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또 다른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으며 경제적 제약이 반려동물의 돌봄이나 치료에 걸림돌이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취약지역이나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 관련 어려움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National Pet Owners Survey 6, 2017). 2017년 기준 미국에서는 천구백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빈곤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데 이들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미국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는 저소득층 반려인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Pets For Life, 2019). 이 같은 내용은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하 우리동생)’이 2017년 마포구 일대의 저소득 가정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들의 소득 수준이 반려동물 양육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동생, 2018).

이상 살펴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여 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제언을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

제2절. 반려동물관련 통계 및 현황

정부, 금융사, 민간단체들이 보고하는 반려동물현황 관련 통계자료는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정부통계 결과와 민간통계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조사는 반려동물 지출금액을 적게 추산하는 반면, 민간조사에는 많게 나타나 반려동물 시장 통계와 분석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스카이 데일리, 2018). 한편 본 연구의 주제인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양육 실태와 관련해서 볼 때. 현재까지 반려동물 현황에 관하여 조사된 자료는 대부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이나 패널을 활용한 것이어서 반려동물 양육관련 일반적인 주요 특성은 파악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위 사회적 취약계층과 동거하는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15년 동안 서울 및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에 대한 주요 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비교해보면(표 1-1 참조) 전국의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보유가구 수는 2010년 17.4%에서 2017년에는 30.9%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24%~28%로 수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일 연도에 이루어진 조사나 한 기관에서 해마다 실시한 조사 간에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금융의 연구결과 반려동물 보유 비율은 2017년에 가장 높은 수치인 30.9%에서 2018년도에는 가장 낮은 수치인 25.1%로 급격하게 떨어졌다. 2017년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의 경우 정부조사 결과는 전체 가구의 28.1%인 593만 가구로 조사되었으나 KB금융의 조사결과는 30.9%인 590만 가구로, 갤럽조사 결과는 28.8%인 563만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 가구에서 반려동물 한 마리만 기른다고 가정해도 무려 33만 마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기에 매우 큰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2017, 펫비지니스 월간지 펫저널).

〈표 1-1〉 서울 및 전국의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연도	보유가구(%)		출 처
	서울	전국	
2018	-	23.7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7.9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사)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보고서』
	30.9	25.1	황원경·정귀수·김도연. 2018. 『2018반려동물 연관 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KB연구보고서
2017	27.9	30.9	황원경. 2017. 『2017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 KB연구보고서
	-	28.1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	28.8	KPFA, 2017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한국갤럽
2016	20.4	-	유기영· 이종찬. 2016.『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2015	21.5	21.8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18.0	19.0	한국갤럽. 2015.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	22.5	엠브레인. 2015.『반려동물 관련 인식조사』
2012	27.0 21.7*	17.9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10	22.9	17.4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4	17.2	-	유기영. 2004.『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 수도권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

2004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개/고양이 마리 수 <표 1-2>는 개의 경우 한 가구에 1.2~1.5마리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고양이는 1~1.75마리로 증가했다가 약간 주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2>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개/고양이 마리 수

연도	보유 마리/가구		출 처
	개	고양이	
2018	1.50	1.70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사)한국펫사료협회. 2018.『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보고서』
	1.20	1.40	황원경·정귀수·김도연. 2018. 『2018반려동물 연관 산업 현황과 양육실태』KB연구보고서
2017	1.40	1.80	황원경. 2017.『2017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 KB연구보고서
2016	1.30	1.80	유기영·이종찬. 2016.『서울시 동물복지지원 시설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2015	1.27	1.75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2012	1.28	1.38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2010	1.20	1.48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4	1.30	1.00	유기영. 2004.『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반려 동물을 데리고 온 장소를 살펴보면,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동물병원 혹은 애견센터 등 동물 판매 업소에서 돈을 주고 구매했다. 이들 수치는 조사 대상자에 따라 약간씩 달랐다. 취약계층(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득 150만원 미만 66%)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외(2017)와 동물권행동카라(2019)의 조사 결과 55% 정도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받아 키웠다. 반면 황원경의 KB보고서(2017)는 '아는 사람'에게 받는 경우(38.1%)가 '동물병원/애견센터(34.1%)와 애견 브리더'(4.0%)등으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38.1%)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1-3>.

<표 1-3>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장소

	동물권행동 카라 (2019)[1]	농림축산 검역본부 (2018)[2]	문화체육 관광부 외 (2018)[3]	KB금융 경영연구소 (2018)[4]	서울시 외 (2017)[5]	KB금융 경영연구소 (2017)[6]	농림축산 검역본부 (2017)[7]	한국 소비자원 (2013)[8]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2010)[9]
아는 사람	56.9	50.2	46.3	46.8	54.4	38.1	44	51.7	53.5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 동물 판매업소	24.6	31.3	30.4	30.8	28.2	34.1	21.3	26.5	26.1
인터넷 구입			4.7					7.2	7.4
유기동물 입양	9		4.4	3.3	12.5	6.1		1.6	9.8
배회동물 등 기타	5.7	5.5			7.5			9.2	7.1
기르던 동물이 새끼 낳음			6.4					3.8	6
애견 브리더			3.9	2.9		4.0			
지인으로부터 구매		10.8					19.7		

1) 동물권행동카라, 2019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대상 반려동물실태조사』
2) 농림축산검역본부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3) 문화체육관광부, 농촌진흥청, (사)한국펫사료협회, 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조사 보고서』
4) 황원경・정귀수・김도연, 2018.『반려동물 연관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5) 서울특별시・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7.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민토론회 자료집』. 노원구
6) 황원경. 2017 『2017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7) 농림축산검역본부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8) 김선희. 2013.『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조사보고서』13-21호. 한국소비자원
9) 국립수의과학. 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10) 돈을 주고 구매하는 것 모두

반려동물을 위한 가계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2017년도 KB금융보고서는 월평균 ‘5~10만원 미만’이 2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50만원 미만’ 20.1%, ‘10~20만원 미만’ 19.8% 순이었고, 세부지출 항목은 ‘사료・간식비’ (85.8%), ‘질병・부상의 치료비’ (64%), ‘예방비’ (58.9%), ‘미용비’ (55.3%) 순이었다.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2018)의 조사에서는 반려동물을 위한 월 평균 지출은 8만6천원(반려견은 9만6천원, 반려묘는 6만7천원)으로 월 평균 10만원 미만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66.5%에 달했다. 같은 해에 이루어진 KB보고서(황원경 외, 2018)는 반려견을 위한 월평균 지출이 12만8천원, 반려묘의 월평균 지출이 12만원으로 조사되었고, 반려묘와 반려견 둘 다 키울 경우 월평균 지출은 23만8천원이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의 보고에 의하면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 평균은 14.5만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 보고서에서 제시한 최근 1년 간 반려견 의료비 지출은 정기검진 평균비용 24.3만원, 예방접종 평균비용 13.7만원, 질병치료 평균비용 33.2만원, 상해치료 평균비용 42.5만원이었다.

반려동물 등록률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8.2%, 2015년 25.3%, 2017년 33.5%, 2018년 50.2%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 47%(황원경, 2017), 2018년 48.3%(문화체육관광부 외, 2018)로 여전히 50% 미만의 반려동물 등록률을 보이고 있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고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7년 KB 금융의 연구결과는 등록에 대한 필요성 느끼지 못함(33%),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16.6%), 의무/제재만 있고 혜택은 없어서(12.6%) 순이었고(황원경, 2017), 농림축산검역본부(2018)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49.7%),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 순이었다. 동물권행동카라(2019)의 보고서에서는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 우려(27.3%), 동물등록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25%), 등록비용의 부담 (19.7%), 시간을 내기 어려움(5.3%), 등록할 필요 없음(3.8%), 절차가 번거로움(3%)순이었다.

반려동물 중성화 여부는 문화체육관광부(2018) 조사에서는 45.8%로 나타났고, 성별은 수컷(52.9%)이 암컷(37.4%)보다 많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설문 조사를 실행한 동물권행동카라(2019)의 연구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결과는 수술비가 비싸서 (49.5%)가 월등히 높았고,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13%), 중성화수술 잘 몰랐음(12.5%), 꼭 해야 할 이유 모르겠음(7.5%) 순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서울연구원(유기영・이종찬, 2016)의 보고서는 동물 진료비(27.3%), 이웃 피해(13.3%), 사육시간 부족(12.7%), 위생상 문제(12.2%) 순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포기하고 싶은 경우에 대해서는 KB연구보고서(황원경, 2017)의 중복응답에서 배설물, 털 등 관리 어려움(51.8%), 공동주택/주변환경(50.8%), 집에 혼자 두고 다닐 수 없음(48.2%), 펫로스 증후군(32%) 순이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의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2018)보고서에는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겠다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지·야산 매립(35.5%), 동물병원에서 처리(8.5%) 등의 순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조사에서는 지난 5년간 반려견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가 응답자의 17.1%였고, 이때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땅에 묻은 경우가 가장 많은 47.1%였고,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한 경우가 27.9%, 장묘업체 이용은 24.3%였다. 반려묘의 죽음을 경험한 경우는 8.7%였고, 반려견과 마찬가지로 땅에 묻은 경우가 가장 많은 52%였고, 장묘업체 이용 32%,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처리한 경우가 16%였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 돌봄을 통한 삶의 변화 정도를 살펴본 동물권행동카라(2019) 보고서에는 서울시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은 외로움 감소(3.77)가 가장 높았고, 책임감 생김(3.72), 생활이 활기차짐(3.71), 사람들과 대화 늘고(3.52), 운동량 증가(3.51), 긍정적 사고(3.50), 스트레스 감소 (3.50), 자신감 (3.43), 건강이 좋아졌다 (3.43). 특히 연령이 50대 이상과 60대 이상은 낮은 연령대(10대, 20대, 30대, 40대)보다 삶의 변화도 평균값이 더 높았고, 아파트가 다른 주택형태(단독주택, 연립/빌라/다세대주택) 집단보다 삶의 변

화도 평균값이 더 높았다.

반려인들이 원하는 지원정책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2018) 보고서는 유실 또는 유기되는 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사항으로, 동물을 버리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으며, 미등록 소유자 처벌 강화(31%), 동물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16.5%) 등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밖에 동물 생산/판매업 규제를 강화(8.3%), 중성화 수술 비용 정부지원(4.3%) 등 의견이 있었다.

제3절. 취약계층 개념 정리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및 기타 조건으로 인하여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약자를 지칭하는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자원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거나 이로 인하여 기본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국가의 개입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혜택을 제공받을 기회로부터 배제되기 쉽다(김주경, 2012). 이외에도 '취약계층'은 취업활동과 생애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사회경제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보호가 없을 경우 미래에)빈곤층으로 전락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계층을 지칭한다고 정의되기도 한다(방하남・강신욱, 2012).

그러나 취약계층을 정의할 때 어떠한 위험에 대하여 취약하다고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약계층의 정의가 부처별로 다르고 중복되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취약계층에 대해 합의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기가 힘들다. 그 결과 학계나 경제・교육・문화・고용・환경・사회・보건의료 등 정책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서 '취약계층'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서 각각 취약계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검색어로 연구논문들을 검색해보면 경제적 취약계층 이외에도 건강취약계층, 주거취약계층, 정보취약계층, 금융취약계층, 안전(재난)취약계층, 기후환경취약계층, 범죄취약계층, 교통취약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약계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칭하기도 하고 있으나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취약계층을 규정하기도 하고, 해당 분야에 특별하게 취약한 계층을 규정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령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출소자 등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이해하고 있

다. 취약계층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대략 ①소득이 낮은 빈곤계층, ②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청년, 장애인, 노령자 등), ③인적 속성을 바탕으로 여성,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 출소(예정)자 등 인구학적 집단, ④예기치 않은 사고(질병, 산업재해, 재난, 재해 등)를 당해 위험에 처한 경우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다양한 정의방식은 부분적으로 중첩성이 인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이준섭,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취약계층'이란 거소 또는 주소가 불명등록 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사람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재산조사가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이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되는 계층을 말한다.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 노숙인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구분한 사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인데, 같은 법 2조에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가족), 장기실업자들로 12가지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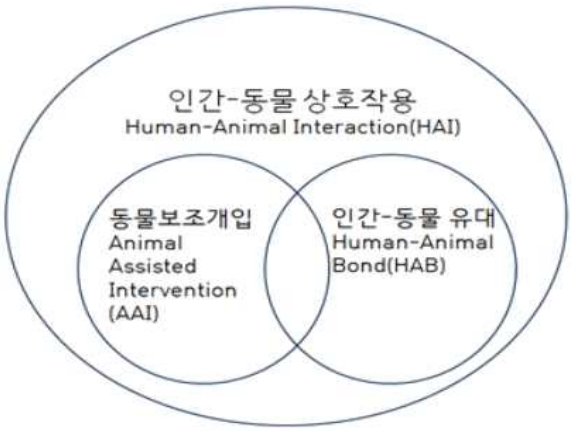
또한 정보취약계층도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노화, 신체적 장애, 언어장벽, 그 밖의 사회문화적 요소로 인해 스마트기기 등 정보화기기에 대한 접근과 활용에 있어 제약을 경험하는 소비자집단을 지칭하며 구체적으로는 만 55세 이상의 중·고령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등이 정보취약계층에 해당된다. 이러한 정보(지식)취약계층은 '도서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의 지방자치법규나 조례에서 대동소이하게 정의하고 있다(손지연 2018).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해서는 보건분야의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정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있어서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가장 우선적이며 수의학적 관리가 기본이자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려동물 돌봄에 필요한 욕구와 서비스, 그리고 이슈들이 사람의 보건서비스 분야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 관련 각종 법률에서 정의한 취약계층의 개념을 살펴보면 의료급여법’에서는 저소득층을 생활이 어려운 자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들을 의료보호 환자 등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화하고 있으며 ‘환경보건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을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라고 정의한다. 종합해보면,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취약계층은 의료서비스 자원 이용에 제약이 있거나 질병에 걸릴 위험이 큰 인구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 취약성과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중첩되어 이중고를 겪게 되는 빈곤아동과 빈곤여성 등은 보건사업과 건강대책 수립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취약계층이다(김주경, 2012).

○ Human-Animal Bond 개념에 근거한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

본 연구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모두 유익한 관계 속에서의 돌봄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Human-Animal Bond(인간-동물 유대, HAB)라는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간-동물 유대라는 용어에서 유대(bond)라는 단어는 가까운 상호관계를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포유류나 조류와 같은 다른 종(species)간의 관계를 의미할 때에도 쓰인다. HAB는 인간과 동물간의 상호작용(Human-Animal Interaction, HAI)이나 동물을 보조로 하여 인간서비스에 개입하는 동물보조개입(Animal Assisted Intervention, AAI)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HAI가 인간과 동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관계(동물을 이용, 활용, 학대하는 관계를 포함하여)를 의미하

는데 반해 HAB는 인간과 동물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한다. HAB가 의미하는 인간과 동물 모두가 상호 유익한 관계는 첫째, 인간과 개별 동물간의 상호인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이 관계는 상호간에 발생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셋째, 이 관계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Hosey & Melfi, 2014).



<그림 1-1>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도식

미국 수의사협회(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18)은 HAB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인간-동물 유대관계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상호 유익하고 역동적인 관계로, 인간과 동물 모두의 건강과 복지에 필수적인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사람, 동물 및 환경의 정서적, 심리적, 물리적 상호 작용 등이 포함된다.”

HAB 이론에 근거하여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첫째, 우선적으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취약계층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저소득자, 노인, 장애인들이 해당된다. 실제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주민의 경우 반려동물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경제력이나 신체적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이 반려동물을 잘 보살피고 문제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예방적 건강관리, 미용, 산책을 비롯하여 펫티켓, 펫로스 개입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 정서 및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된 특별한 위기나 욕구에 대처 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면, 노숙인(주거약자), 수의 관련 직종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직원, 동물보호활동가,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반려인, 반려동물 돌봄 정보(지식, 인식)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리적, 물리적 접근권이 약한 계층, 사회화 훈련부족 등으로 소위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의 반려인 등 다양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반려동물을 돌보거나 건강한 HAB를 지속하는데 특수한(응급한) 위기상황을 겪게 되는 반려인들이다. 그 예로는 재해나 재난 대피 혹은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요양원입소나 장기입원을 앞둔 노인,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직장업무와 반려동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현재 사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견의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넷째, 취약계층 이외에도 소외된 계층(혹은 손길이 미치지 않는, underserved)에 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위험에 대응하거나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언어적) 장벽이나 지식 부족, 접근성 부족 등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칭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at-risk population(위험집단)’ 인데 이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위험이나 피해에 훨씬 더 노출 된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위협이란 손상, 피해 또는 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잠재적 행동 또는 무 활동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저소득 반려인(취약계층, vulnerable)이 반려동물 돌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용(위협, threats)이 들 때, 노인이나 장애인(취약계층,

vulnerable)이 신체적, 인지적 어려움이나 기타 제약(위협, threats)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잘 돌 볼 수 없을 때, 수의관련 직종 종사자나 동물보호 활동가(취약계층, vulnerable)이 연민피로, 우울증, 트라우마, 자살 위험(위협, threats) 등을 겪을 때 모두 HAB 위험계층(at-risk)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반려동물 돌봄과 관련하여 특수하거나 응급한 위기상황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는 데 재해나 재난 피해자(대피자), 갑작스럽게 수감되는 사람, 요양원입소나 장기입원을 앞둔 독거노인, 반려동물보다 먼저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 직장업무와 반려동물 돌봄을 병행하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과 함께 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 (현재 사는 곳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견의 출입을 거절당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이상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반려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외에도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위기가 처하는 상황이 되면, 즉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에 상호 유익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다면, 그 상황에 처한 사람도 취약계층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면, 1-2m 길이의 짧은 목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시골 개들, 과도한 숫자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불결하고 안정하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경우, 잔반을 먹고 사는 반려동물, 성대수술을 비롯해서 과도한 방법으로 양육되는 개들, 동물매개활동에 동원되는 반려동물들 모두 HAB에 위기가 되는 상황이다.

이상 소개한 내용을 종합하여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의 개념을 정의하면 “반려동물을 잘 돌보고 건강한 인간-동물유대(HAB)를 유지하는데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특별위기 상황을 맞이한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ㅇ 반려동물 돌봄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단계적 전략

첫째,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이전에 그들이 취약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약점(Vulnerability)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위협(Threat)은 그들에게 위험(Risk)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돌봄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려인들에게 취약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예방전략(preventive strategies)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방 전략은 위험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구현되는 전략이다. 부정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본질적인 복지와 혜택이 증진된다. 따라서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예상되는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완화전략(mitigation strategies)은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소개한 예방 전략이 위협이 발생할 확률을 줄이는 반면 완화 전략은 개인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협(threats)이 되는 상황은 줄이고 지원(aids/services)은 늘려야 한다.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정보, 조언 및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위협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대처 전략(coping strategies)은 일단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그 영향을 완화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반려인의 반려동물에게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면 특정 질병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예방전략). 이후 반려동물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특정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꾸준하게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다(완화전략).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제4절. 해외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례 소개

1. 저소득층을 위한 반료동물 사료 지원

○ Pets Assisting the Lives of Seniors(PALS)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mealsonwheelscentraltexas.org/programs/pals

· **기관소개 및 사업**

PALS는 Central Texas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락배달프로그램(Meals on Wheels Program)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중 개와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반려동물 중성화를 마쳐야 하며 중성화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PLAS가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중성화 수술에 동의해야 한다. PALS는 사료 이외에도 간단한 미용 서비스나 기증받은 반려동물용품 제공을 비롯하여 지역 수의병원과 협력하여 백신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벼룩 예방 등 기본적인 수의학적 관리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사상충 치료, 발치, 종양 제거 등의 수의학적 치료도 제공한다.

○ The Seniors Pet Assistance Network (SPAN)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seniorspets.org/

· **기관소개 및 사업**

미국 Dallas 주에 위치한 The Seniors Pet Assistance Network (SPAN)은 67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개, 고양이, 심지어 새들을 위한 사료를 제공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노인의 집으로 사료를 배달하여, SPAN의 동물병원을 통해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수의학적 지원을 제공한다.

2.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 JASA 의 Pets and Elder Team Support (PETS) Project

· **웹사이트주소** : http://www.animalalliancenyc.org/media/ootc/2006-09/aao.htm

· **기관소개 및 사업**

JASA(Jewish Association Serving the Aging)은 1968년 설립된 미국의 최대 노인복지기관으로 1년에 5만 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복지서비

스를 제공한다. JASA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 Pets and Elder Team Support(PETS) Project는 노화, 질병,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약한 노령 반려인에게 자원 봉사자를 연결하여 노인 및 반려동물 모두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997년부터 시작된 PETS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하여 반려동물 돌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하는 일, 필요한 서비스를 수의사나 반려동물 돌봄 자원봉사자에게 의뢰하는 일, 그리고 동물병원 방문 이동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반려인이 입원할 경우 반려인의 집이나 임시위탁보호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과 입양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는 반려동물 사료와 간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일 년에 최대 250달러(약 30만원)의 반려동물 돌봄지원비를 지급한다. JASA PETS 프로젝트의 특징은 자원 봉사자와 노인 반려인을 연결하여 각각의 요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며, 노인과 반려동물을 함께 돌보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서비스는 반려동물 돌봄 경험이 있으며 임상사회사업 자격증(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을 소지한 전문 사회복지사의 관리와 감독 하에 진행된다.

JASA PETS Project: Helping NYC Seniors and Their Animal Companions

There is a little-known program in New York City that's helping to keep some senior citizens' pets where they belong — in their loving homes, and out of animal shelters. It's the JASA PETS Project, and it's making a difference for many NYC seniors and their pets.

Following a heart bypass operation, Ms. B. — a former teacher who lives alone with Lady, her two-year-old Dachshund — was feeling isolated, depressed, and useless. Already involved with the JASA Pets and Elder Team Support (PETS) Project, a group of international students was recruited to help Ms. B. care for her dog. In return, she has begun to work with them to improve their English conversational skills. The connection with the students has restored Ms. B. into a vibrant, involved educator interacting with a group of students who, in turn, are helping her dog.

Ms. H. suffers with multiple sclerosis. Isolated and bedridden, she relied upon her two cats for companionship. Sadly, last year one of her beloved cats died and shortly thereafter, her other cat, Foxy, wandered outside 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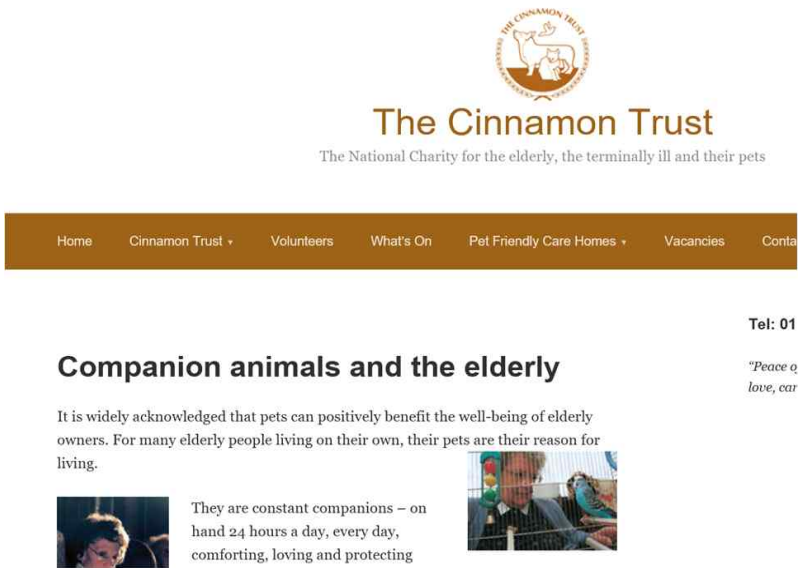
Volunteering can be a family affair. Dr. Charles Bauer (far left), a client of the JASA PETS Project, and Milo, his companion Poodle, are accompanied on dog walks by a volunteer family, the Wollochs — (from left) Daniel, Zachary, Valerie, and (in front) Charles.

○ The Cinnamon Trust

· **웹사이트주소** : https://cinnamon.org.uk/cinnamon-trust/

· **기관소개 및 사업**

영국 웨일즈에 위치한 시나몬 트러스트에서는 노인들이 반려동물과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마지막 생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들과 반려동물을 함께 보살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동물을 잠시 이용하는 동물매개치료 방식이 아니라 24시간 보살핌을 제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주인들과 함께 노력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나몬 트러스트에서는 약 1만5천명의 교육받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그들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나 노인을 대신해서 반려견을 목욕시키거나 산책시켜 주며 필요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의 병원진료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이외에도 고양이를 돌보거나 새장을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과 환자들이 반려동물을 접하고 사랑하게 되면서 돌봄, 위안, 안전, 사랑, 평화 등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동물보호단체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 The Mayor's Alliance for NYC's Animals

- **웹사이트주소** : http://www.animalalliancenyc.org/
- **기관소개 및 사업**

2003년 뉴욕변호사협회(New York Bar Association) 동물법분과위원회 제의로 2003년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시보호소 포함 150여개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및 구조단체가 협력하여 유기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반려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Mayor 즉 시장이라고 해서 뉴욕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인가 오해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민간 비영리 기관으로 반려견 등록 및 면허증 관리, 개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입양, 그리고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업들을 진행한다. 이 연합이 운영하는 Helping Pets and People in Crisis는 2006년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과 분리되는 소유자(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가정 폭력, 입원 등 의학적 치료를 위해 가정을 떠나야 하는 노인, 퇴거 위험에 처한 가정 등이 여기 속한다. 요청에 의해 동물복지 지원 및 소유자의 문제가 개선되는 동안 일시적 위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을 입소시키는 대신 새 가정을 찾아줌으로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반려인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 특히 웹사이트 내에 사회복지사가 위기에 처한 반려인을 도울 수 있도록 “on-line toolkit for social workers to help pet owners on crisis” 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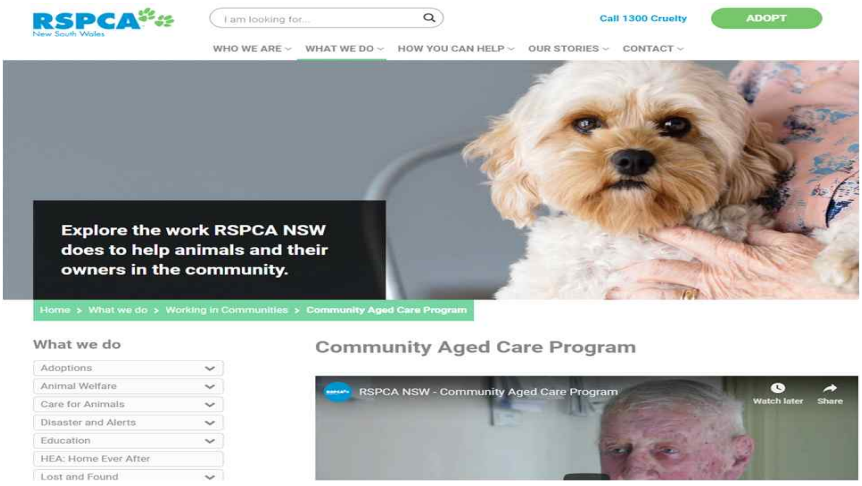
○ RSPCA Australia, Community Aged Care Program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rspcansw.org.au/

· **기관소개 및 사업**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동물보호 단체인 RSPCA는 세계 전역에 지부를 두고 다양한 반려동물 돌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Australia New South Wales 지부가 운영하는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프로그램인 Community Aged Care Program은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임시 위탁보호나 반려동물 이송 지원
- 치료, 간호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반려견 산책 및 재택 간호
- 단기간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연결
- 수의치료를 보조 및 미용 보조
- 기본적인 돌봄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 수의병원 방문 시 교통지원



○ 미국 ASPCA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aspca.org/

· **기관소개 및 사업**

미국 ASPCA는 전국적으로 저비용 중성화수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뉴욕시 건강정신위생국과 연계하여 중성화 수술 트럭을 운영해 뉴욕거주 저소득층 시민에 한해 하루 평균 20-25마리의 중성화 수술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 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25달러의 비용을 청구한다. ASPCA가 운영하는 ASPCA Animal Hospital은 구조·학대동물 치료와 병행해 소유자의 연 수입 합산이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에 수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ASPCA 뉴욕지부는 2021년 까지 뉴욕시 일대에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동물병원(Community Veterinary Center)' 세 곳을 개설하고, 뉴욕시경찰국(NYPD)와 협력하여 구조된 학대견의 재활을 위한 대규모 시설을 허드슨 밸리 지역에 건설할 계획이다.

○ Portland Animal Welfare (PAW) Team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pawteam.org/

· **기관소개 및 사업**

미국 포틀랜드 주에 위치한 포틀랜드 동물복지(PAW) 팀은 노숙자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반려동물에게 무료로 수의학적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완화하며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돕는다. PAW Team은 저소득층 반려동물의 건강검진, 예방 접종, 중성화(spay and neuter) 서비스, 기생충 방제, 의료적 미용, 반려동물 등록, 약 처방, 사료 및 돌봄 용품을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제공한다. 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심사하는 인터뷰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자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가구의 모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반려동물은 중성화수술을 마쳐야 하는데, 나이가 많은 반려동물은 예외로 한다. 중성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료로 중성화를 제공하며, 수술 시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이식, 발톱정리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과치료, 종양제거, 절단수술 등의 위중한 수술과 치료도 제공한다.

“가난한 반려인이 기본적인 의료비를 지불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려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아야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PAW Team이 무료로 저소득층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돕는 이유에 대해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소개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그들과 유대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려 동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정신 장애가 있거나 물질 남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반려동물 치료에 많은 돈을 쓸 수 없지만, 다른 사람만큼이나 또는 더 많이 반려 동물을 사랑합니다."

또한 반려인 가구당 두 마리의 반려동물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데, 그 이유는 저소득층 반려인들이 과도한 수의 반려동물을 돌봄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반려동물과의 유대가 건강하게 지속가능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 Animal Humane Society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animalhumanesociety.org/

· **기관소개 및 사업**

미국 Minnesota 주에 위치한 Animal Humane Society는 저소득층 반려인, 현역 및 퇴역 군인, 길고양이 보호자, 비영리 동물구조단체에 질 높은 수의학적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한다. Animal Humane Society는 매년 도움이 필요한 22,000 마리 이상의 동물을 돌보고 수천 명의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의 유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며 반려동물을 더 이상 돌보기 어려운 경우 반려동물 인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위기에 처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될 수 있도록 중성화, 문제행동 교정 훈련, 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bout Animal Humane Society

Every year Animal Humane Society cares for more than 22,000 animals in need and helps thousands more through programs for people and pets.

As one of the nation's leading animal welfare organizations, AHS is transforming the way shelters care for animals and engage their communities. From innovative medical and behavior programs to investments in outreach and advocacy, we're advancing animal welfare and creating a more humane world for animals everywhere.

○ Frankie’s Friends Fund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frankiesfriends.org/national-frankies-friends-fund

· **기관소개 및 사업**

미국 Florida주에 위치한 Frankie’s Friends Fund는 응급 또는 위중한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전액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000 달러의 재정지원 보조금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반려동물이 적절한 수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거나, 안락사나 양육포기 될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반려동물만을 대상으로 하며 유기동물이나 임시보호 또는 보호소에 입소된 동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치료비용의 일부는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수의과 병원에 약 25%의 할인을 요청함으로 충당된다.

이외에도 Frankie's Friends Fund와 유사한 Hope Fund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거나 연장시키는 응급 또는 전문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반려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 Hope Fund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의 치료를 위해 특별히 사용되는 것으로 일차 치료, 예방 치료, 예방 접종, 진단 검사 또는 만성질환이나 약물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Pet Funds 는 암이나 심장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반려동물의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미국의 반려인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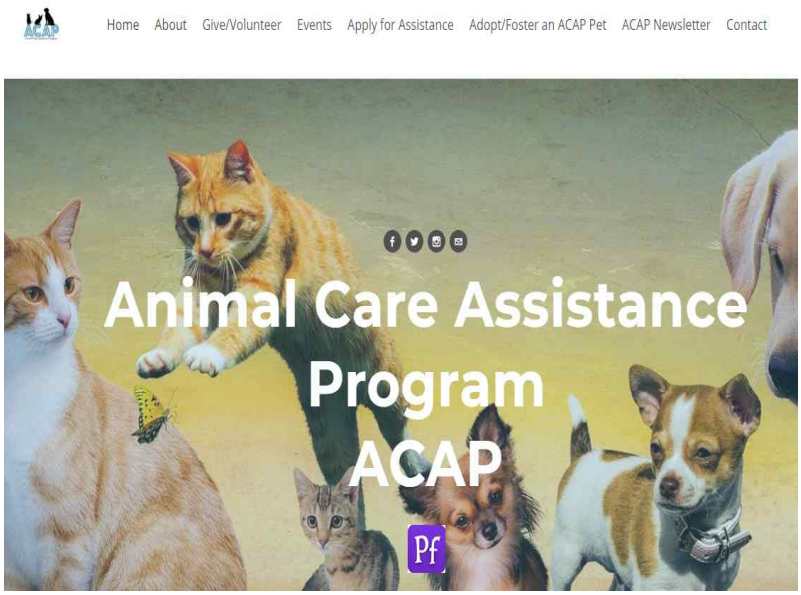
○ Animal Care Assistance Program (ACAP)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acapva.org/

· **기관소개 및 사업**

ACAP은 버지니아 주 중부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의약품을 비롯하여 수의학적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반려인들 돕는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저소득층 반려인들이 수의적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고통을 겪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양육을 포기하여 보호소에 양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CAP는 기본적인 수의학적 돌봄 비용만을 지원하는데 벼룩/진드기 예방, 구충, 심장사상충 예방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나

회복이 어려운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응급 및 호스피스 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ACAP의 반려동물보호는 방치나 구조된 동물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한다.



◦ People and Pets Together

· **웹사이트주소** : http://www.peopleandpetstogether.org/

· **기관소개 및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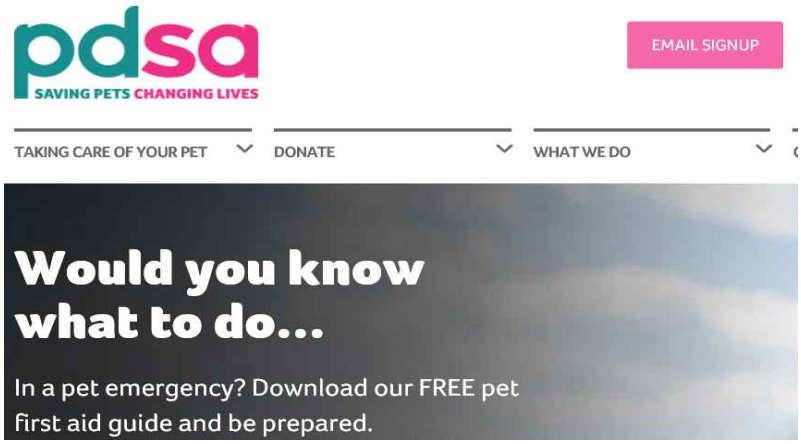
미국의 미네소타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운영하는 People and Pets Together는 미국최초의 반려동물 사육포기 방지 프로그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려인들에게 반려동물 사료를 제공하고 무료 예방접종 클리닉 등을 운영한다.

◦ People’s Dispensary for Sick Animals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pdsa.org.uk/

· **기관소개 및 사업**

1917년 영국에서 설립된 ‘People’s Dispensary for Sick Animals (아픈 동물을 위한 사람의 양호실)은 저소득층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수의과 진료를 지원한다. 영국 전역에 48개 동물 병원과 이동식 치료 시설을 운영하며 질병이나 부상당한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무료 또는 할인된 수의학적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400여 곳의 동물병원과 연계해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 가구당 1회의 응급 치료를 지원하며 저비용 예방 치료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횟수와 동물 수의 제한 없이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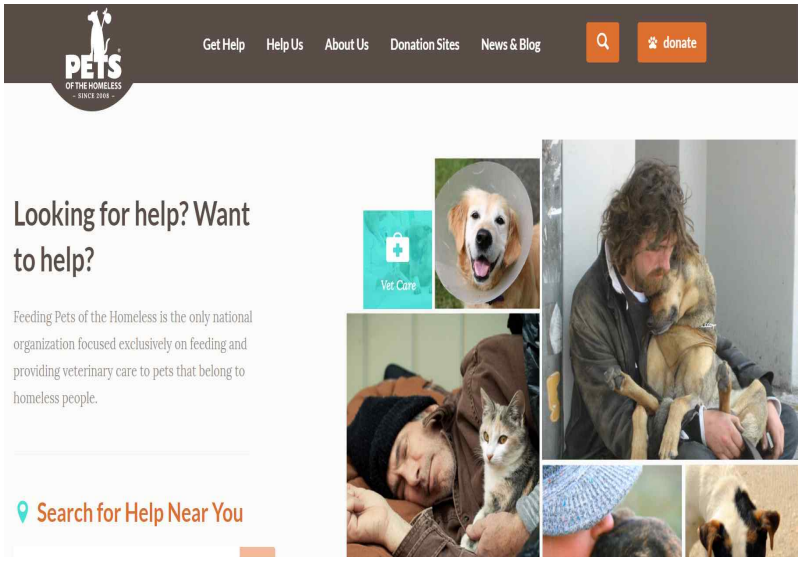
○ Pets of the Homeless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petsofthehomeless.org/

· **기관소개 및 사업**

많은 노숙자들의 경우 그들의 반려동물이 주는 치유력과 그들이 반려동물과 갖는 유대의 힘은 매우 크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위안과 보호를 받으며 책임감과 재활의 의지를 키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그들의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돌볼 경제력과 자원이 부족하다. 미국 Nevada주에 위치한 ‘Pets of the Homeless’는 2008년부터 미국 전역에서 노숙자들의 반려동물에게 기본적인 응급 수의학 치료를 제공하여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노숙자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준다. 기본적으로는 반려동물 사료와 이동장(crate)을 제공하며 미국 전역에서 여러 동물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접종, 건강검진, 경미한 치료 및 약품, 중성화(spay 또는 neuter) 수술을 위한 바우처, 발톱 다듬기, 귀 청소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응급 외상 치료를 제공한다.



4. 수의대학, 수의사 협회 혹은 개인 동물병원의 취약계층 지원

○ Community Veterinary Outreach(CVO), Ontario, Canada

· **웹사이트주소** : https://vetoutreach.org/

· **기관소개 및 사업**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온타리오 수의사 협회의 Community Veterinary Outreach을 통해 저소득층에 할인된 비용 또는 의료비 납부조정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 자격은 사회보장 혹은 장애인보조금

수급자이거나 사회복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반려인으로 지난 12개월 동안 중성화나 응급치료 이외의 수의학적 관리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지역사회의 보호소, 시립 보건소, 지역사회 보건 센터 및 정신 건강 기관 등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기관들로부터 추천이나 의뢰를 받은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게 건강검진, 예방 접종, 기생충 방제 및 건강 교육과 같은 예방적인 동물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돌봄 교육, 미용, 발톱 관리, 마이크로 칩 삽입, 사료 및 돌봄 용품 등을 제공한다. CVO는 “One Health” 를 강조하는데 이 모델은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환경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면서 협력하는 것이다. 즉, 인간과 동물의 건강을 위한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인간과 동물의 유대를 활용하여 모두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클리닉 및 반려동물 돌봄 아웃리치 행사에는 지역 내 연계를 통해 반려인들의 건강을 돕는 다양한 건강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흡연 감소 및 금연, 독감예방접종, 치과치료, 위험행동감소(Harm Reduction, 건강습관 및 운동 교육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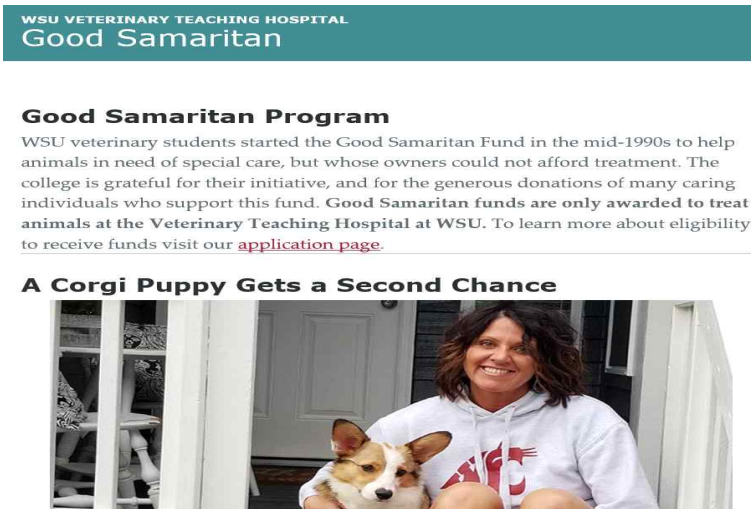
○ WSU’s Good Samaritan Fund

· **웹사이트주소** : https://vth.vetmed.wsu.edu/good-samaritan

· **기관소개 및 사업**

워싱턴 주립대학(Washington State University, WSU) 수의과대학의

‘Good Samaritan Fund(선한 사마리아인 기금)’ 은 1990년 중반부터 저소득층 시민의 반려동물이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반인의 기부로 모아진 기금으로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서 저소득층 반려인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 기금은 WSU의 수의학 교육 병원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 **캘거리 수의과대학의 시범 프로젝트**

· **기관소개 및 사업**

캐나다 캘거리 수의과대학은 Calgary Urban Project Society(캘거리 도시 프로젝트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의과 대학 4학년 학생들이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에게 무료로 기본적인 수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Pilot 프로젝트를 시행했다(2015년-2016년). 모든 서비스는 수의학과 교수의 감독과 지도하에 제공되었다. 무료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반려동물 영양 교육, 기생충 및 기타 감염을 예방하는 등 대부분 기본적인 수의서비스를 제공했다.

Edmonton

'Particularly vulnerable:' Proposed law offers protection to Alberta pet owners

Vets will be required to disclose fees up front

The Canadian Press · Posted: Dec 03, 2017 10:22 AM MT | Last Updated: December 4, 2017

○ Animal Medical Center(AMC)의 Community Funds

· **웹사이트주소** : https://www.amcny.org/community-f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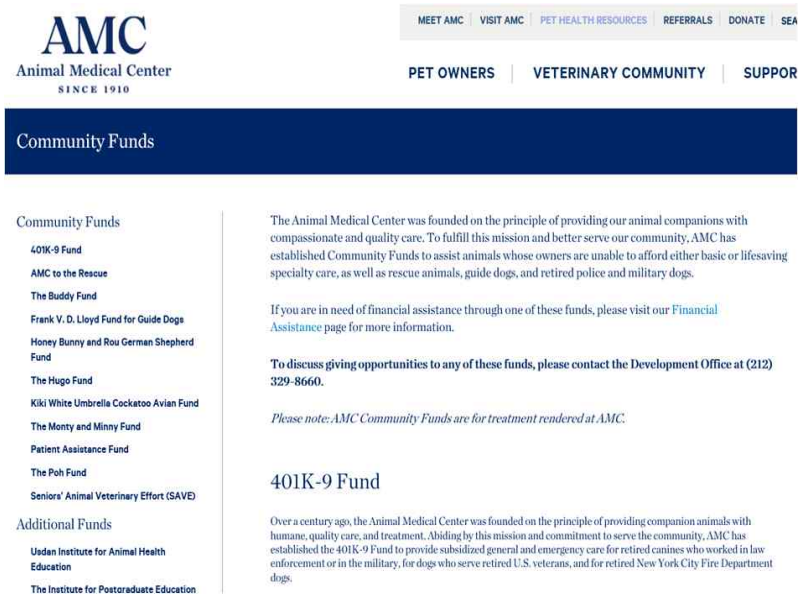
· **기관소개 및 사업**

1910년 미국 뉴욕시에 설립된 Animal Medical Center(AMC)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영리 동물병원이다. AMC는 동물을 위한 고급 치료,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자애로운 양질의 치료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설립되었다. 이 사명을 완수하고 지역 사회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MC는 저소득층 반려동물뿐만이 아니라 구조 동물, 안내견, 은퇴한 경찰 및 군견들의 기본적인 돌봄부터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 사회기금을 설립했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401K-9 Fund: 사법기관이나 군대에서 은퇴한 사역견, 퇴역 군견, 퇴역 소방견에게 보조금과 일반 및 응급치료 제공.
- AMC to the Rescue: 유기동물 구조단체와 활동가들이 돌보는 동

- 물들 중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입양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특수치료를 제공.
- The Buddy Fund: 암에 걸린 반려동물 치료를 위한 무료 또는 보
- 조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반려인들이 그들의 반려동물의 암 치료 비용을 보조하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 높은 수의 치료를 제공.
- The Frank V.D. Lloyd Fund: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
- 없이 그들의 안내견을 위한 건강관리 및 예방 수의학 치료를 제공.
- The Hugo Fund: 신장질환 등 만성 내과 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 반려견의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 Kiki White Umbrella Cockatoo Avian Fund: 저소득층의 반려새
- (birds)들에게 전문적인 수의학적 보조금을 지원.
- The Monty and Minny Fund: 수술, 관절염, 비만 또는 신경학적
- 문제로 인해 반려동물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반려인들의 반려동물에게 수중 러닝머신, 전기 수치료법, 초음파 및 특별 체력단련 프로그램과 같은 치료에 대한 재정지원 제공.
- Patient Assistance Fund: 응급상황에 처한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 감당할 수 없는 반려인들에게 무료치료 또는 보조금 제공.
- The Poh Fund: 말기 질환으로 진단되고 예후가 좋지 않은 고령
- 의 반려견과 반려묘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완화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펀드.
- Seniors’ Animal Veterinary Effort (SAVE):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 겪는 65세 이상의 노인 반려인들에게 그들의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돌봄부터 응급상황에 이르기까지 무료 치료 또는 보조금 지급.



5. 정부 및 지자체의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 지자체의 저비용 중성화 수술과 백신지원

- 미국 워싱턴주는 수의사법에서 “입법자는 저소득 가구는 반려동물을 위한 수의학적 관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 자격이 있는 동물관리부서나 동물보호단체가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게 수의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공사회를 대상으로 수의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규정해 일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한해 공공 수의치료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Title 18. Businesses and Professions. Chapter 18.92. Veterinary Medicine, Surgery, and Dentistry)

- 코네티컷 주에서는 동물 개체수 조절에 관한 조항에서 농림부 행정장관(commissioner)는 개와 고양이 소유자에게 중성화 수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저소득층 시민이 소유한 개와 고양이에 대해 중성화와 예방적 백신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 메릴랜드 주에서는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시, 카운티)와 동물보호단체에 중성화 수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책정·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 신청 조건에는 저소득 지역사회와 인구를 수혜 대상으로 최대한 포함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 Assistance Dog Special Allowance Program(ADSA)

· **웹사이트주소** : http://www.cdss.ca.gov/Assistance-Dogs

· **기관소개 및 사업**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장애인 보조견 특별 수당 프로그램은 신체장애를 지닌 반려인들을 돕는 안내, 신호 또는 서비스 견을 돌보는 비용으로 자격이 되는 경우 매달 $50를 지원한다. 이 수당은 캘리포니아 주에 등록된 장애인 보조견의 사료, 미용 및 건강관리 비용을 충당하는데 도움이 된다.

ASSISTANCE DOG SPECIAL ALLOWANCE (ADSA) APPLICATION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ADSA Program
744 P Street, MS 8-16-94, Sacramento, CA 95814
Phone (916) 657-2628 / TTY (916) 653-78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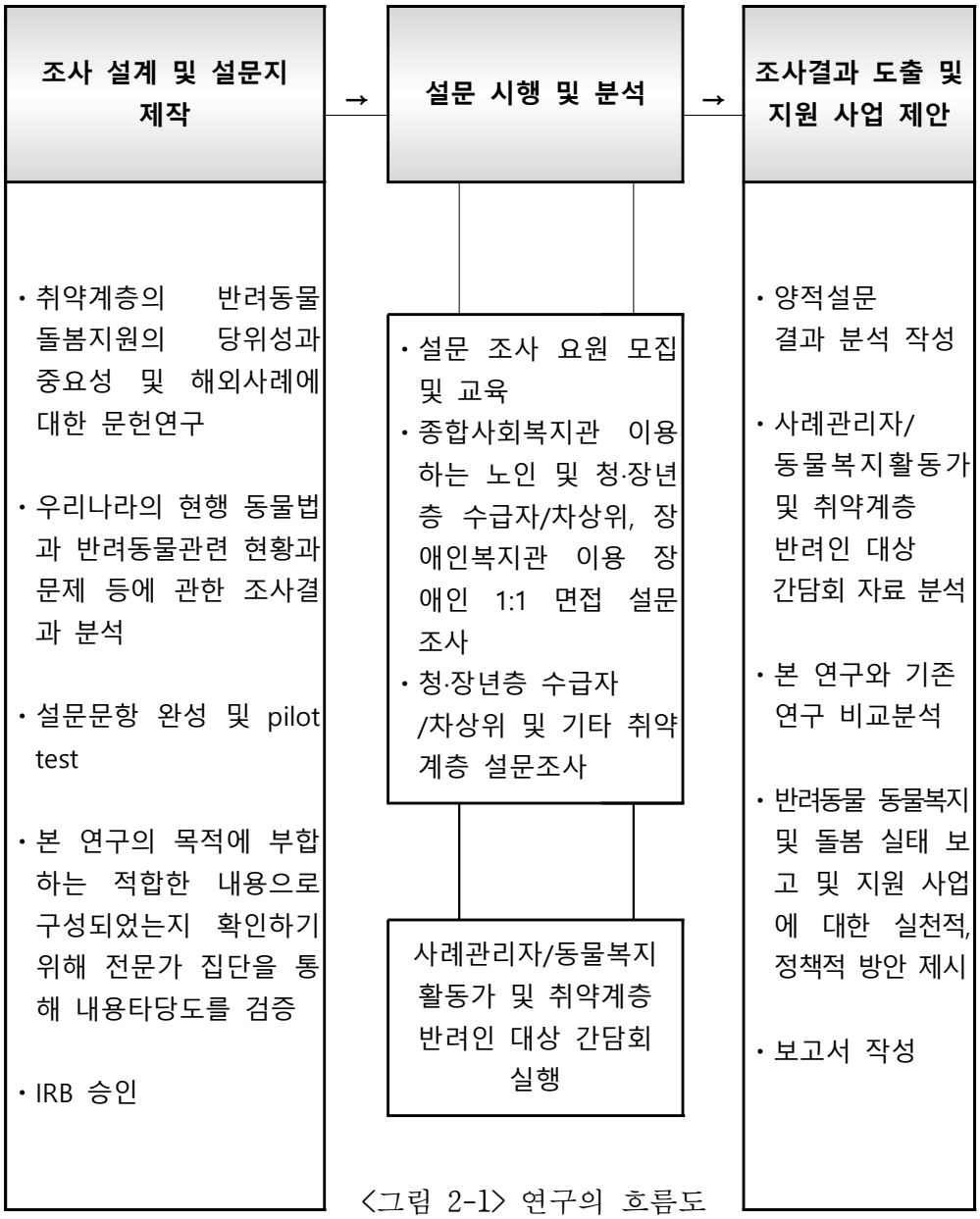
1. Social Security Number: _____ Date: _____
2. Name: _____
3. Mailing Address: _____
4. Residence address if different from mailing address: _____
5. Area code & phone number: ( )
6. Are you receiving: ☐ IHSS (In-Home Supportive Services)
   ☐ SSI/SSP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tate Supplementary Payment)
   ☐ CAPI (Cash Assistance Program for Immigrants)
7. Disability and type of assistance dog (check one):
   ☐ Blind with guide dog ☐ Deaf with signal dog ☐ Other with service dog
   If you checked "Other with service dog" provide a brief description of your disability below:
   _____
8. Dog's name: _____ Date Acquired: _____
   Age: _____ Weight: _____ Breed: _____
9. What person or school trained the dog?
10. What service(s) does the dog provide? Be specific as to how the service(s) relate to your disability.
    _____
    _____
    _____

See reverse side

제2장. 설문조사 연구결과

제2장. 설문조사 연구결과

제1절. 연구내용 및 방법



<그림 2-1> 연구의 흐름도

본 연구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및 건강관리 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양적 연구과 질적 연구를 모두 시행했다.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행하였고, 질적 연구인 FGI와 간담회는 사전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례관리자 및 취약계층 반려인 그리고 동물복지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설계는 <그림 2-1 >과 같다.

1. 양적 연구 방법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연구진들이 선행 연구검토와 실무경험을 토대로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총 7회에 걸쳐 수정을 하였고, 내용타당도 검증과 pilot-test를 실시 한 후에 최종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거주관련 특성, 건강 상태, 장애유무, 반려동물 관련 경험과 태도,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행태, 동물등록 여부, 중성화 수술 여부, 반려동물 돌봄지원 욕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 실태, 정부와 서울시의 동물 보호정책에 바라는 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진들은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모두 IRB 교육을 수료했으며 연구자가 소속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IRB 승인을 받았다.

서울시 4개 지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을 중심으로 각 권역 별 종합사회복지관의 기관장 등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복지관 20여 곳을 섭외하였다. 이후 설문조사 요원 모집에 신청한 사회복지관의 실무자 30여명, 동물복지 활동가 및 대학생 등 총 40여 명 중 실제 설문조사 수행이 가능한 35명을 선발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총 4회 실시된 설문조사요원 교육은 두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되었으며 조사윤리, 면접방법과 기술, 조사대상에 대한 이해, 설문내용 숙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2019년 10월 15일 ~ 2019년 12월 3일의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진과 설문요원들이 서울시 일대의 20여 곳의 지역사회복지관과 영구임대아파트 주변을 비롯하여 지하철역, 공원, 경로당 등에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동부(송파, 중랑, 중구, 강동, 성동) 150부, 서부(강서, 구로, 마포, 양천, 은평) 152부, 남부(강남, 서초, 동작) 148부, 북부(노원, 성북) 162부 등 총 612부의 응답 설문을 수거하였고, 이들 설문 중 무응답이나 문제점이 많은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604부를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는 곧바로 취합되어 코딩작업을 수행하였고, 코딩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IBM 23.0)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거주관련 특성, 건강 상태, 장애유무, 반려동물 양육 현황과 행태, 동물보호(법) 관련 지식 및 태도, 동물등록 여부, 중성화 수술 여부,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의료이용 실태, 정부와 서울시의 동물 보호정책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변수(집단)들 간의 t- test, 교차분석, 분산분석(ANOVA)등을 실시하였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변화된 점을 묻는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2. 질적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반려동물 돌봄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경험, 지원욕구, 반려동물정책관련 의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사례관리자 및 취약계층 반려인을 대상으로 FGI, 그리고 동물보호활동가들과의 간담회를 시행했다.

2회의 FGI는 2019년 12월 4일(수)에 사례관리자 5명(구청과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나 서비스제공 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사례관리를 수행한 서비스제공자)와 M사회복지관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돌봄 취약계층 6명(48세~73세)을 대상으로 각각 두 시간에 걸쳐 이

루어졌다. 반려인 대상 FGI 질문 내용은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된 시기와 계기, 반려동물 양육, 반려동물 돌봄지원 경험, 반려동물 양육 관련 지원 욕구, 향후 정부와 사회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례관리자 FGI는 연구참여자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경험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동물보호활동가들과의 간담회는 본 연구의 기초분석 결과의 의미 및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할 동물복지 정책 제언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FGI와 간담회 등의 모든 인터뷰는 연구진의 대학 회의실에서 연구책임교수에 의해 2시간가량 진행되었고, 공동연구원 2인이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모든 인터뷰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인터뷰 내용은 전문속기사에 의해 전사되었다.

제2절. 빈도 및 기술 통계

1. 빈도분석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기초사항

본 연구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권역구분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4개 권역 구분에 근거하여 서울시 25개구를 동부권역(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송파구, 성동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서부권역(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남부권역(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북부권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로 나누었다. 조사 결과, 북부권역 155명(25.7%), 서부권역 152명(25.2%), 동부권역 150명(24.8%), 남부권역 147명(24.3%)으로 나타나 4개 권역에 걸쳐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604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취약계층에 따라 분류(중복적용)한 결과 저소득세대는 54%에 해당하는 326명〔수급자 242명(40.1%), 차상위 84명(13.9%)〕이었으며 독거노인은 188명(31.1%), 장애인은 194명(32.1%)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445명(73.7%), 남성이 159명(26.3%)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70대 148명(24.5%)과 60대가 141명(23.3%)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50대 98명(16.2%), 80대 이상 75명(12.4%), 40대 55명(9.1%), 20대 이하 51명(8.4%), 30대 36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형태는 아파트 거주자가 434명(7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는 연립 · 빌라 · 다세대주택 110명(18.2%), 단독주택 50명(8.3%),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10명(1.7%)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에 관한 비율은 2세대(부모와 자녀 함께 거주) 216명(35.8%)과 독거노인세대 188명(31.1%)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는 노인부부세대 61명(10.1%), 1인세대(청장년) 51명(84%), 한부모세대 49명(8.1%), 기타 20명(3.3%), 조손세대 19명

(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가구형태로는 3세대, 친인척 집에서 동거 등이 있었다.

조사 참여자의 가구소득은 50~70만원 미만이 188명(31.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100~200만원 미만 107명(17.7%), 70~100만원 미만도 101명(16.7%), 50만원 미만 85명(14.1%), 200~300만원 미만 69명(11.4%), 300만 원 이상 54명(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급자는 242명(40.1%), 차상위계층은 84명(13.9%)이었다. 장애유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194명(32.1%)이었으며, 이 중 중증 장애인은 101명(52.1%), 경증 장애인은 93명(47.9%)이었다. 한편, 조사 참여자의 60.8%(367명)은 과거에 반려동물을 키웠던 경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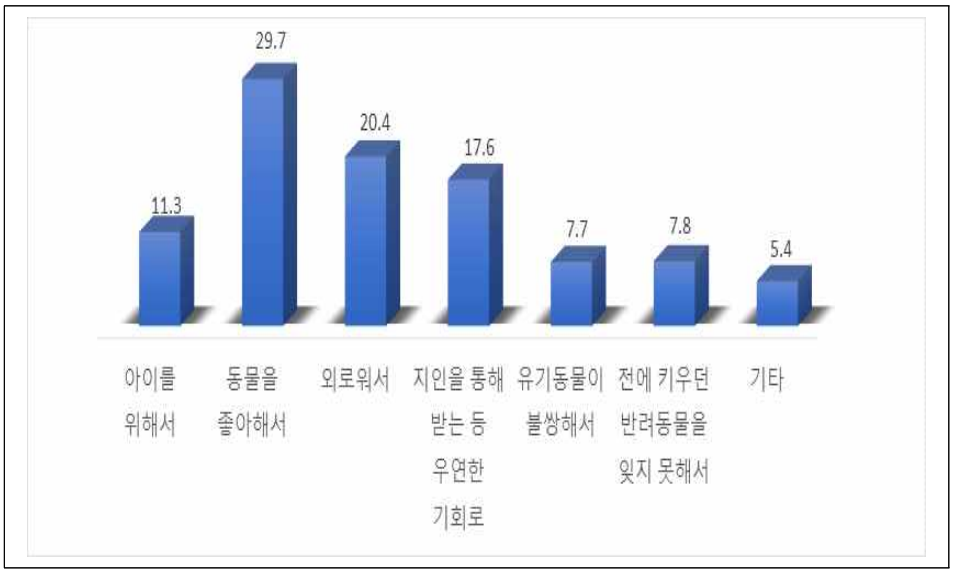
<표 2-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여성	445	73.7
	남성	159	26.3
	전체	604	100.0
연령대	20대 이하	51	8.4
	30대	36	6.0
	40대	55	9.1
	50대	98	16.2
	60대	141	23.3
	70대	148	24.5
	80대 이상	75	12.4
	전체	604	100.0
권역구분	동부권역	150	24.8
	서부권역	152	25.2
	남부권역	147	24.3
	북부권역	155	25.7
	전체	604	100.0

구분		N	%
주택형태	단독주택	50	8.3
	아파트	434	71.9
	연립/빌라/다세대주택	110	18.2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10	1.7
	전체	604	100.0
가구형태	독거노인 세대	188	31.1
	노인부부 세대	61	10.1
	조손 세대	19	3.1
	한부모 세대	49	8.1
	2세대(부모와 자녀 거주)	216	35.8
	1인 세대(청장년)	51	8.4
	기타	20	3.3
	전체	604	100.0
가구소득대	50만원 미만	85	14.1
	50-70만원 미만	188	31.1
	70-100만원 미만	101	16.7
	100-200만원 미만	107	17.7
	200-300만원 미만	69	11.4
	300만원 이상	54	8.9
	전체	604	100.0
보호구분[2)]	수급	242	40.1
	차상위	84	13.9
	일반	278	46.0
	전체	604	100.0
장애유무	유	194	32.1
	무	410	67.9
	전체	604	100.0
반려동물키운경험	있다	367	60.8
	없다	237	39.2
	전체	604	100.0

2) 본 조사는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호구분영역에서 일반(세대)은 수급세대와 차상위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저소득세대를 의미함.

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



<그림 2-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 (다중응답)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동물을 좋아해서'가 426명(2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외로워서'가 293명(20.4%),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가 253명(17.6%)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이어서는 '아이를 위해서' 162명(11.3%),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112명(7.8%),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111명(7.7%), '기타' 77명(5.4%)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기타 사유로는 가족 간의 소통을 위해서, 가족이 원해서, 예뻐서, 가족의 권유 및 지원으로, 외로워서, 건강상의 이유로, 집을 지켜주어서 등이 있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의 1순위는 '동물을 좋아해서'가 172명(28.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외로워서'도 126명(20.9%)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이어서는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가 113명(18.7%), '아이를 위해서'가 108명(17.9%), '기타' 35명(5.8%),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31명(5.1%),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19명(3.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의 2순위는 ‘동물을 좋아해서’ 194명(39.4%)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는 ‘외로워서’ 94명(19.1%),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 76명(15.4%),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40명(8.1%), ‘아이를 위해서’ 35명(7.1%),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32명(6.5%), ‘기타’ 22명(4.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3순위로는 73명(21.7%)이 응답한 ‘외로워서’와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 64명(19.1%)이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서는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61명(18.1%), ‘동물을 좋아해서’ 60명(17.8%),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40명(11.9%), ‘기타’ 20명(5.6%), ‘아이를 위해서’ 19명(5.6%)의 순이었다.

<표 2-2>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

구분		N	%
키우게 된 계기 (다중응답)	아이를 위해서	162	11.3
	동물을 좋아해서	426	29.7
	외로워서	293	20.4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	253	17.6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111	7.7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112	7.8
	기타	77	5.4
키우게 된 계기 1순위	아이를 위해서	108	17.9
	동물을 좋아해서	172	28.5
	외로워서	126	20.9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	113	18.7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31	5.1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19	3.1
	기타	35	5.8
	전체	604	100.0

구분		N	%
키우게 된 계기 2순위	아이를 위해서	35	7.1
	동물을 좋아해서	194	39.4
	외로워서	94	19.1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	76	15.4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40	8.1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32	6.5
	기타	22	4.5
	전체	493	100.0
키우게 된 계기 3순위	아이를 위해서	19	5.6
	동물을 좋아해서	60	17.8
	외로워서	73	21.7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	64	19.0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40	11.9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61	18.1
	기타	20	5.9
	전체	337	100.0
전체		1,4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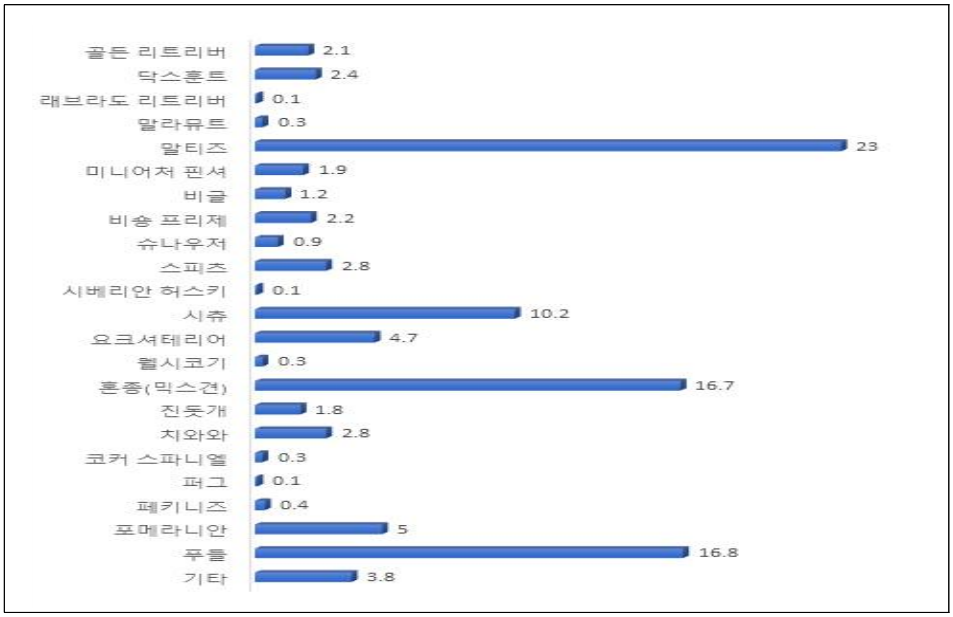
3) 반려견 양육 실태

반려견 수와 연령에 따른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반려견 수 평균은 1.30마리였으며 조사 참여자들은 반려견을 최소 1마리에서 최대 13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이 가운데 1마리가 444명(7.5%)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2마리 68명(11.3%), 3마리 이상 25마리(4.3%)의 비율의 순이었다.

반려견 연령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반려견 평균 연령은 6.42살이었으며 최소연령은 0.1살, 최고령은 21살이었다. 반려견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7살 미만이 350마리(52.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10살 이상이 131마리(19.7%), 7~10살 미만이 115마리(17.3%), 2살 미만이 70마리(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반려견 수와 연령 현황

구분		N	%	최소값	최대값	평균
반려견 수 구분	1마리	444	73.5	1	13	1.30
	2마리	68	11.3			
	3마리 이상	26	4.3			
	전체	538	89.1			
반려견 연령	2살 미만	70	10.5	.10	21.00	6.42
	2~7살 미만	350	52.6			
	7~10살 미만	115	17.3			
	10살 이상	131	19.7			
	전체	666	100.0			



<그림 2-3> 반려견 품종

반려견의 품종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말티즈가 156마리(23.0%)로 가장 많았으며 푸들 114(16.8%), 혼종(믹스견) 113(16.7%)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시츄 69(10.2%), 포메라니안 34(5.0%), 요크셔테리어

32(4.7%), 기타 26(3.8%), 스피츠 19(2.8%), 치와와 19(2.8%), 닥스훈트 16(2.4%), 비숑프리제 15(2.2%), 골든리트리버 14(2.1%), 미니어쳐핀셔 13(1.9%), 진돗개 12(1.8%), 비글 8(1.2%), 슈나우저 6(0.9%), 페키니즈 3(0.4%), 말라뮤트 2(0.3%), 웰시코기 2(0.3%), 코커스파니엘 2(0.3%), 래브라도리트리버 1(0.1%), 시베리안허스키 1(0.1%), 퍼그 1(0.1%)의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4> 반려견 품종

구분		N	%
반려견 품종 (다중응답)	골든 리트리버	14	2.1
	닥스훈트	16	2.4
	래브라도 리트리버	1	.1
	말라뮤트	2	.3
	말티즈	156	23.0
	미니어처 핀셔	13	1.9
	비글	8	1.2
	비숑 프리제	15	2.2
	슈나우저	6	.9
	스피츠	19	2.8
	시베리안 허스키	1	.1
	시츄	69	10.2
	요크셔테리어	32	4.7
	웰시코기	2	.3
	혼종(믹스견)	113	16.7
	진돗개	12	1.8
	치와와	19	2.8
	코커 스파니엘	2	.3
	퍼그	1	.1
	페키니즈	3	.4
	포메라니안	34	5.0
	푸들	114	16.8
	기타	26	3.8
전체		678	100.0

키우고 있는 개의 성별은 암컷이 352마리(52.9%), 수컷이 314마리(47.1%)였다. 키우고 있는 개의 동물등록현황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등록 401마리(60.3%), 미등록 264마리(39.7%)로 동물등록 비율이 더 높았다. 반려

견의 등록유형(다중응답)으로는 인식유형은 204마리(50.4%), 내장유형 201마리(49.6%)로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반려견의 중성화수술 유무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2%(353마리)가 중성화수술을 받았다.

<표 2-5> 반려견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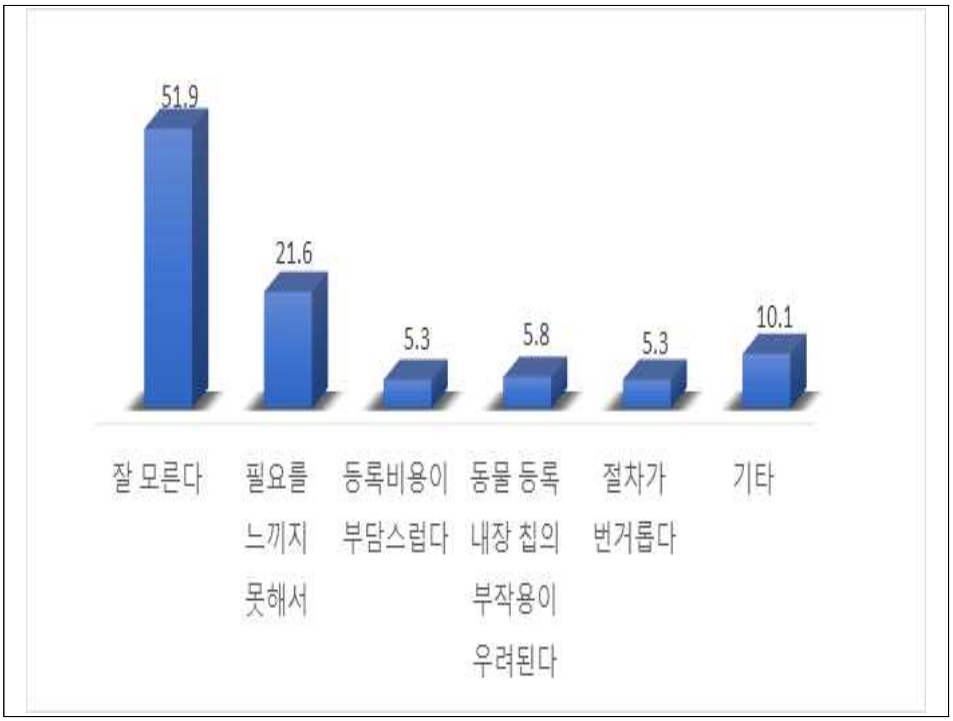
구분		N	%
반려견 성별	수컷	314	47.1
	암컷	352	52.9
전체		666	100.0
반려견 등록유무	등록	401	60.3
	미등록	264	39.7
전체		665	100.0
반려견 등록유형	내장	201	49.6
	인식	204	50.4
전체		405	100.0
반려견 중성화	유	353	53.2
	무	310	46.8
전체		663	100.0

<그림 2-4>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

반려견을 데리고 온 경로를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은 경우’가 281명(42.3%)으로 가장 많았으며, ‘애견분양가게에서 구입’도 134명(20.2%)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친척/친구/지인에게서 구입’이 46명(6.9%), ‘유기견 구조’가 39명(5.9%), ‘키우고 있던 개가 낳은 경우’가 37명(5.6%), ‘개인 애견분양업자에게 구입’이 31명(4.7%),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긴 경우’가 29명(4.4%), ‘기타’ 24명(3.6%), ‘애견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이 18명(2.7%),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이 18명(2.7%), ‘개인 구조자에게 입양’한 경우가 7명(1.1%) 비율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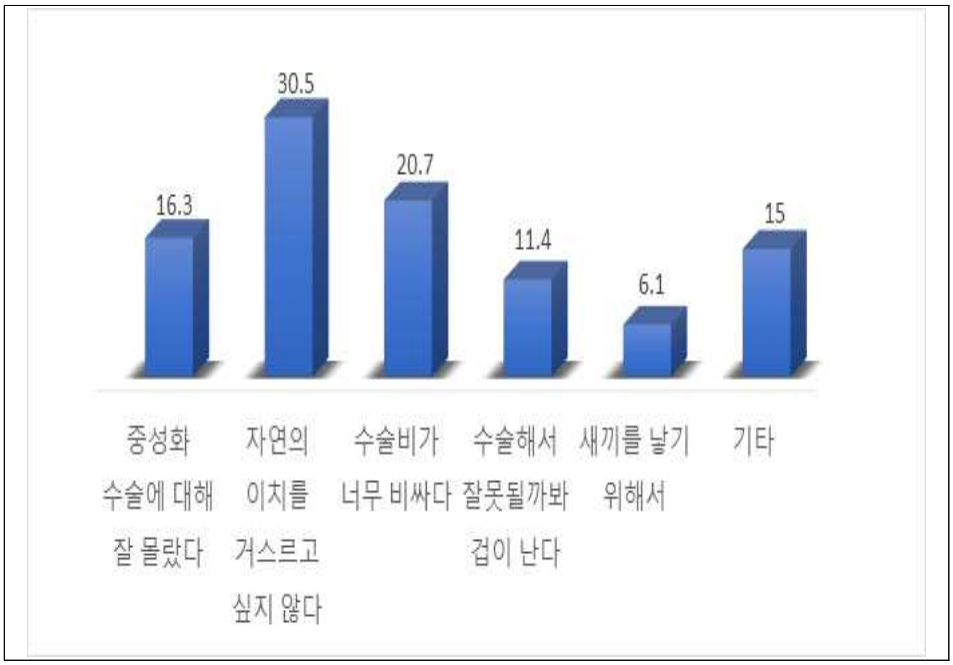
〈표 2-6〉 반려견 데리고 온 장소

구분		N	%
반려견 데리고 온 장소	애견분양 가게에서 구입	134	20.2
	개인 애견분양 업자에게 구입	31	4.7
	애견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	18	2.7
반려견 데리고 온 장소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	18	2.7
	개인 구조자에게 입양	7	1.1
	키우고 있던 개가 낳음	37	5.6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음	281	42.3
	친척/친구/지인에게서 구입	46	6.9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김	29	4.4
	유기견을 구조함	39	5.9
	기타	24	3.6
전체		664	100.0



<그림 2-5> 반려견을 동물등록 하지 않은 이유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잘 모른다'가 108명(51.9%)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는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45명(21.6%), '기타' 21명(10.1%), '동물등록 내장칩의 부작용 우려' 12명(5.8%), '등록비용 부담' 11명(5.3%), '번거로운 절차' 11명(5.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반려견을 중성화 수술 하지 않은 이유

반려견 중성화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한 결과,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고 싶지 않다'가 75명(30.5%)으로 가장 큰 이유였으며, 비싼 수술비도 51명(20.7%)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이어서는 중성화수술에 대해 잘 모른다 40명(16.3%), '기타' 37명(15.0%),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난다' 28명(11.4%), '새끼를 낳기 위해서' 15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 중 기타사유로는 '불쌍해서', '강아지의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어리거나 노령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다른 개와 접촉할 일이 없다' 등이 있었다.

<표 2-7> 반려견을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이유

구분		N	%
반려견 등록 안 한 이유	잘 모른다	108	51.9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45	21.6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	11	5.3
	동물 등록 내장칩의 부작용 우려	12	5.8
	절차가 번거롭다	11	5.3
	기타	21	10.1
	전체	208	100.0
반려견 중성화 수술 하지 않은 이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40	16.3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75	30.5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51	20.7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28	11.4
	새끼를 낳기 위해서	15	6.1
	기타	37	15.0
	전체	246	100.0

조사에 참여한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위해 매달 지출하는 총 금액의 평균은 138,437원이었으며, 50,000~100,000원 미만이 143명(28.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려견을 위한 월평균 지출 액수로는 사료비가 57,281원, 미용 및 관리용품이 37,180원, 의료비가 65,241원, 기타가 81,363원이었다. 반려견 양육을 위한 월평균 총지출을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자 108,465원, 차상위 134,871원, 독거노인 85,411원, 장애인은 122,846원이었다.

월평균 사료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00~50,000원 미만이 184명(36.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이어서는 50,000~100,000원 미만이 151명(29.8%), 100,000원 이상 114명(22.5%), 20,000원 미만 57명(11.3%)의 순이었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사료비 지출을 확인한 결과 수급세대 52,412원, 차상위세대 56,955원, 독거노인 31,647원,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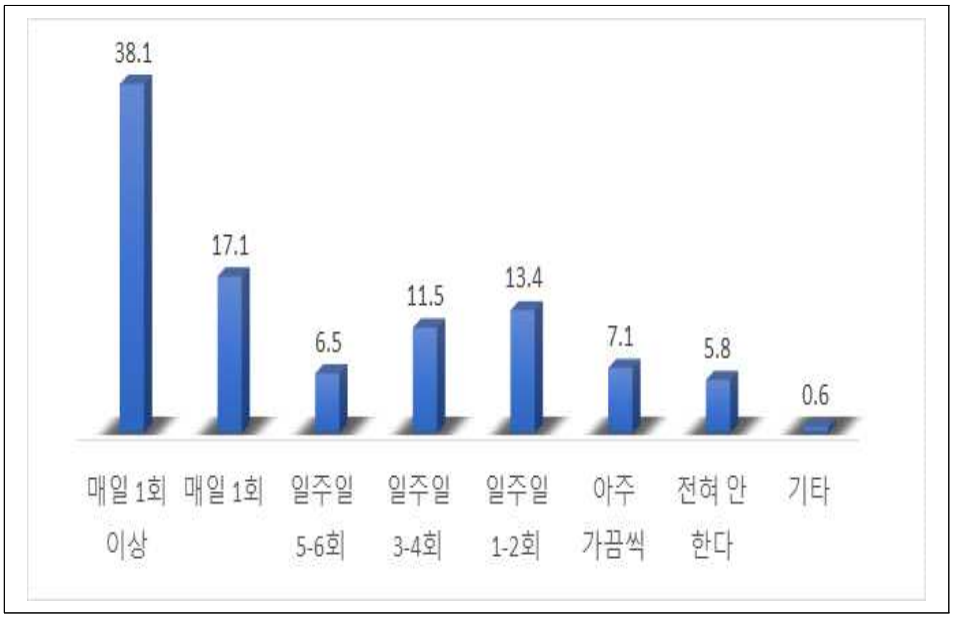
56,307원이었다. 또한 참여자의 27.5%인 139명이 사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반려견의 월평균 미용 및 관리용품비 지출금액의 경우 20,000~50,000원 미만이 181명(41.0%), 20,000원 미만이 119명(27.0%)으로 50,000원 이하가 68%를 차지했으며, 100,000원 이상 지출하는 반려인은 38명(8.6%)이었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수급세대 30,740원, 차상위 35,898원, 독거노인 25,230원, 장애인 29,750원이었다. 또한 조사 참여자의 중 104명(23.6%)이 미용 및 관리용품비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간별 월간 의료비 지출금액은 20,000~50,000원 미만이 133명(35.5%), 20,000원 미만이 97명(25.9%) 순으로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50,000 만 원 이하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00원 이상 지출하는 응답자는 71명(18.9%)이었다. 보호구분에 따른 결과로는 수급세대 42,496원, 차상위세대 60,714원, 독거노인 31,333원, 장애인 47,666원이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한 반려인은 136명(36.3%)이었다.

<표 2-8> 반려견 돌봄 비용 지출 현황

구분		N	%	평균
사료비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57	11.3	57,281
	20,000-50,000원 미만	184	36.4	
	50,000-100,000원 미만	151	29.8	
	100,000원 이상	114	22.5	
	전체	506	100.0	
사료비 지출감당 여부	감당할 수 있다	367	72.5	
	감당할 수 없다	139	27.5	
	전체	506	100.0	
미용 및 관리용품비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119	27.0	37,180
	20,000-50,000원 미만	181	41.0	
	50,000-100,000원 미만	103	23.4	
	100,000원 이상	38	8.6	
	전체	441	100.0	
미용 및 관리용품비 지출금액 감당 여부	감당할 수 있다	337	76.4	
	감당할 수 없다	104	23.6	
	전체	441	100	
의료비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97	25.9	65,241
	20,000-50,000원 미만	133	35.5	
	50,000-100,000원 미만	74	19.7	
	100,000원 이상	71	18.9	
	전체	375	100	
의료비 지출금액 감당 여부	감당할 수 있다	239	63.7	
	감당할 수 없다	136	36.3	
	전체	375	100.0	
기타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2	9.1	81,363
	20,000-50,000원 미만	5	36.4	
	50,000-100,000원 미만	4	27.3	
	100,000원 이상	4	27.3	
	전체	15	100.0	
기타 지출금액 감당여부	감당할 수 있다	11	73.3	
	감당할 수 없다	4	26.7	
	전체	15	100.0	
총지출금액구분	50,000원 미만	91	17.8	138,437
	50,000-100,000원 미만	143	28.0	
	100,000-150,000원 미만	109	21.3	
	150,000-200,000원 미만	63	12.3	
	200,000원 이상	105	20.5	
	전체	511	100.0	



<그림 2-7> 반려견 산책 빈도

전체 응답자의 45.2%는 반려견을 매일 1회 혹은 그 이상 산책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주일에 1~2회 산책은 72명(13.4%), 일주일 3~4회는 62명(11.5%), 일주일 5~6회는 35명(6.5%)이었다. '아주 가끔씩 산책한다' 고 응답한 반려인은 38명(7.1%)이었으며 31명(5.8%)은 전혀 산책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구분에 따른 반려견 산책 빈도는 '매일 1회 이상' 의 경우 수급세대(38.9%), 차상위세대(39.2%), 독거노인(37.4%), 장애인(37.0%), 매일 1회의 경우 수급세대(19.9%), 차상위세대(15.7%), 독거노인(19.0%), 장애인(19.9%), 일주일 5~6회의 경우 수급세대(5.8%), 차상위세대(6.8%), 독거노인(7.0%), 장애인(5.5%), 일주일 3~4회의 경우 수급세대(6.6%), 차상위세대(9.5%), 독거노인(11.1%), 장애인(8.3%), '일주일 1~2회 산책' 의 경우 수급세대(14.6%), 차상위세대(16.2%), 독거노인(15.8%), 장애인(15.5%), '아주 가끔 산책' 하는 경우 수급세대(8.4%), 차상위세대(8.1%), 독거노인(7.6%), 장애인(6.6%), '산책을 전혀 안한다' 는 응답은 수급세대(6.2%), 차상위세대(5.4%), 독거노인(4.1%), 장애인(6.1%)로 나타나 평균과 차이가 없었

다. 반려견 산책을 자주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강아지 수가 많아서, 바빠서, 강아지가 힘들어해서, 자주 짖어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 등이었으며, 반려견 산책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로는 강아지가 밖에 나오지 않음, 노령, 건강이 좋지 않아서, 체중이 많이 나가서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2-9〉 반려견 산책 빈도

구분		N	%
반려견 산책빈도	매일 1회 이상	205	38.1
	매일 1회	92	17.1
	일주일 5-6회	35	6.5
	일주일 3-4회	62	11.5
	일주일 1-2회	72	13.4
	아주 가끔씩	38	7.1
	전혀 안 한다	31	5.8
	기타	3	.6
	전체	538	100.0

〈그림 2-8〉 반려견 1년 이내 동물병원 방문 이유

조사 참여자의 78.6%인 423명이 지난 1년간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간 경험이 있었다. 보호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수급세대(77.9%), 차상위세대(71.6%), 독거노인(72.5%), 장애인(80.1%)로 나타났다. 반려견의 동물병원 방문 이유(다중응답)로는 '예방접종'이 262명(31.3%), '질병치료'가 176명(21.0%)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서는 '미용 및 목욕' 141명(16.8%), '정기검진' 115명(13.7%), '약처방' 70명(8.4%), '사료구입' 36명(4.3%), '기타' 17명(2.0%), '상해치료' 15명(1.8%), '호텔링서비스' 5명(0.6%)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구분에 따른 동물병원 방문에 대한 이유는 '예방접종' 목적이 수급세대(62.9%), 차상위세대(62.3%), 독거노인(62.6%), 장애인(63.0%), '질병치료' 목적이 수급세대(19.1%), 차상위세대(15.1%), 독거노인(22.8%), 장애인(20.5%), '미용 및 목욕'이 수급세대(6.2%), 차상위세대(5.7%), 독거노인(7.3%), 장애인(6.2%), '정기검진'이 수급세대(6.2%), 차상위세대(11.3%), 독거노인(4.1%), 장애인(5.5%)이었으며 '약처방'을 위한 방문이 수급세대(1.1%), 차상위세대(1.9%), 독거노인(0.8%), 장애인(0.7%) 비율이었다.

<표 2-10> 반려견 동물병원 방문 여부와 방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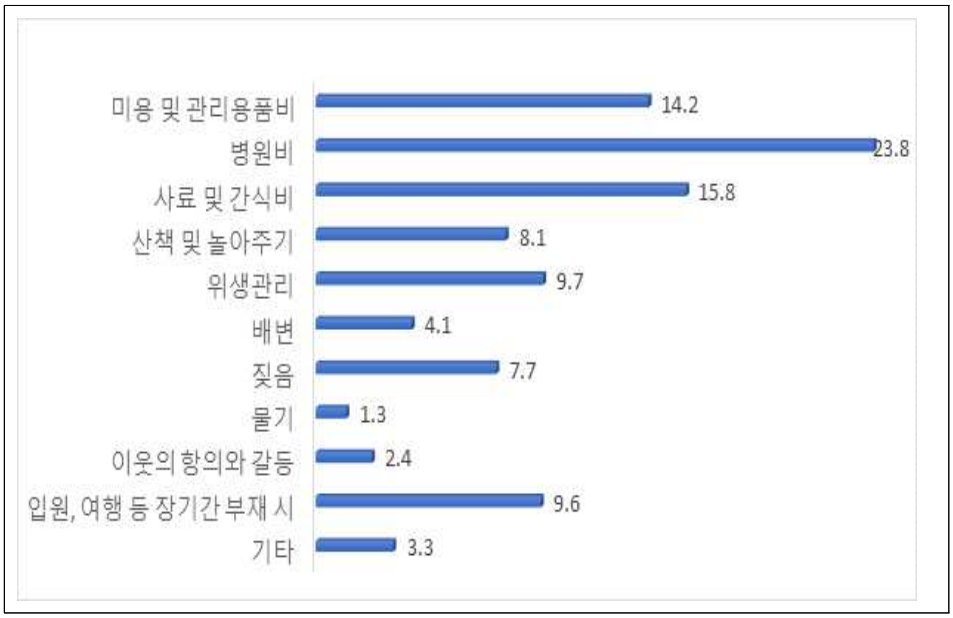
구분		N	%
1년 이내 동물병원 방문	있었다	423	78.6
	없었다	115	21.4
	전체	538	100.0
동물병원 방문 이유 (다중응답)	예방접종	262	31.3
	정기 검진	115	13.7
	질병 치료	176	21.0
	상해 치료	15	1.8
	미용 및 목욕	141	16.8
	사료 구입	36	4.3
	약 처방	70	8.4
	호텔링 서비스	5	0.6
	기타	17	2.0
전체		837	100.0

조사 참여자의 반려견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반려견 종합백신 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새끼 때 해 준다’ (233명, 43.3%)와 ‘1년에 한번 한다’ (226명, 42.0%)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뭔지 모른다’ (34명,6.3%), ‘안 해준다’ (32명, 5.9%), ‘기타’ (13명, 2.4%) 순이었다. 반려견 종합백신 접종여부를 조사참여자의 보호구분에 따라 비교해본 결과 ‘새끼 때 해준다’ 가 차상위세대(51.4%), 수급세대(46.0%), 독거노인(45.6%), 장애인(43.1%) 순이었고, ‘1년에 한번’ 은 독거노인(42.1%), 수급세대(36.7%), 차상위세대(36.6%), 장애인(36.5%), ‘뭔지 모른다’ 는 차상위세대(8.1%), 장애인(7.2%), 독거노인(5.8%), 수급세대(5.8%), ‘안 해준다’ 는 장애인(12.2%), 수급세대(7.5%), 차상위세대(4.1%), 독거노인(2.9%) 순 이었다.

광견병 접종은 ‘1년에 한번’ 이 270명(5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새끼 때 해준다’ (175명, 32.5%), ‘뭔지 모른다’ (32명, 5.9%), ‘기타’ (18명, 3.3%) 이었다. 코로나장염 접종은 ‘1년에 한번’ (189명, 35.1%), ‘새끼 때 해준다’ (185명, 34.4%), ‘뭔지 모른다’ (89명, 16.5%), ‘안 해준다’ (60명, 11.2%), ‘기타’ (15명, 2.8%)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켄넬코프 접종은 ‘새끼 때 해 준다’ 가 171명(31.8%)으로 가장 많았고, ‘뭔지 모른다’ 고 응답한 사람이 145(27.0%)명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려견 신종플루 접종은 ‘새끼 때 해준다’ 와 ‘1년에 한번’ 이 각각 156명(29.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뭔지 모른다’ (126명, 23.4%), ‘안 해준다’ (86명, 16.0%), ‘기타’ (14명, 2.6%)이었고, 반려견 심장사상충 접종은 ‘한 달에 한번’ (213명, 39.6%), ‘1년에 한번’ (153명, 28.4%), ‘안 해준다’ (76명, 14.1%), ‘뭔지 모른다’ (51명, 9.5%), ‘기타’ (45명, 8.4%) 순이었다.

<표 2-11> 반려견 예방접종 실태

구분		N	%
종합 백신	안 해준다	32	5.9
	새끼 때 해줌	233	43.3
	1년에 한 번	226	42.0
	뭔지 모른다	34	6.3
	기타	13	2.4
	전체	538	100.0
광견병	안 해준다	43	8.0
	새끼 때 해줌	175	32.5
	1년에 한 번	270	50.2
	뭔지 모른다	32	5.9
	기타	18	3.3
	전체	538	100.0
코로나 장염	안 해준다	60	11.2
	새끼 때 해줌	185	34.4
	1년에 한 번	189	35.1
	뭔지 모른다	89	16.5
	기타	15	2.8
	전체	538	100.0
켄넬코프	안 해준다	63	11.7
	새끼 때 해줌	171	31.8
	1년에 한 번	146	27.1
	뭔지 모른다	145	27.0
	기타	13	2.4
	전체	538	100.0
신종플루	안 해준다	86	16.0
	새끼 때 해줌	156	29.0
	1년에 한 번	156	29.0
	뭔지 모른다	126	23.4
	기타	14	2.6
	전체	538	100.0
심장 사상충	안 해준다	76	14.1
	한 달에 한 번	213	39.6
	1년에 한 번	153	28.4
	뭔지 모른다	51	9.5
	기타	45	8.4
	전체	538	100.0



<그림 2-9>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다중응답)

조사 참여자가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다중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병원비'(327명, 23.8%)였고, '사료 및 간식비'(217명, 15.8%), '미용 및 관리용품비'(195명, 14.2%), '위생관리'(134명, 9.7%),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132명, 9.6%), '산책 및 놀아주기'(112명, 8.1%), '짖음'(106명, 7.7%), '배변'(56명, 4.1%), '기타'(46명, 3.3%), '이웃의 항의와 갈등'(33명, 2.4%), '무는 행동'(18명, 1.3%)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을 보호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병원비'의 경우 수급세대(35.0%), 차상위세대(44.6%), 독거노인(31.0%), 장애인(36.5%), '사료 및 간식비'는 수급세대(13.7%), 차상위세대(23.0%), 장애인(18.7%), 독거노인(14.4%), '미용 및 관리용품비'는 수급세대(11.9%), 차상위세대(4.1%), 장애인(11.6%), 독거노인(31.0%), '위생관리'는 수급세대(8.4%), 차상위세대(4.1%), 장애인(10.5%), 독거노인(8.2%),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는 수급세대(4.0%) 차상위세대(4.1%), 장애인(7.2%), 독거노인(7.0%)으로 나타났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이웃의 항의와 갈등을 겪는 사유에 대한 응답을 보면, 냄새,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과의 갈등, 분리 불안, 편견, 자유롭게 풀어놓는 경우 등이었다. 이 외 기타 사유는 교육, 반려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관리가 힘들다, 분리불안, 죽을까봐 걱정, 집이 좁아 키우기 어려움, 털 관리의 어려움 등이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에 대한 1순위부터 3순위 응답을 보면 1순위는 '병원비'가 200명(37.2%)으로 가장 많았고 '사료 및 간식비'(66명, 12.3%), '미용 및 관리용품비'(50명, 9.3%),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47명, 8.7%), '위생관리'(44명, 8.2%), '산책 및 놀아주기'(36명, 6.7%), '기타'(35명, 6.5%), '짖음'(29명, 5.4%), '배변'(14명, 2.6%), '이웃의 항의와 갈등'(12명, 2.2%)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사료 및 간식비'(94명, 20.3%), '병원비'(82명, 17.7%), '미용 및 관리용품비'(66명, 14.3%), '짖음'(47명, 10.2%), '산책 및 놀아주기'(44명, 9.5%) 등의 순이었고, 3순위는 '미용 및 관리용품비'(79명, 21.0%), '사료비 및 간식비'(57명, 15.2%), '위생관리'(49명, 13.0%), '병원비'(45명, 12.0%),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44명, 11.7%)의 순으로 응답했다.

<표 2-12>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구분		N	%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다중의견)	미용 및 관리용품비	195	14.2
	병원비	327	23.8
	사료 및 간식비	217	15.8
	산책 및 놀아주기	112	8.1
	위생관리(목욕, 귀청소, 발톱깎기 등)	134	9.7
	배변	56	4.1
	짖음	106	7.7
	무는 행동	18	1.3
	이웃의 항의와 갈등	33	2.4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132	9.6
	기타	46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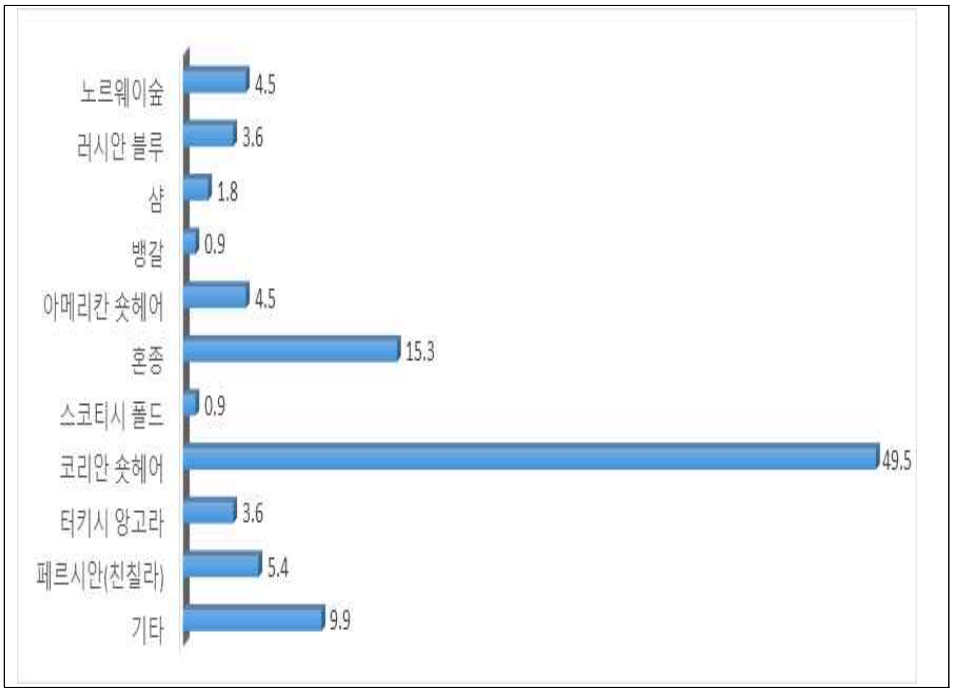
구분		N	%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1순위	미용 및 관리용품비	50	9.3
	병원비	200	37.2
	사료 및 간식비	66	12.3
	산책 및 놀아주기	36	6.7
	위생관리(목욕, 귀청소, 발톱깎기 등)	44	8.2
	배변	14	2.6
	짖음	29	5.4
	무는 행동	5	0.9
	이웃의 항의와 갈등	12	2.2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47	8.7
	기타	35	6.5
	전체	538	100.0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2순위	미용 및 관리용품비	66	14.3
	병원비	82	17.7
	사료 및 간식비	94	20.3
	산책 및 놀아주기	44	9.5
	위생관리(목욕, 귀청소, 발톱깎기 등)	41	8.9
	배변	27	5.8
	짖음	47	10.2
	무는 행동	4	0.9
	이웃의 항의와 갈등	9	1.9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41	8.9
	기타	7	1.5
	전체	462	100.0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3순위	미용 및 관리용품비	79	21.0
	병원비	45	12.0
	사료 및 간식비	57	15.2
	산책 및 놀아주기	32	8.5
	위생관리(목욕, 귀청소, 발톱깎기 등)	49	13.0
	배변	15	4.0
	짖음	30	8.0
	무는 행동	9	2.4
	이웃의 항의와 갈등	12	3.2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44	11.7
	기타	4	1.1
	전체	376	100.0
전체		1,376	100.0

4) 반려묘 양육 실태

조사 참여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묘 수의 평균은 1.66마리였고, 최대 8마리까지 키우고 있었다.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62.9%(44명)가 1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2마리는 17명(24.3%), 3마리 이상이 9명(12.9%)이었다. 키우고 있는 반려묘의 연령을 다중응답으로 확인한 결과 평균은 4.87살이었고, 최고 연령은 12살이었다. 반려묘의 연령대로는 2~7살 미만이 67마리(5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2살 미만이 24마리(21.1%), 7~10살 미만이 12마리(10.5%), 10살 이상이 11마리(9.6%)였다.

<표 2-13> 반려묘 수와 연령 현황

구분		N	%	최소값	최대값	평균
키우는 고양이 마리수 구분	1마리	44	62.9	1	8	1.66
	2마리	17	24.3			
	3마리 이상	9	12.9			
	전체	70	100.0			
고양이 연령	2살 미만	24	21.1	1.00	12.00	4.87
	2~7살 미만	67	58.8			
	7~10살 미만	12	10.5			
	10살 이상	11	9.6			
	전체	114	100.0			



<그림 2-10> 반려묘의 품종

조사 참여자가 키우고 있는 반려묘 품종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코리안 숏헤어가 55명(49.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혼종이 17명(15.3%), 기타 11명(9.9%), 페르시안(친칠라) 6명(5.4%), 노르웨이숲 5명(4.5%), 아메리칸 숏헤어 5명(4.5%), 러시안블루 4명(3.6%), 터키시앙고라 4명(3.6%), 샴 2명(1.8%), 뱅갈 1명(0.9%), 스코티시폴드 1명(0.9%)이었다.

반려묘 성별(다중응답)은 암컷 59명(51.8%), 수컷 55명(48.2%)으로 암컷이 약간 많았다.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등록 비율은 미등록 106명이 93.0%로 거의 대부분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다. 고양이를 동물등록 한 응답자의 등록 유형은 인식유형이 5명(62.5%), 내장유형이 3명(37.5%)이었다. 반려묘를 등록한 이유는 '불쌍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인으로써 책임감'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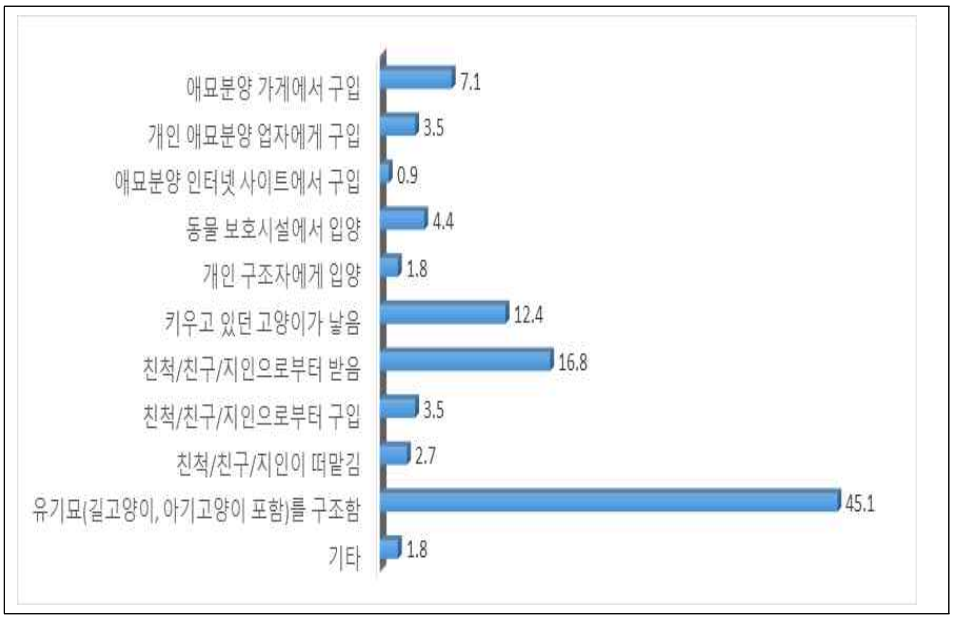
반려묘의 중성화수술에 대한 응답 결과, 응답자의 73.7%(84명)가 중성화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묘를 데리고 온 장소는 45.1%(51명)가 유

기묘를 구조한 경우였고,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김’ 19명(16.8%),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낳아서’ 14명(12.4%), ‘애묘분양가게에서 구입’ 8명(7.1%),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 5명(4.4%), ‘개인 애묘분양업자에게 구입’ 4명(3.5%), ‘친척/친구/지인으로부터 구입’ 4명(3.5%),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김’ 3명(2.7%), ‘개인구조자에게 입양’ 2명(1.8%), ‘기타’ 2명(1.8%), ‘애묘분양 인터넷사이트에서 구입’ 1명(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2-14> 반려묘의 특성

구분		N	%
고양이 품종	노르웨이숲	5	4.5
	러시안 블루	4	3.6
	샴	2	1.8
	뱅갈	1	.9
	아메리칸 숏헤어	5	4.5
	혼종	17	15.3
	스코티시 폴드	1	.9
	코리안 숏헤어	55	49.5
	터키시 앙고라	4	3.6
	페르시안(친칠라)	6	5.4
	기타	11	9.9
전체		111	100.0
고양이 성별	수컷	55	48.2
	암컷	59	51.8
전체		114	100.0
고양이 등록유무	등록	8	7.0
	미등록	106	93.0
전체		114	100.0
고양이 등록방법	내장	3	37.5
	인식	5	62.5
전체		8	100.0
고양이 중성화유무	유	84	73.7
	무	30	26.3
전체		114	100.0

구분		N	%
고양이 데리고 온 장소	애묘분양 가게에서 구입	8	7.1
	개인 애묘분양 업자에게 구입	4	3.5
	애묘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	1	0.9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	5	4.4
	개인 구조자에게 입양	2	1.8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낳음	14	12.4
	친척/친구/지인으로부터 받음	19	16.8
	친척/친구/지인으로부터 구입	4	3.5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김	3	2.7
	유기묘(길고양이, 아기고양이 포함)를 구조함	51	45.1
	기타	2	1.8
전체		113	100.0



<그림 2-11> 반려묘를 데리고 온 장소

반려묘를 중성화 수술 하지 않은 이유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와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가 각각 4명(22.2%)이었고, ‘자연의 이치를 거스리고 싶지 않다’ 2명(11.1%),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1명(5.6%)이었다. ‘기타’ 7명(38.9%)의 응답은 수술 불가 판정, 시간이 없어서, 어려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등 이었다.

<표 2-15> 반려묘를 중성화 수술 하지 않은 이유

구분		N	%
반려묘 중성화 하지 않은 이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4	22.2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2	11.1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4	22.2
	수술해서 잘못 될까봐 겁이 난다	1	5.6
	기타	7	38.9
	전체	18	100.0

<그림 2-12> 반려묘를 중성화 수술 하지 않는 이유

조사 참여자의 반려묘와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한 응답 결과, ‘하루 30분 이상’이 49명(70.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하루 30분미만’이 9명(12.9%), ‘하루 20분미만’이 6명(8.6%), ‘놀아주지 않는다’가 4명(5.7%), ‘하루 10분미만’은 1명(1.4%), ‘기타’는 1명(1.4%)이었다. 이들 응답 중 ‘놀아주지 않는다’에 대한 이유는 ‘스스로 잘 논다’거나 ‘반려인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6> 반려묘와 함께하는 시간

구분		N	%
반려묘와 함께 하는 시간	하루 30분 이상	49	70.0
	하루 30분 미만	9	12.9
	하루 20분 미만	6	8.6
	하루 10분 미만	1	1.4
	놀아주지 않는다	4	5.7
	기타	1	1.4
	전체	70	100.0

<그림 2-13> 반려묘와 함께하는 시간

반려묘를 위한 총 지출 금액에 대한 응답 결과, 평균 124,346원이었고, ‘50,000~100,000원 미만’ 이 20명(29.0%), ‘50,000원 미만’ 이 19명(27.5%), ‘200,000원 이상’ 은 12명(17.4%), ‘100,000~150,000원 미만’ 이 10명(14.5%), ‘150,000~200,000원 미만’ 은 8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 구분에 따른 분석결과 반려묘 돌봄 지출 평균비용이 많은 높은 경우가 장애인으로 122,846원이었고, 그 뒤로는 수급세대(109,666원), 차상위세대(91,390원), 독거노인(85,411원)순이었다.

반려묘 지출 비용에 대한 세부 항목 평균 금액은 의료비가 56,526원, 사료비 및 간식비가 52,795원, 미용 및 관리용품비는 28,327원, 놀이용품은 16,862원 이었다.

의료비지출 비용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000원 미만’ 과 ‘20,000 ~ 50,000원’ 미만 모두 13명(3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00,000원 이상’ 이 7명(18.4%), ‘50,000~100,000원 미만’ 이 5명(13.2%)이었다. 보호 구분에 따른 의료비지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장애인이 47,666원이었고, 차상위세대는 49,428원, 수급세대는 40,750원, 독거노인은 31,333원이었다. 응답자의 24명(63.2%)만이 반려묘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다’ 고 답했다.

사료비 및 간식비 지출 금액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20,000~50,000원 미만’ 이 25명(36.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50,000~100,000원 미만’ 이 18명(26.1%), ‘100,000원 이상’ 은 16명(23.2%), ‘20,000원 미만’ 은 10명(14.5%) 순 이었다. 보호구분에 따른 사료비 및 간식비 평균 지출 금액은 장애인이 56,307원으로 가장 많았고, 차상위세대는 55,090원, 수급세대는 37,055원, 독거노인은 31,647원이었다. 응답자의 81.2%(56명) 반려묘의 사료비와 간식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용 및 관리용품비 지출 금액 세부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 ‘20,000원 미만’ 이 26명(47.3%)으로 가장 높았고, ‘20,000~50,000원 미만’ 이 17명(30.9%), ‘50,000 ~100,000원 미만’ 8명(14.5%), ‘100,000원 이상’ 4명(7.3%)이었다. 보호구분에 따른 미용 및 관리용품비 평균 지출 금액은 장애

인이 29,750원, 독거노인이 25,230원, 수급세대가 24,466원, 차상위세대가 20,000원이었다. 반려묘의 미용 및 관리용품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5명(81.8)이었다.

놀이용품 지출 금액 세부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 ‘20,000원 미만’이 34명(6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20,000~50,000원 미만’ 13명(25.5%), ‘50,000~100,000원 미만’ 3명(5.9%), ‘100,000원 이상’ 1명(2.0%)이었다. 보호 구분에 따른 놀이용품비 평균지출 금액은 장애인 24,666원, 독거노인 세대 22,538원, 수급세대 19,454원, 차상위세대 12,285원이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92.2%(47명)가 반려묘의 놀이용품비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다.

<표 2-17> 반려묘 지출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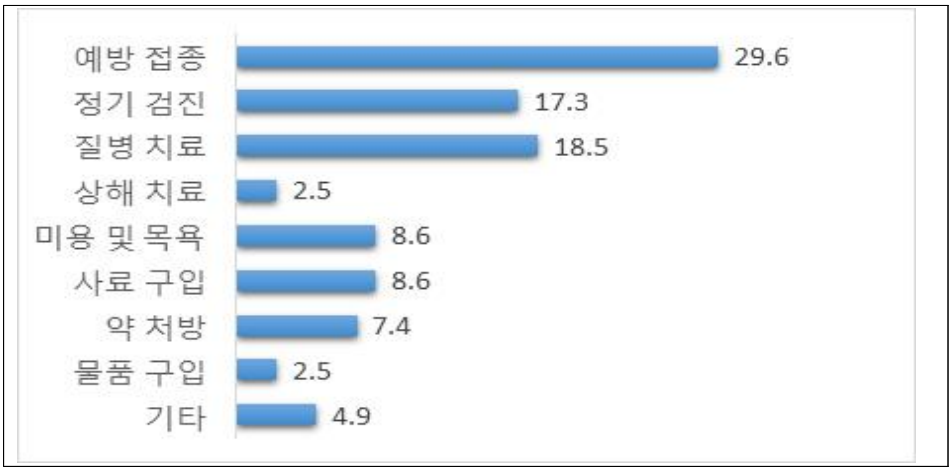
구분		N	%	평균
사료비 및 간식비지출 금액구분	20,000원 미만	10	14.5	52,795
	20,000-50,000원 미만	25	36.2	
	50,000-100,000원 미만	18	26.1	
	100,000원 이상	16	23.2	
사료비 및 간식비지출 감당유무	전체	69	100.0	
	감당할 수 있다	56	81.2	
	감당하기 어렵다	13	18.8	
	전체	69	100.0	
미용 및 관리용품비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26	47.3	28,327
	20,000-50,000원 미만	17	30.9	
	50,000-100,000원 미만	8	14.5	
	100,000원 이상	4	7.3	
	전체	55	100.0	
미용 및 관리용품비 지출 감당유무	감당할 수 있다	45	81.8	
	감당하기 어렵다	10	18.2	
	전체	55	100.0	

구분		N	%	평균
놀이용품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34	66.7	16,862
	20,000-50,000원 미만	13	25.5	
	50,000-100,000원 미만	3	5.9	
	100,000원 이상	1	2.0	
	전체	51	100.0	
놀이용품지출금액 감당유무	감당할 수 있다	47	92.2	
	감당하기 어렵다	4	7.8	
	전체	51	100.0	
의료비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13	34.2	56,526
	20,000-50,000원 미만	13	34.2	
	50,000-100,000원 미만	5	13.2	
	100,000원 이상	7	18.4	
	전체	38	100.0	
의료비 지출금액 감당유무	감당할 수 있다	24	63.2	
	감당하기 어렵다	14	36.8	
	전체	38	100.0	
기타 지출금액 구분	20,000원 미만	2	33.3	61,833
	20,000-50,000원 미만	3	50.0	
	100,000원 이상	1	16.7	
	전체	6	100.0	
기타지출 금액 감당유무	감당할 수 있다	4	80.0	
	감당하기 어렵다	1	20.0	
	전체	5	100.0	
총지출 금액구분	50,000원 미만	19	27.5	124,346
	50,000-100,000원 미만	20	29.0	
	100,000-150,000원 미만	10	14.5	
	150,000-200,000원 미만	8	11.6	
	200,000원 이상	12	17.4	
	전체	69	100.0	

반려묘의 동물병원 방문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9%(44명)가 지난 1년 사이에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장애인(61.5%)과 차상위세대(50.0%)는 절반 이상이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수급세대는 42.1%, 독거노인은 33.0%였다.

<표 2-18> 반려묘 동물병원 방문 여부와 방문 이유

구분		N	%
반려묘 동물병원 경험	있었다	44	62.9
	없었다	26	37.1
	전체	70	100.0
반려묘 동물병원 방문 이유	예방 접종	24	29.6
	정기 검진	14	17.3
	질병 치료	15	18.5
	상해 치료	2	2.5
	미용 및 목욕	7	8.6
	사료 구입	7	8.6
	약 처방	6	7.4
	물품 구입	2	2.5
	기타	4	4.9
전체		81	100.0



<그림 2-14> 반려묘 동물병원 방문 이유

반려묘를 동물병원에 데려간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예방접종이 24명(29.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질병치료가 15명(18.5%), 정기검진 14명(17.3%), 미용 및 목욕 7명(8.6%), 사료구입 7명(8.6%), 약처방 6명(7.4%), 기타 4명(4.9%), 상해치료 2명(2.5%), 물품구입 2명(2.5%)이었으며, 기타 사유로는 중성화수술 등이었다. 반려묘 질병 치료에 대한 사유는 감기, 구내염, 귀염증, 기관지염, 방광염, 알레르기, 치아염증 등이 있었다.

반려묘 예방 접종 관련하여 종합백신 접종에 대한 응답 결과, ‘새끼 때 해 준다’가 32명(4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1년에 한번’ 21명(30.0%), ‘안 해준다’ 11명(15.7%), ‘뭔지 모른다’ 5명(7.1%), ‘기타’ 1명(1.4%)이었다. 광견병 접종은 ‘새끼 때 해준다’ 25명(35.7%), 1년에 한 번’ 9명(12.9%)이었고, 이외에는 안 해주거나(22명, 31.4%), 뭔지 모르는 경우(12명, 17.1%)였다. 복막염 접종 비율은 ‘안 해준다’가 26명(37.1%)으로 예방 접종 중 접종을 안 해주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범백 접종비율은 ‘새끼 때 해 준다’ 27명(38.6%)이었고, ‘안 해준다’ 21명(30.0%), ‘뭔지 모른다’ 16명(22.9%), ‘1년에 한 번’ 5명(7.1%), ‘기타’ 1명(1.4%)의 비율 순이었다.

<표 2-19> 반려묘 예방접종 실태

구분		N	%
종합 백신	안 해준다	11	15.7
	새끼 때 해줌	32	45.7
	1년에 한 번	21	30.0
	뭔지 모른다	5	7.1
	기타	1	1.4
	전체	70	100.0
광견병	안 해준다	22	31.4
	새끼 때 해줌	25	35.7
	1년에 한 번	9	12.9
	뭔지 모른다	12	17.1
	기타	2	2.9
	전체	70	100.0
복막염	안 해준다	26	37.1
	새끼 때 해줌	24	34.3
	1년에 한 번	4	5.7
	뭔지 모른다	15	21.4
	기타	1	1.4
	전체	70	100.0
범백	안 해준다	21	30.0
	새끼 때 해줌	27	38.6
	1년에 한 번	5	7.1
	뭔지 모른다	16	22.9
	기타	1	1.4
	전체	70	100.0

<그림 2-15>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움 (다중응답)

조사 참여자들이 반려묘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위생관리’가 40명(22.7%), ‘병원비’ 36명(20.5%), ‘사료 및 간식비’ 26명(14.8%),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시’ 23명(13.1%), ‘기타’ 12명(6.8%), ‘놀아주기’ 12명(6.8%), ‘미용 및 관리용품비’ 10명(5.7%), ‘소변스프레이’ 6명(3.4%), ‘발정음’ 4명(2.3%), ‘이웃의 항의와 갈등’ 4명(2.3%), ‘난폭행동’ 3명(1.7%)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병원이나 밖에 나가기 힘들다’, ‘반려인의 장애로 관리가 어렵다’, ‘어려운 점이 없다’ 등이었다.

반려묘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한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 결과, 1순위는 ‘위생관리’ 22명(31.4%), ‘병원비’ 19명(27.1%), ‘기타’ 10명(14.3%),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7명(10.0%), ‘소변스프레이’ 2명(2.9%) 순이었고, 2순위는 ‘사료 및 간식비’ 13명(22.4%), ‘위생관리’와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둘 다 12명(20.7%), ‘병원비’ 8명(13.8%), ‘이웃의 항의와 갈등’ 4명(6.9%)순 이었으며, 3순위는 ‘병원비’ 9명(18.8%), ‘놀아주기’ 8명(16.7%), ‘미용 및 관리용품비’ 7명(14.6%), ‘위생관리’ 6명(12.5%), ‘사료 및 간식비’ 5명(10.4%) 순 이었다.

<표 2-20>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운 점

구분		N	%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운 점 (다중이유)	미용 및 관리용품비	10	5.7
	병원비	36	20.5
	사료 및 간식비	26	14.8
	위생관리(털 빠짐 관리 등)	40	22.7
	놀아 주기	12	6.8
	소변 스프레이	6	3.4
	발정음	4	2.3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23	13.1
	난폭행동	3	1.7
	이웃의 항의와 갈등	4	2.3
	기타	12	6.8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운 점 1순위	미용 및 관리용품비	1	1.4
	병원비	19	27.1
	사료 및 간식비	8	11.4
	위생관리(털 빠짐 관리 등)	22	31.4
	놀아 주기	1	1.4
	소변 스프레이	2	2.9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7	10.0
	기타	10	14.3
	전체	70	100.0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운 점 2순위	미용 및 관리용품비	2	3.4
	병원비	8	13.8
	사료 및 간식비	13	22.4
	위생관리(털 빠짐 관리 등)	12	20.7
	놀아 주기	3	5.2
	발정음	2	3.4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12	20.7
	난폭행동	1	1.7
	이웃의 항의와 갈등	4	6.9
	기타	1	1.7
	전체	58	100.0

구분		N	%
반려묘 키우면서 어려운 점 3순위	미용 및 관리용품비	7	14.6
	병원비	9	18.8
	사료 및 간식비	5	10.4
	위생관리(털 빠짐 관리 등)	6	12.5
	놀아 주기	8	16.7
	소변 스프레이	4	8.3
	발정음	2	4.2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4	8.3
	난폭행동	2	4.2
	기타	1	2.1
	전체	48	100.0
전체		176	100.0

반려묘를 키우면서 어려워하는 세부 사항을 보호구분에 따라 분석한 결과, ‘위생관리’는 차상위세대(40.0%), 수급세대(26.3%), 독거노인(22.2%), 장애인(15.4%) 순 이었고, ‘병원비’는 독거노인(27.8%), 수급세대(26.3%), 장애인(23.1%), 차상위세대(10.0%)순 이었으며 ‘사료 및 간식비’는 차상위세대(30.0%), 독거노인(22.2%), 수급세대(15.8%), 장애인(7.7%),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는 장애인(15.4%), 독거노인(11.1%), 수급세대(10.5%), 차상위세대(0.0%) 순으로 나타났다.

5) 반려동물 관련 정보 취득 경로

조사 참여자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친구 및 동료 등 지인’이 342명(22.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TV프로그램’ 300명(19.9%), ‘동물병원’ 268명(17.8%), ‘인터넷 및 SNS 등’ 253명(16.8%), ‘가족’ 186명(12.3%), ‘복지관과 구청 및 동물단체 등’42명(2.8%)순 이었다. ‘기타’응답에는 ‘강아지 카페’, ‘산책 시 주민에게’, ‘신문’, ‘애견 샵’, ‘특별히 필요한 정보가 없다’ 등이었다.

보호구분에 따른 반려동물 정보 취득경로는 ‘친구 및 동료 등 지인’을 통한 정보습득이 차상위세대(38.1%), 독거노인(26.1%), 수급세대(24.8%), 장

애인(23.2%) 순이었으며 ‘TV프로그램’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는 수급세대(20.2%), 독거노인(18.6%), 장애인(17.5%), 차상위세대(15.5%)순, ‘동물병원’은 수급세대(17.8%), 독거노인(17.0%), 장애인(16.5%), 차상위세대(13.1%), ‘인터넷 및 SNS’는 장애인(21.1%), 수급세대(14.5%), 차상위세대(11.9%), 독거노인(5.3%), ‘가족’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는 독거노인(25.5%), 차상위세대(15.5%), 장애인(16.5%), 수급세대(14.9%), ‘복지관과 구청 및 동물단체’는 독거노인(0.5%), 장애인(0.5%), 수급세대(0.4%), 차상위세대(0.0%),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수급세대(0.4%), 차상위세대(0.0%), 독거노인(0.0%), 장애인(0.0%), ‘동호회’의 경우 수급세대(1.2%), 차상위세대(1.2%), 독거노인(1.1%), 장애인(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관련 정보파악 경로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확인한 결과, ‘친구 및 동료 등 지인’ 145명(24.0%), ‘인터넷 및 SNS 등’ 136명(22.5%), ‘가족’ 106명(17.5%), ‘동물병원’ 96명(15.9%), ‘TV프로그램’ 88명(14.6%) 순 이었고, 2순위는 ‘친구 및 동료 등 지인’ 139명(27.4%), ‘TV프로그램’ 105명(20.7%), ‘동물병원’ 89명(17.5%), ‘인터넷 및 SNS 등’ 74명(14.6%), ‘가족’ 47명(9.3%) 순이었으며, 3순위는 ‘TV프로그램’ 107명(27.1%), ‘동물병원’ 83명(21.0%), ‘친구 및 동료 등 지인’ 58명(14.7%), ‘인터넷 및 SNS 등’ 43명(10.9%), ‘가족’ 33명(8.4%)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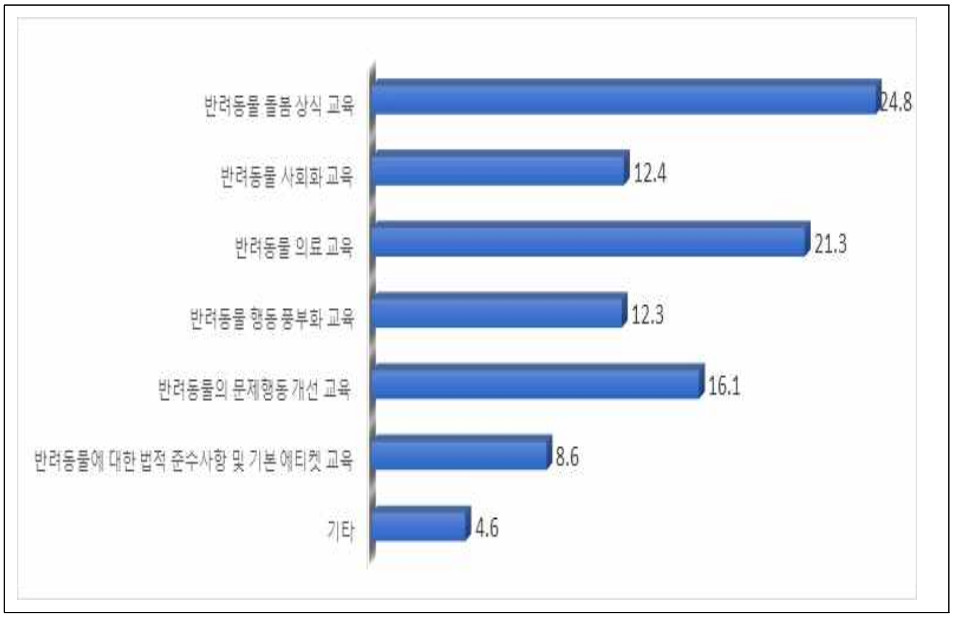
<그림 2-16> 반려동물 관련 정보 취득 경로 (다중응답)

<표 2-21> 반려동물 관련 정보 취득 경로

구분		N	%
반려동물 정보 취득 경로 (다중이유)	가족	186	12.3
	친구, 동료 등 지인	342	22.7
	인터넷(카페, 블로그) 및 SNS 등	253	16.8
	동호회	27	1.8
	동물병원	268	17.8
	분양센터	8	.5
	TV 프로그램	300	19.9
	책	16	1.1
	반려동물 관련 어플리케이션(앱)	31	2.1
	복지관, 구청 및 동물단체 등	42	2.8
	기타	34	2.3
반려동물 정보 취득 경로 1순위	가족	106	17.5
	친구, 동료 등 지인	145	24.0
	인터넷(카페, 블로그) 및 SNS 등	136	22.5
	동호회	5	.8
	동물병원	96	15.9
	분양센터	2	.3
	TV 프로그램	88	14.6
	책	3	.5
	반려동물 관련 어플리케이션(앱)	3	.5
	복지관, 구청 및 동물단체 등	1	.2
	기타	19	3.1
	전체	604	100.0
반려동물 정보 취득 경로 2순위	가족	47	9.3
	친구, 동료 등 지인	139	27.4
	인터넷(카페, 블로그) 및 SNS 등	74	14.6
	동호회	15	3.0
	동물병원	89	17.5
	분양센터	5	1.0
	TV 프로그램	105	20.7
	책	3	.6
	반려동물 관련 어플리케이션(앱)	12	2.4
	복지관, 구청 및 동물단체 등	11	2.2
	기타	8	1.6
	전체	508	100.0

구분		N	%
반려동물 정보 취득 경로 3순위	가족	33	8.4
	친구, 동료 등 지인	58	14.7
	인터넷(카페, 블로그) 및 SNS 등	43	10.9
	동호회	7	1.8
	동물병원	83	21.0
	분양센터	1	.3
	TV 프로그램	107	27.1
	책	10	2.5
	반려동물 관련 어플리케이션(앱)	16	4.1
	복지관, 구청 및 동물단체 등	30	7.6
	기타	7	1.8
	전체	395	100.0
전체		1,507	100.0

6)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및 지원



<그림 2-17>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다중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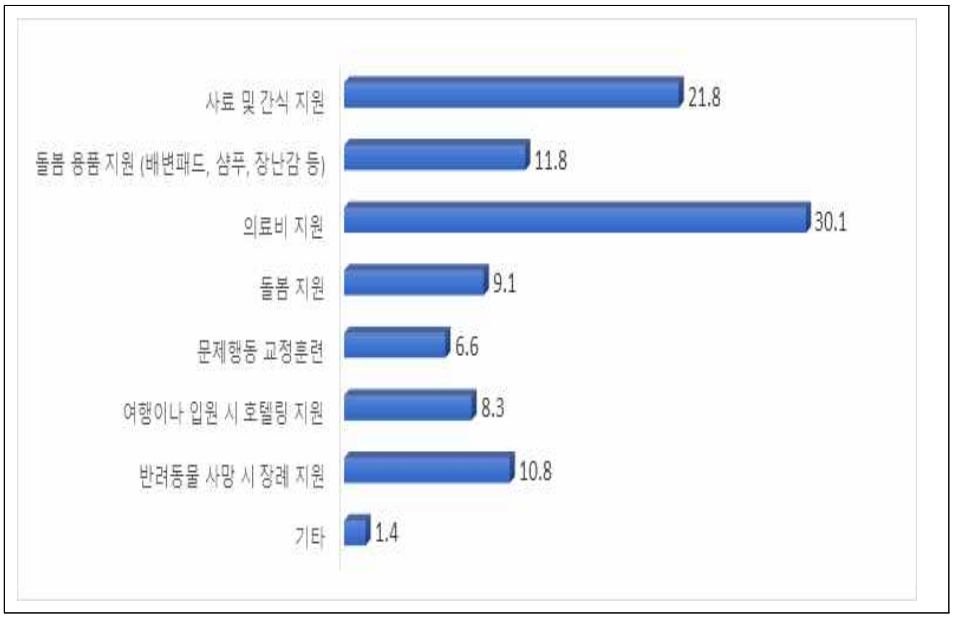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주제에 대한 질문의 다중응답 결과, ‘돌봄 상식 교육’ 366명(24.8%)이 가장 높았고, ‘의료 교육’ 313명(21.3%), ‘문제행동 개선교육’ 237명(16.1%), ‘사회화 교육’ 182명(12.4%), ‘행동 풍부화 교육’ 180명(12.3%), ‘법적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126명(8.6%)이었다. 이 외 기타(67명, 4.6%) 응답에는 조직화교육, 교육 받고 싶지 않음, 잘 모르겠음, 미용법, 응급처치교육, 병원진료 내용 등이었다. 보호구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돌봄 상식 교육’은 독거노인(31.4%), 차상위세대(31.0%), 수급세대(26.4%), 장애인(26.3%), ‘의료 교육’은 장애인(21.1%), 수급세대(19.4%), 독거노인(18.1%), 차상위세대(16.7%), ‘문제행동 개선 교육’은 장애인(19.1%), 차상위세대(17.9%), 독거노인(17.6%), 수급세대(16.5%), ‘사회화 교육’은 차상위세대(11.9%), 수급세대(10.7%), 장애인(9.8%),독거노인(4.8%), ‘행동풍부화 교육’은 수급세대(10.3%), 장애인(8.8%), 독거노인(5.9%), 차상위세대(3.6%), ‘법적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은 차상위세대(6.0%), 독거노인(6.4%), 수급세대(3.3%), 장애인(2.6%) 순 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 결과, ‘돌봄 상식 교육’ 185명(30.6%), ‘의료 교육’ 121명(20.0%), ‘문제행동 개선 교육’ 108명(17.9%), ‘사회화 교육’ 63명(10.4%)순 이었고, 2순위는 ‘의료 교육’ 116명(24.8%), ‘돌봄 상식 교육’ 93명(19.9%), ‘행동 풍부화 교육’ 81명(17.3%), ‘사회화 교육’ 79명(16.9%), ‘문제행동 개선 교육’ 58명(12.4%) 순이었으며, 3순위는 ‘돌봄 상식 교육’ 88명(22.0%), ‘의료 교육’ 76명(19.0%), ‘문제행동 개선 교육’ 71명(17.8%), ‘법적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64명(16.0%), ‘행동 풍부화 교육’ 50명(12.5%) 등의 순이었다.

<표 2-22>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구분		N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다중응답)	반려동물 돌봄 상식 교육 (먹으면 안 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366	24.8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6개월 미만 반려동물이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관계를 배우는 과정)	182	12.4
	반려동물 의료 교육 (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313	21.3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 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	180	12.3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237	16.1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126	8.6
	기타	67	4.6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1순위	반려동물 돌봄 상식 교육 (먹으면 안 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185	30.6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6개월 미만 반려동물이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관계를 배우는 과정)	63	10.4
	반려동물 의료 교육 (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121	20.0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 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	49	8.1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108	17.9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23	3.8
	기타	55	9.1
	전체	604	100.0

구분		N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교육 2순위	반려동물 돌봄 상식 교육 (먹으면 안 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93	19.9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6개월 미만 반려동물이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관계를 배우는 과정)	79	16.9
	반려동물 의료 교육 (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116	24.8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 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	81	17.3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58	12.4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39	8.4
	기타	1	.2
	전체	467	100.0
반려동물 관련 받고싶은 교육 3순위	반려동물 돌봄 상식 교육 (먹으면 안 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88	22.0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6개월 미만 반려동물이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관계를 배우는 과정)	40	10.0
	반려동물 의료 교육 (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76	19.0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 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	50	12.5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71	17.8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64	16.0
	기타	11	2.8
	전체	400	100.0
전체		1,471	100.0



<그림 2-18>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다중응답)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의 다중응답 결과는 '의료비 지원'이 486명(30.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사료 및 간식지원' 351명(21.8%), '돌봄 용품 지원' 190명(11.8%),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 174명(10.8%), '돌봄지원' 147명(9.1%),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134명(8.3%), '문제행동 교정훈련' 107명(8.6%), '기타' 23명(1.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보호구분에 따른 세부 분석결과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은 '의료비' 지원 욕구는 차상위세대(57.1%), 장애인(49.5%), 독거노인(39.9%), 수급세대(39.7%)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료 및 간식지원'의 경우 수급세대(37.2%), 독거노인(35.6%), 차상위세대(27.4%), 장애인(25.8%), '돌봄 용품 지원'은 장애인(4.6%), 수급세대(4.5%), 차상위세대(2.4%), 독거노인(1.6%),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 욕구는 독거노인(6.4%), 수급세대(5.0%), 차상위세대(2.4%), 장애인(2.6%), '돌봄지원'의 경우 장애인(6.7%), 독거노인(6.4%), 차상위세대(4.8%), 수급세대(4.1%), '여행이나 입원 시 호

텔링 지원’의 경우 장애인(5.2%), 독거노인(2.7%), 수급세대(2.5%), 차상위세대(0.0%), ‘문제행동 교정훈련’의 경우 수급세대(4.1%), 장애인(3.6%), 독거노인(2.7%), 차상위세대(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과 관련되어 받고 싶은 지원 중 <의료비> 부분의 세부내용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 ‘고가의료비’가 217명(35.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예방접종’ 151명(24.9%), ‘정기점진’ 112명(18.5%), ‘중성화수술’ 62명(10.2%), ‘처방약’ 48명(7.9%), ‘기타’ 17명(2.8%) 순 이었다. <돌봄지원>은 ‘미용’ 54명(42.9%), ‘산책’ 38명(30.2%), ‘목욕’ 26명(20.6%), ‘투약’ 5명(4.0%), ‘기타’ 3명(2.4%)이었으며 <문제행동 교정훈련>은 ‘개별교육’ 36명(60.0%), ‘그룹교육’ 24명(40.0%)이었다.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욕구의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 결과는 ‘의료비지원’ 303명(50.2%), ‘사료 및 간식 지원’ 165명(27.3%), ‘돌봄지원’ 32명(5.3%),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24명(4.0%) 등의 순이었고, 2순위는 ‘사료 및 간식 지원’ 129명(23.6%), ‘의료비 지원’ 120명(22.0%), ‘돌봄 용품 지원’ 75명(13.7%), ‘돌봄지원’ 58명(10.6%),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55명(10.1%), ‘문제행동 교정훈련’ 54명(9.9%)등 이었으며, 3순위는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 100명(21.6%), ‘돌봄 용품 지원’ 92명(19.9%), ‘의료비지원’ 63명(13.6%), ‘돌봄지원’ 57명(12.3%), ‘사료 및 간식지원’ 57명(12.3%),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55명(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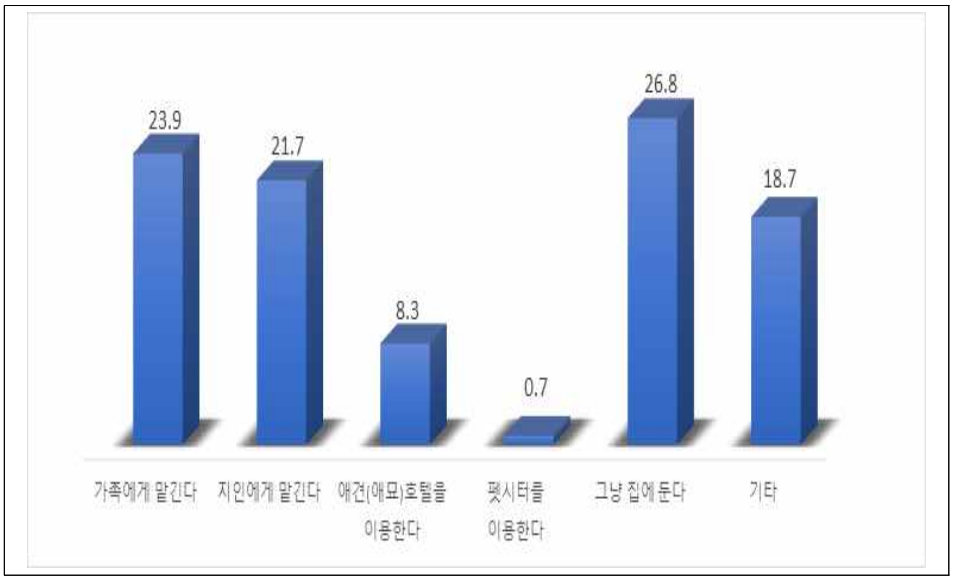
<표 2-23>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구분		N	%
받고 싶은 지원 (다중응답)	사료 및 간식 지원	351	21.8
	돌봄 용품 지원 (배변패드, 샴푸, 장난감 등)	190	11.8
	의료비 지원	486	30.1

구분		N	%
받고 싶은 지원 (다중응답)	돌봄지원	147	9.1
	문제행동교정훈련	107	6.6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134	8.3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174	10.8
	기타	23	1.4
전체		1612	100.0
의료비세부내용 (다중응답)	예방접종	151	24.9
	정기검진	112	18.5
	중성화 수술	62	10.2
	고가의료비	217	35.7
	처방약	48	7.9
	기타	17	2.8
전체		607	100.0
돌봄 세부내용 (다중응답)	산책	38	30.2
	목욕	26	20.6
	미용	54	42.9
	투약	5	4.0
	기타	3	2.4
전체		126	100.0
문제행동 세부내용 (다중응답)	그룹교육	24	40.0
	개별교육	36	60.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1순위	사료 및 간식 지원	165	27.3
	돌봄 용품 지원 (배변패드, 샴푸, 장난감 등)	23	3.8
	의료비 지원	303	50.2
	돌봄지원	32	5.3
	문제행동 교정훈련	22	3.6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24	4.0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24	4.0
	기타	11	1.8
	전체	604	100.0

구분		N	%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2순위	사료 및 간식 지원	129	23.6
	돌봄 용품 지원 (배변패드, 샴푸, 장난감 등)	75	13.7
	의료비 지원	120	22.0
	돌봄지원	58	10.6
	문제행동 교정훈련	54	9.9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55	10.1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50	9.2
	기타	5	.9
	전체	546	100.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 3순위	사료 및 간식 지원	57	12.3
	돌봄 용품 지원 (배변패드, 샴푸, 장난감 등)	92	19.9
	의료비 지원	63	13.6
	돌봄지원	57	12.3
	문제행동 교정훈련	31	6.7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55	11.9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100	21.6
	기타	7	1.5
	전체	462	100.0
전체		60	100.0

7)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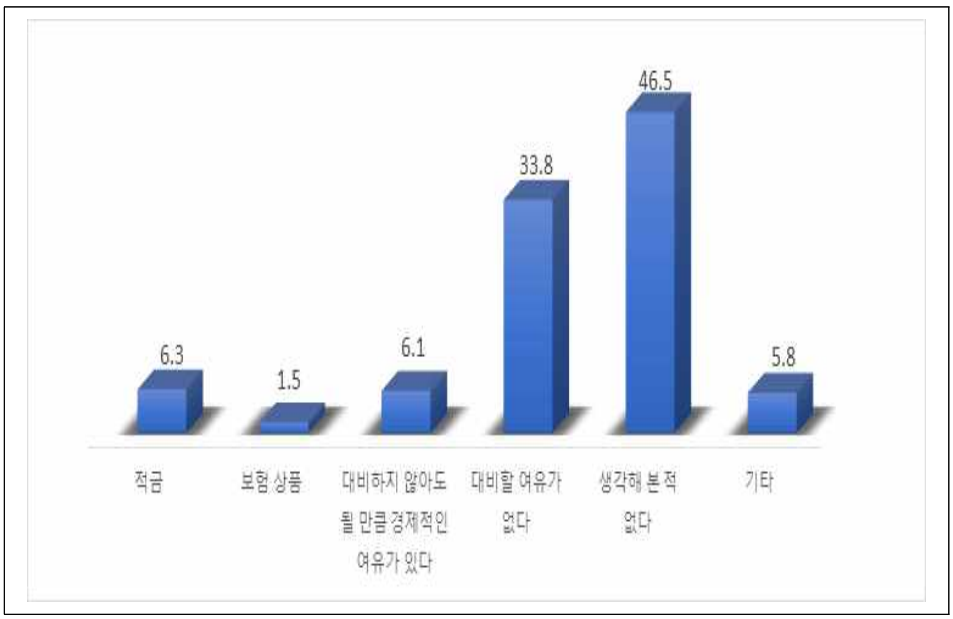
<그림 2-19>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 '그냥 집에 둔다'가 162명(26.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뒤로는 '가족에게 맡긴다' 144명(23.9%), '지인에게 맡긴다' 131명(21.7%), '기타' 113명(187%), '애견(애묘)호텔을 이용한다' 50명(8.3%), '펫시터를 이용한다' 4명(0.7%) 순 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멀리 안간다', '데려간다', '하루 정도는 그냥 집에 둔다' 등이 있었다. 보호구분에 따른 세부분석 결과, '그냥 집에 둔다'고 답한 응답자는 독거노인(34.0%), 차상위세대(32.1%), 수급세대(31.8%), 장애인(26.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에게 맡긴다'고 대답한 경우는 장애인(20.6%), 수급세대(19.4%), 차상위세대(19.0%), 독거노인(17.6%) 순이었다. 이외에도 '지인에게 맡긴다'는 경우는 차상위세대(28.6%), 장애인(23.7%), 독거노인(22.9%), 수급세대(15.7%), '애견(애묘)호텔을 이용'하는 사례는 수급세대(7.0%), 장애인(6.7%), 차상위세대(6.0%), 독거노인(4.8%)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4>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

구분		N	%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	가족에게 맡긴다	144	23.9
	지인에게 맡긴다	131	21.7
	애견(애묘) 호텔을 이용한다	50	8.3
	펫시터를 이용한다	4	.7
	그냥 집에 둔다	162	26.8
	기타	113	18.7
	전체	604	100.0

8) 반려동물의 노년 대비방법



<그림 2-20> 반려동물 노년 대비방법

반려동물의 노년기를 대비한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자의 46.5%에 해당하는 281명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했으며 204명(33.8%)이 ‘대비할 여유가 없다’고 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반려동물의 노년기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 분석한 결과 수급세대의 42.6%, 차상위세대의 39.3%, 독거노인의 47.3%, 장애인의 41.8%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했으며 수급자의 43.0%, 차상위세대의 46.4%, 독거노인의41.0%, 장애인의 37.6%가 ‘대비할 여유가 없다’고 답했다. 소수 답변으로는 ‘적금’이 38명(6.3%),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가 37명(6.1%), ‘기타’ 35명(5.8%), ‘보험 상품’ 9명(1.5%)이었다. 기타 응답에는 ‘늘 걱정이다’, ‘별도 예금 및 비상금 마련’, ‘생각은 있으나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 ‘가족 지원’, ‘구체적인 대안 없다’ 등의 의견이었다.

〈표 2-25〉 반려동물 노년 대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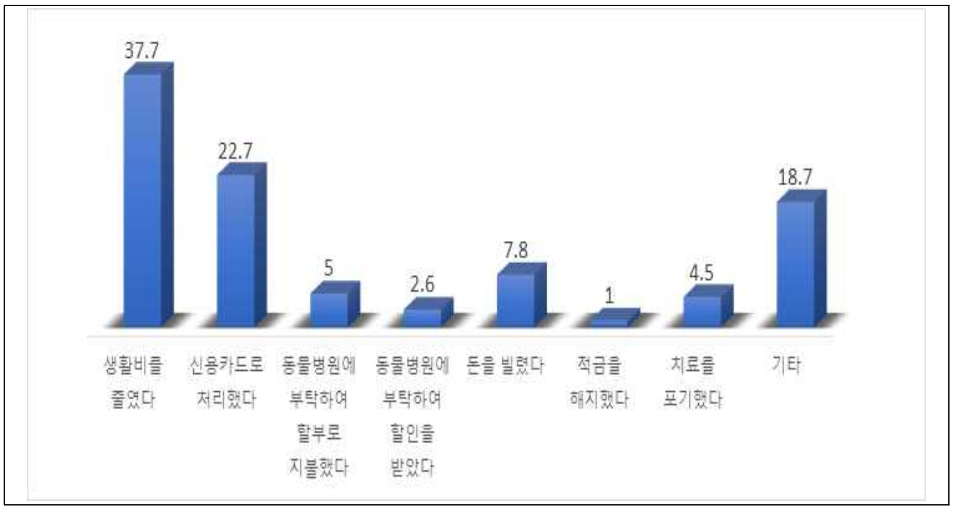
구분		N	%
반려동물 노년대비 방법	적금	38	6.3
	보험 상품	9	1.5
	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37	6.1
	대비할 여유가 없다	204	33.8
	생각해 본 적 없다	281	46.5
	기타	35	5.8
	전체	604	100.0

9)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방법

조사 참여자의 37.7%인 228명이 반려동물 양육에 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였다'고 답했다. 이외에는 '신용카드로 처리(137명, 22.7%)' 했거나 '할부로 지불(30명, 5.0%)' 했으며, '돈을 빌렸던' 경우도 47명(7.8%)으로 나타났다. 치료를 포기했던 경우도 4.5%(27명)에 이르렀다. 기타 응답으로는 '가족에게 요청', '어려웠던 경험이 없었다', '병원을 안 간다' 등의 의견이었다.

<표 2-26>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방법

구분		N	%
어려움 해결방법	생활비를 줄였다	228	37.7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137	22.7
	동물병원에 부탁하여 할부로 지불했다	30	5.0
	동물병원에 부탁하여 할인을 받았다	16	2.6
	돈을 빌렸다	47	7.8
	적금을 해지했다	6	1.0
	치료를 포기했다	27	4.5
	기타	113	18.7
	전체	604	100.0



<그림 2-21>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방법

10)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청할 곳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할 곳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고 답한 응답자가 375명(62.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보호구분에 따른 세부분석 결과 수급세대의 64.9%, 장애인의 63.9%, 차상위세대의 61.9%, 독거노인의 55.9%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고 답했다. 반려동물 관련하여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고 응답한 229명(37.9%)의 경우 요청대상은 가족 및 친척, 이웃, 동물병원 등이었다. 향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어떤 곳에 도움을 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웃, 가정방문서비스, 건강보험공단, 공공기관, 국가 및 임시보호센터, 복지관, 동물단체, 동물보호시설 등으로 답했다.

<표 2-27>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청할 곳

구분		N	%
도움을 청할 곳 유무	있다	229	37.9
	없다	375	62.1
	전체	604	100.0

11)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은 충동

반려동물 양육 중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은 충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 조사참여자의 15.7%(95명)가 '보내고 싶은 충동이 있었다' 고 답했으며 실제로 '보낸 적이 있는' 응답자도 7.5%(45명)에 달했다. 보호구분에 따른 세부 분석결과로는 수급세대의 15.7%, 차상위세대의 11.9, 독거노인의 16.5%, 장애인의 16.5%가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있으며, 수급세대의 10.7%, 차상위세대의 7.1%, 독거노인의 6.4%, 장애인의 7.2%가 실제로 자신들의 반려동물을 다른 곳으로 보낸 경험이 있었다.

<그림 2-22>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은 충동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었던 충동이 생긴 원인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는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가 45명(14.8%),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43명(14.1%), '비용문제로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41명(13.4%), '가족과 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36명(11.8%), '집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32명(10.5%), '입원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31명(10.2%),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24명(7.9%), ‘목욕 · 미용 · 산책 등 관리가 힘들어서’ 24명(7.9%), ‘기타’ 23명(75%), ‘이사 갈 때’ 6명(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다른 곳에 보냈거나 보내고 싶었던 충동이 생긴 원인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응답 결과, 1순위는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할 때’ 22명(15.7%),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21명(15.0%), ‘가족과 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17명(12.1%), ‘집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17명(12.1%), ‘입원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할 때’ 15명(10.7%),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14명(10.0%)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할 때’ 19명(19.4%),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17명(17.3%), ‘비용문제로 감당하기 힘들어서’ 14명(14.3%), ‘가족과 이웃과의 갈등이 생겨서’ 10명(10.2%)이었으며, 3순위는 ‘비용문제로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13명(19.4%), ‘집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10명(14.9%), ‘가족과 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9명(13.4%), ‘목욕 · 미용 · 산책 등 관리가 힘들어서’ 9명(13.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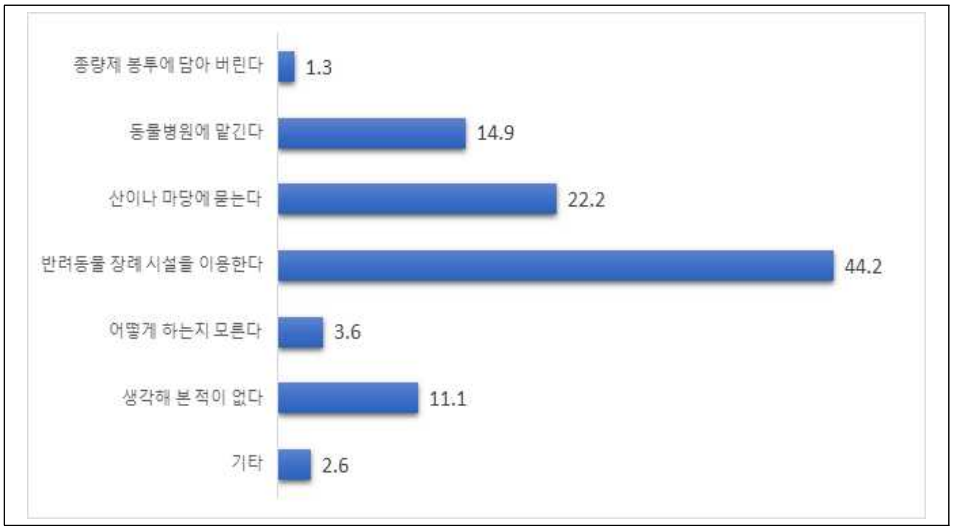
〈표 2-28〉 반려동물을 보내고 싶은 경험에 관한 응답

구분		N	%
반려동물 보내고 싶은 충동경험	보낸 적이 있다	45	7.5
	보내고 싶은 적이 있었다	95	15.7
	없다	464	76.8
	전체	604	100.0
반려동물 보내고 싶은 충동경험 (다중응답)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32	10.5
	이사 갈 때	6	2.0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36	11.8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43	14.1

구분		N	%
반려동물 보내고 싶은 충동경험 (다중응답)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24	7.9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45	14.8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41	13.4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 주기가 힘들어서	24	7.9
	입원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31	10.2
	기타	23	7.5
반려동물 보내고 싶은 충동경험 1순위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17	12.1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17	12.1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22	15.7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14	10.0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21	15.0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14	10.0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 주기가 힘들어서	6	4.3
	입원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15	10.7
	기타	14	10.0
	전체	140	100.0
반려동물 보내고 싶은 충동경험 2순위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5	5.1
	이사 갈 때	2	2.0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10	10.2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19	19.4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6	6.1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17	17.3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14	14.3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 주기가 힘들어서	9	9.2
	입원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9	9.2
	기타	7	7.1
	전체	98	100.0

구분		N	%
반려동물 보내고 싶은 충동경험 3순위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10	14.9
	이사 갈 때	4	6.0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9	13.4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2	3.0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4	6.0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7	10.4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13	19.4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 주기가 힘들어서	9	13.4
	입원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7	10.4
	기타	2	3.0
	전체	67	100.0
전체		305	100.0

12)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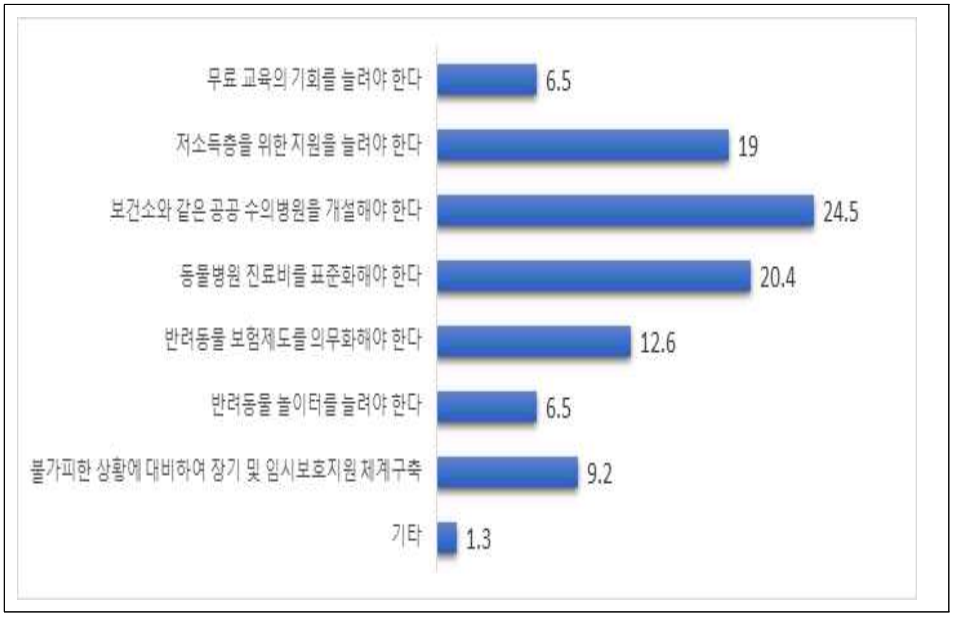
<그림 2-23>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 방법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2%(267명)이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22.2%(134명)가 산이나 마당에 묻을 것이라고 했다. 이외로는 '동물병원에 맡긴다' 90명(14.9%), '생각해 본 적이 없다' 67명(11.1%),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22명(3.6%), '기타' 16명(2.6%),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린다' 8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호구분으로 세부 분석한 결과 '장례시설을 이용한다' 고 답한 비율은 수급세대(36.0%), 차상위세대(34.5%), 독거노인(32.4%), 장애인(39.7%)이고,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의 경우는 수급세대(22.7%), 차상위세대(23.8%), 독거노인(26.1%), 장애인(24.2%)이며, '동물병원에 맡긴다' 는 수급세대(19.4%), 차상위세대(21.4%), 독거노인(23.9%), 장애인(17.5%),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는 수급세대(10.7%), 차상위세대(15.5%), 독거노인(8.5%), 장애인(10.3%)이었다.

<표 2-29>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방법

구분		N	%
반려동물 사망 시 대처방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8	1.3
	동물병원에 맡긴다	90	14.9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134	22.2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한다	267	44.2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22	3.6
	생각해 본 적이 없다	67	11.1
	기타	16	2.6
	전체	604	100.0

13)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정책에 관한 욕구



<그림 2-24>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 (다중응답)

반려동물 돌봄을 위한 지원이나 제도에 대한 욕구를 묻는 질문의 다중응답 결과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 개설' 이 24.5%(4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335명(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313명(19.0%),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 208명(12.6%), '호텔링 및 임시보호 지원체계 구축 ' 151명(9.2%), '무료교육의 기회 확대' 108명(6.5%),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 107명(6.5%), '기타' 21명(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에는 화장비용 지원, 경제적 지원, 반려인 의무교육, 인식개선, 장례 시 공적시설 이용, 저소득층을 위한 미용비 지원, 잘 모르겠다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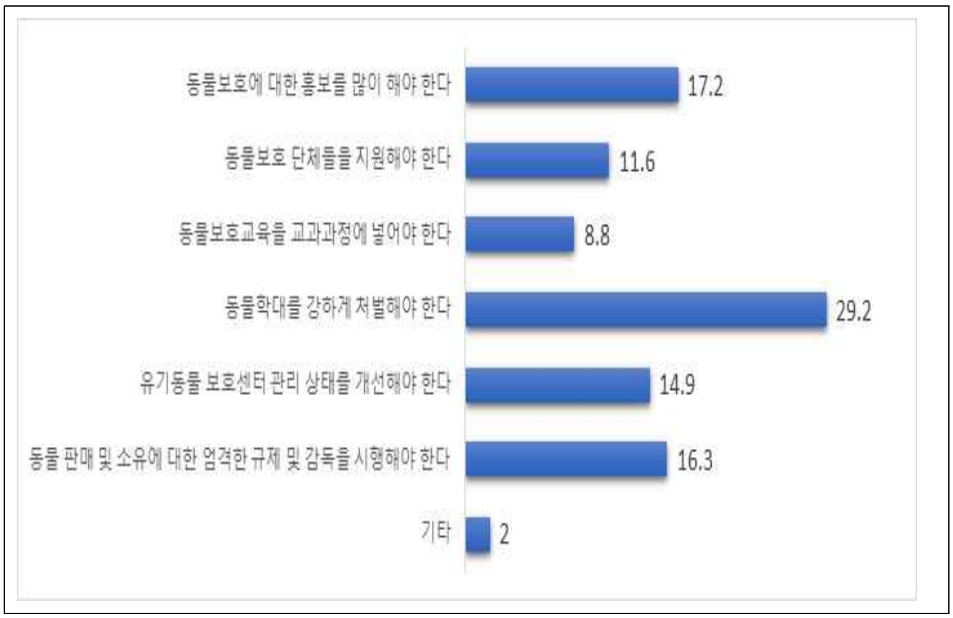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살펴본 결과, 1순위는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194명(32.1%),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한다' 184명(30.5%), '동물병원 진

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 80명(13.2%), ‘무료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한다’ 48명(7.9%),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 44명(7.3%) 등이었고, 2순위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157명(28.2%),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 개설’ 149명(26.8%),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74명(13.3%),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 68명(12.2%), ‘호텔링 및 임시보호 지원체계 구축’ 47명(8.5%) 등의 순이었다. 3순위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98명(20.1%),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 96명(19.7%), ‘호텔링 및 임시보호 지원체계 구축’ 81명(16.6%),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 개설’ 61명(12.5%),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 55명(11.3%) 등으로 나타났다.

<표 2-30>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

구분		N	%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다중응답)	무료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108	6.5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313	19.0
	보건소(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와 같은 공공 수의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404	24.5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	335	20.4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208	12.6
	반려동물 놀이터를 늘려야 한다	107	6.5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 호텔링 및 임시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51	9.2
	기타	21	1.3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1순위	무료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48	7.9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184	30.5
	보건소(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와 같은 공공 수의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194	32.1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	80	13.2

구분		N	%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1순위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44	7.3
	반려동물 놀이터를 늘려야 한다	21	3.5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 호텔링 및 임시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3	3.8
	기타	10	1.7
	전체	604	100.0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2순위	무료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26	4.7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74	13.3
	보건소(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와 같은 공공 수의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149	26.8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	157	28.2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68	12.2
	반려동물 놀이터를 늘려야 한다	31	5.6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 호텔링 및 임시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7	8.5
	기타	4	.7
	전체	556	100.0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3순위	무료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34	7.0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55	11.3
	보건소(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와 같은 공공 수의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61	12.5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	98	20.1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96	19.7
	반려동물 놀이터를 늘려야 한다	55	11.3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 호텔링 및 임시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81	16.6
	기타	7	1.4
	전체	487	100.0
전체		1647	100.0



<그림 2-25>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에 바라는 점 (다중응답)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는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471명(29.2%),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증가' 278명(17.2%), '동물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감독' 263명(16.3%),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상태 개선' 241명(14.9%), '동물보호 단체 지원' 187명(11.6%), '동물보호 교육 교과과정 제정' 142명(8.8%), '기타' 33명(2.0%)의 순이었다. 기타 의견에는 동물보호법 제정, 예방접종비 지원, 비반려인 에티켓 갈등 시 법정대응, 장례비 지원 등이었다.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에 바라는 점에 대해 1순위부터 3순위에 대한 응답결과, 1순위는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88명(47.7%),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증가' 126명(20.9%), '동물보호 단체 지원' 55명(9.1%), '동물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감독' 46명(7.6%), '동물보호 교육 교과과정 제정' 38명(6.3%)이었다. 2순위는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132명(24.4%),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상태 개선' 113명(20.9%),

‘동물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감독’ 86명(15.9%),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증가’ 74명(13.7%), ‘동물보호 단체 지원’ 72명(13.3%)이었고, 3순위는 ‘동물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 131명(27.8%),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상태 개선’ 93명(19.7%),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 증가’ 78명(16.6%), ‘동물보호 단체 지원’ 60명(1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1> 서울시 동물보호 정책에 바라는 점

구분		N	%
동물보호 정책시행 (다중응답)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278	17.2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187	11.6
	동물보호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142	8.8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471	29.2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241	14.9
	동물 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263	16.3
	기타	33	2.0
동물보호 정책시행 1순위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126	20.9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55	9.1
	동물보호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38	6.3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288	47.7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35	5.8
	동물 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46	7.6
	기타	16	2.6
	전체	604	100.0

구분		N	%
동물보호 정책시행 2순위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74	13.7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72	13.3
	동물보호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56	10.4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132	24.4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113	20.9
	동물 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86	15.9
	기타	7	1.3
	전체	540	100.0
동물보호 정책시행 3순위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78	16.6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60	12.7
	동물보호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48	10.2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51	10.8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93	19.7
	동물 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131	27.8
	기타	10	2.1
	전체	471	100.0
전체		1,615	100.0

14) 소결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604명이며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 445명(73.7%), 남성159명(26.3%)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70대 148명(24.5%), 60대 141명(23.3%), 50대 98명(16.2%), 80대 이상 75명(12.4%), 40대 55명(9.1%), 20대 이하 51명(8.4%), 30대 36명(6.0%)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구분은 서울시 25개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으로, 서울 동부권역(강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송파구, 성동구, 용산구, 중구, 중랑구), 서부권역(강서구, 구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남부권역(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북부권역(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를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북부권역 155명(25.7%), 서부권역 152명(25.2%), 동부권역 150명(24.8%), 남부권역 147명(24.3%)으로 나타나 4개 권역에 걸쳐 골고루 조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거주 주택형태는 아파트 거주자가 434명(71.9%), 연립 · 빌라 · 다세대주택 110명(18.2%), 단독주택 50명(8.3%),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10명(1.7%)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형태에 관한 비율은 2세대(부모와 자녀 함께 거주) 216명(35.8%), 독거노인 세대 188명(31.1%), 노인부부 세대 61명(10.1%), 1인세대(청장년) 51명(84%), 한부모세대 49명(8.1%), 기타 20명(3.3%), 조손세대 19명(301%)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가구소득은 50~70만원 미만 188명(31.1%), 100~200만원 미만 107명(17.7%), 70~100만원 미만 101명(16.7%), 50만원 미만 85명(14.1%), 200~300만원 미만 69명(11.4%), 300만원 이상 54명(8.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유무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194명(32.1%)이었으며, 이 중 중증 장애인은 101명(52.1%), 경증 장애인은 93명(47.9%)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KB 금융카드 이용자 중 마케팅 동의하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전국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한 결과 40-50대, 2인 이상의 다인가구, 단

독주택에 거주하며 금융자산이나 가구소득이 많은 경우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많았다(황원경, 2017). 전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했을 시 반려동물을 양육가구 비율은 27.9%였고, 20대가 32.2%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서울, 경기, 주요 광역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양육 중인 만 19-59세 남녀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설문에서는 60세 이상을 제외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외, 2018). 농림축산검역본부(2017)는 전국 만 20세~64세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중이 28.1%였다.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의 반려인의 반려동물 양육행태를 알아보는 조사는 극히 저조했다. 최근에서야 동물권행동카라(2019)는 서울시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211명) 설문조사했을 때, 60대 이상(16.1%, 34명)을 포함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학적 특성은 2세대 52.6%, 단독세대 30.8% 소득구간 150만원 미만이 70%였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로 동물을 좋아해서(29.7%), 외로워서(20.4%)가 높은 비율이었다. 키우게 된 계기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동물을 좋아해서의 경우 20대(58.8%)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로워서의 경우 70대(31.1%). 80대 이상(24.0%)이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로, 외로워서의 경우 독거노인세대(34.6%)와 조손세대(42.1%)가 높은 비율이었다. 장애유무에 따른 차이로 동물을 좋아해서의 경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세대(31.4%)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세대(27.1%)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또한, 외로워서의 경우도 장애가 있는 세대(25.3%)가 장애가 없는 세대(18.8%)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는 서울연구원(유기영・이종찬, 2016), KB연구보고서(황원경, 2017)과 동물권행동카라(2019)의 연구에서도 동물을 좋아해서가 각각 53.3%, 34.2%, 30.6%로 모두 1순위로 본 연구 결과와 같았다. 2순위는 선물 등 우연한 기회(17%)(서울연구원, 2016) 가족이 원해서, 아이가 졸라서 (19.2%)(KB연구보고서, 2017), 아이들 정서상의 교육목적,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히 기회가 되어(13.5%) (동물권행동카라, 2019) 키우게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 결과 2순위인 ‘외로워서’와는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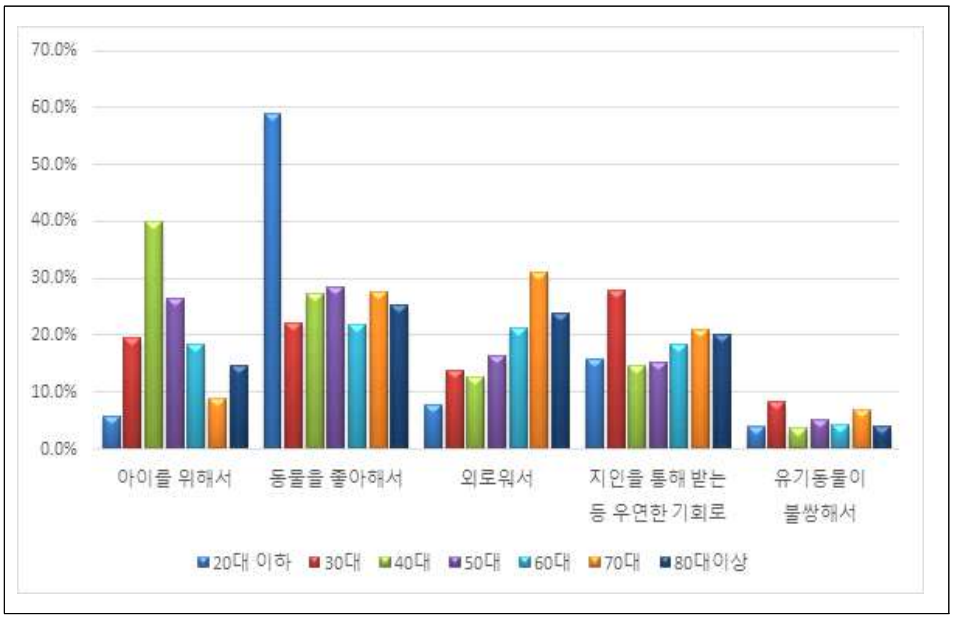
반려동물 양육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로는 친구 및 동료(22.7%), TV 프로그램(19.9%), 동물병원(17.8%), 인터넷 및 SNS(16.8%), 가족(12.3%), 복지관과 구청 및 동물단체(2.8%), 어플리케이션(2.1%), 동호회(1.8%), 분양센터(0.5%)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파악 비율은 낮은 반면 KB보고서(황원경, 2017)는 1순위가 인터넷이나 모바일 검색(76.8%)이었고, 가족/친구/지인(34.6%), TV/라디오(31.2%), 카페 동호회 블로그 등의 자료(27.9%) 순인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받고 싶은 교육으로는 돌봄상식교육(24.8%), 의료교육(21.3%), 문제행동 개선교육(16.1%), 사회화교육(12.4%), 행동풍부화교육(12.3%), 법적준수사항 및 기본에티켓교육(8.6%)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항과 같은 설문을 조사한 동물권 행동 카라(2019)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개선교육(28%), 의료교육(23.5%), 돌봄상식교육(21.3%), 행동풍부화교육(18.7%), 법적준수사항 및 기본에티켓교육(7.2%) 순으로 그 순위는 조금씩 다르나 상위 3위 욕구는 동일했다.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로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 개설(24.5%),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19.0%),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12.6%), 호텔링 및 임시보호 지원체계 구축(9.2%), 무료교육의 기회 확대(6.5%),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6.5%)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세대(43.0%)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부분의 욕구가 높았으며, 일반세대(38.1%)는 공공 수의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욕구가 높았다.

2.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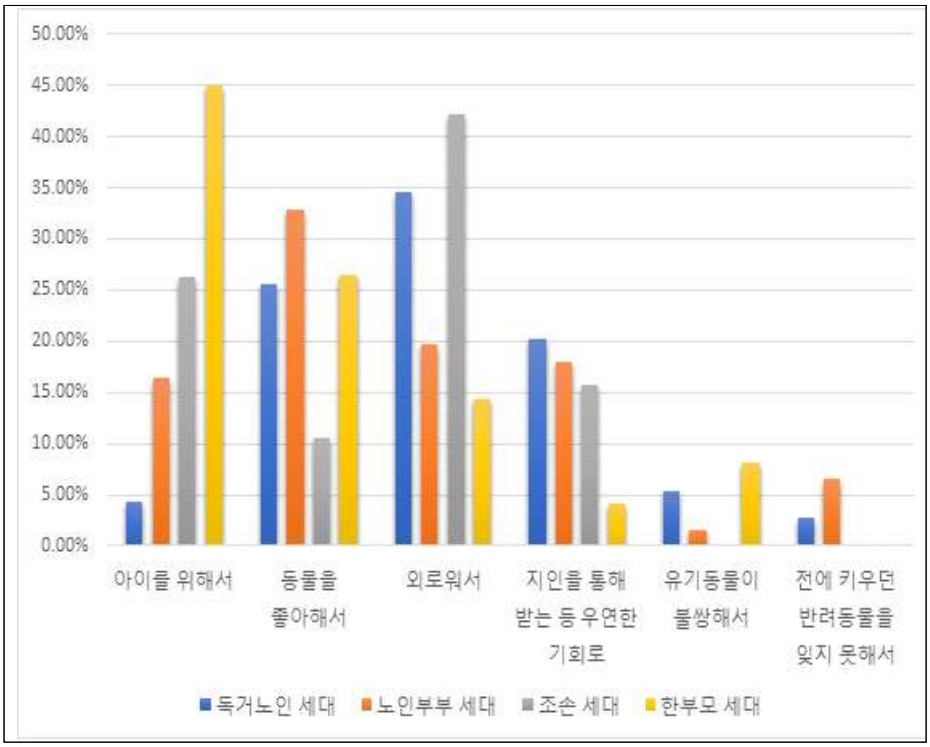
1)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26>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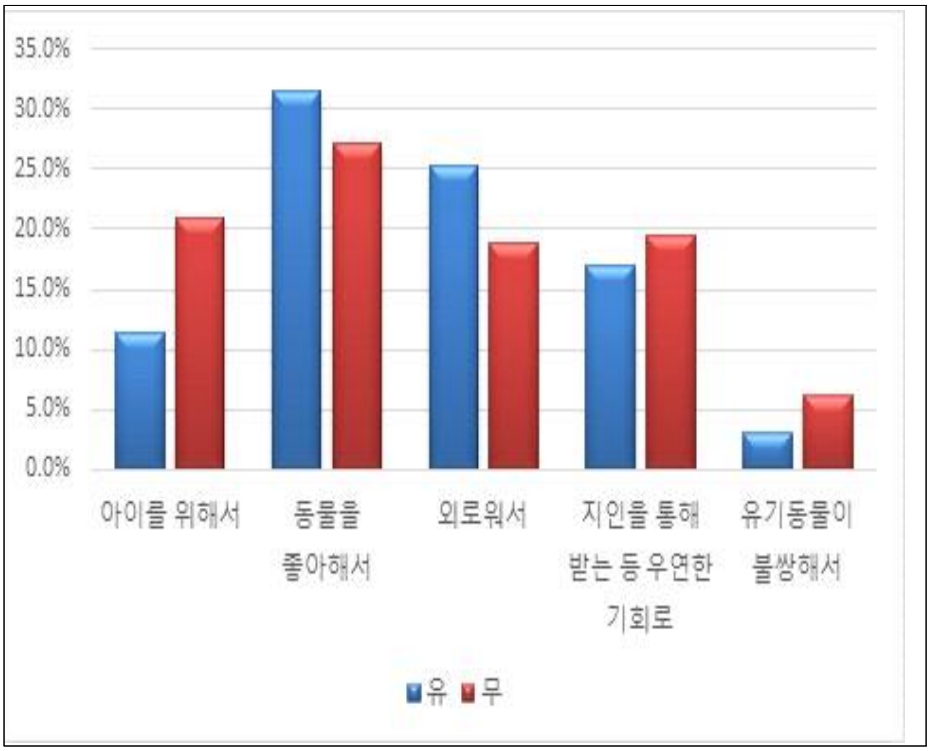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와 연령대를 교차분석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령대 별 차이(χ^2 =90.684, p=0.000)를 확인했다.

‘동물을 좋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가 58.8%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아이를 위해서’는 40대(40.0%), ‘외로워서’는 70대(31.1%)와 80대 이상(24.0%),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는 30대(27.8%)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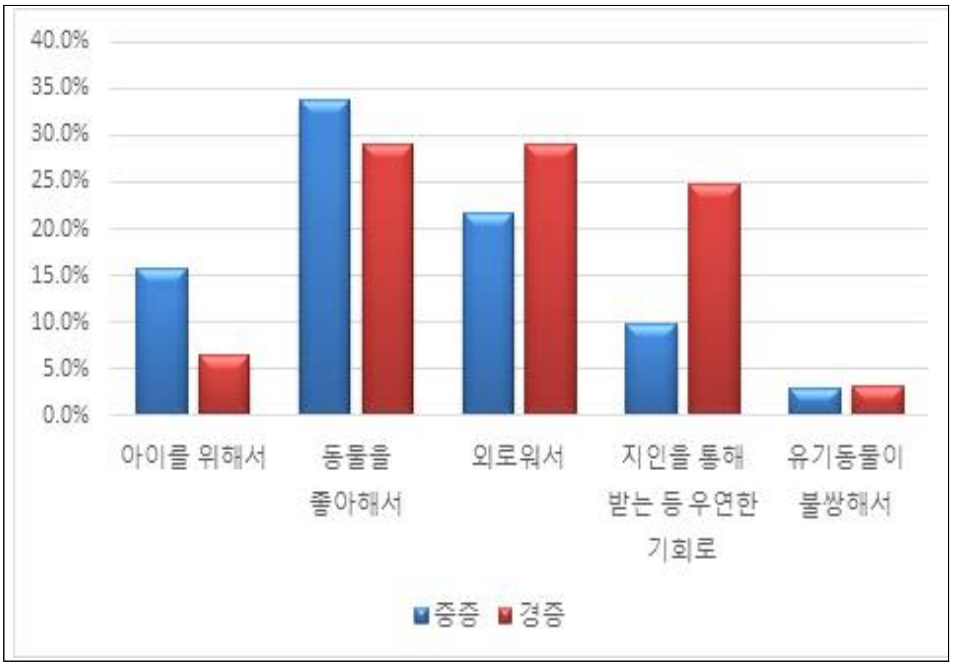
<그림 2-27>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가구형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가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x^2 =121.042, p=0.080)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아이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경우는 한부모세대가 44.9%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았고,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는 독거노인세대(34.6%), 조손세대(42.1%)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다.



<그림 2-28>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장애유무 교차분석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가 조사참여자들의 장애유무와 유의미(x^2 =19.405, p=0.040)한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가 '아이를 위해서'인 경우 비장애인(21.0%)이 장애인(11.3%)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동물을 좋아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율은 장애인(31.4%)이 비장애인(27.1%)보다 높았고,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도 장애인(25.3%)이 비장애인(18.8%)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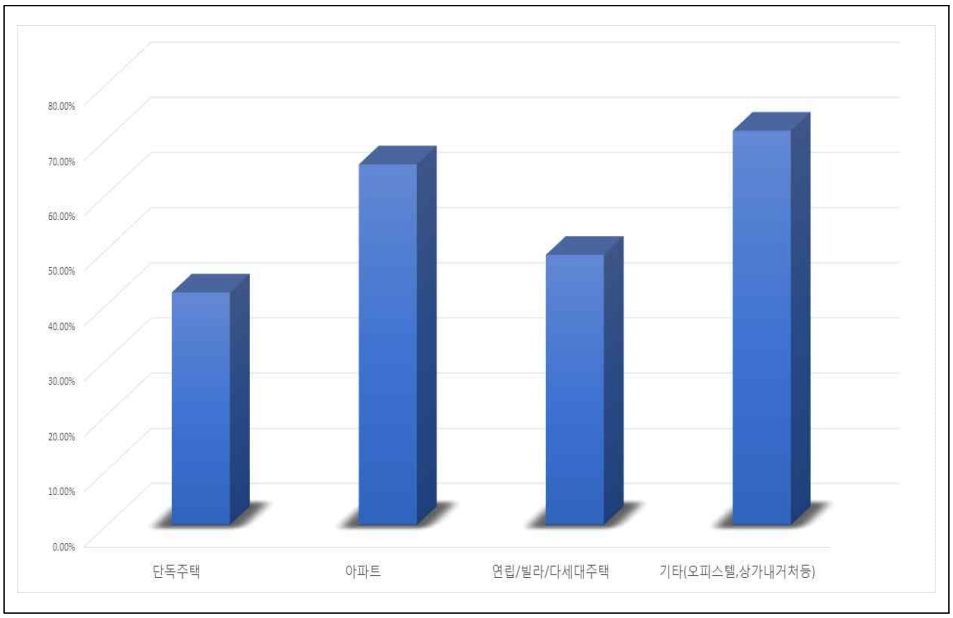


<그림 2-29> 키우게 된 계기에 따른 장애등급 교차분석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와 장애등급을 교차분석 한 결과 상호관련성이 있었다(x^2 =14.430, p=0.025). 아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중증장애인의 비율(15.8%)이 경증장애인(6.5%)보다 높았으며 '동물을 좋아해서' 키우는 비율도 중증장애인(33.7%)이 경증장애인(29.0%)보다 높았다. 반면 '외로워서'와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의 경우 경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 보다 높은 비율이었다.

2) 반려견 특성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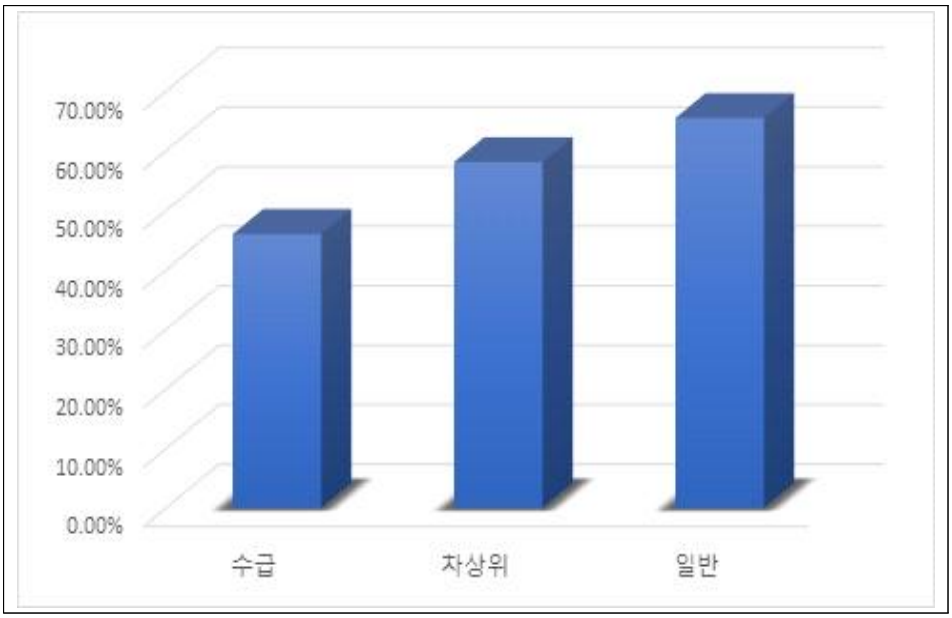
(1) 반려견 동물등록에 따른 교차분석



<그림 2-30> 반려견 동물등록에 따른 주택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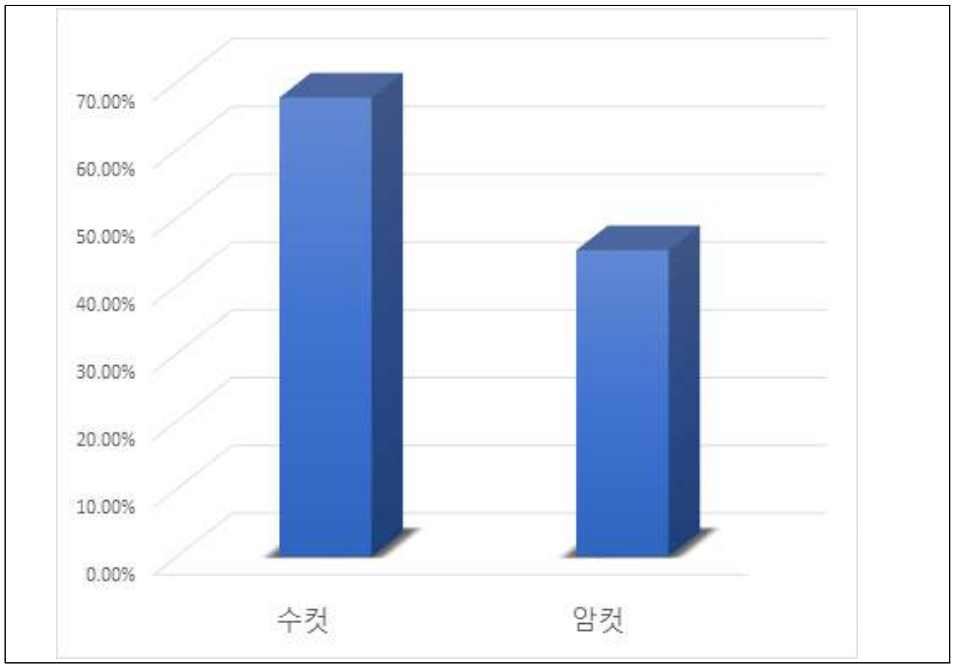
조사참여자의 거주 주택의 형태에 따라 반려견의 동물등록율에 차이가 있었다(x^2 =14.642, p=0.002). 반려견의 동물등록에 따른 주택형태 교차분석 한 결과, 아파트(65.3%)나 오피스텔/상가 내(71.4%)에 거처 하는 에 응답자가 단독주택(42.1%) 및 연립/빌라/다세대 주택(48.9%)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반려견 동물등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 반려견 중성화 수술에 따른 교차분석



<그림 2-31>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과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상호 관련성이 있었다. 즉, 보호구분에 따른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χ^2 =18.082, p=0.000)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일반세대(65.5%)의 경우 중성화 수술 비율이 가장 높았고, 수급세대(46.0%)의 경우 다른 보호구분에 비하여 중성화 수술 비율이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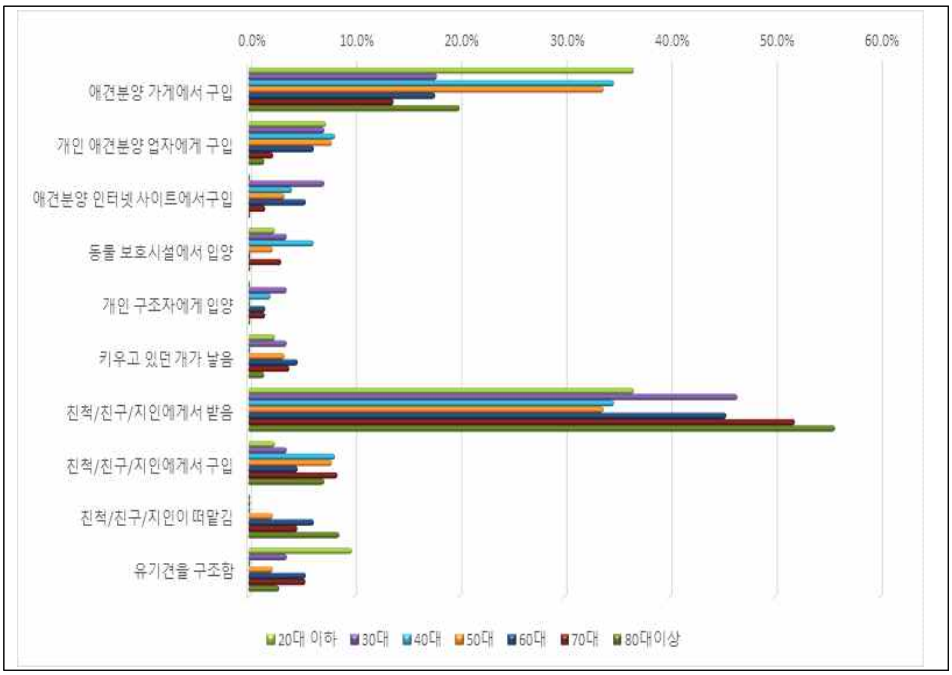


<그림 2-32>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유무에 따른 반려동물 성별

반려견의 중성화 수술 유무와 반려동물의 성별을 교차분석 한 결과, 반려동물의 중성화 수술 유무에 차이에 따라 반려견 성별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χ^2 =27.549, p=0.000)하여 상호 관련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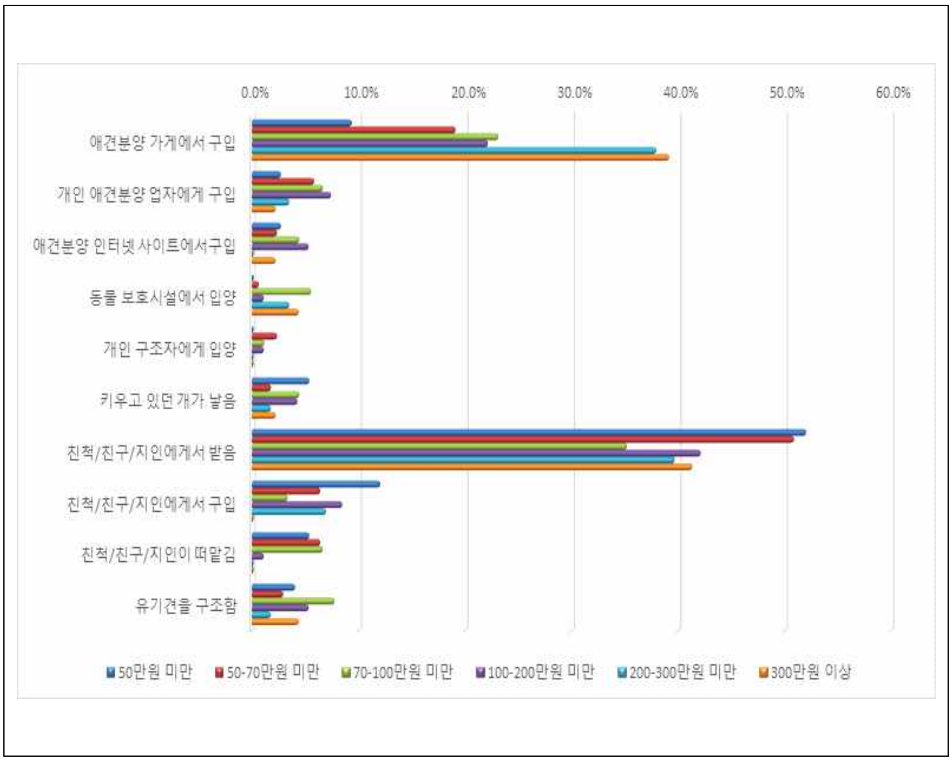
반려견의 성별이 암컷(45.2%)보다 수컷(67.7%)의 중성화 수술 비율이 높았다.

(3)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에 따른 교차분석



<그림 2-33>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에 따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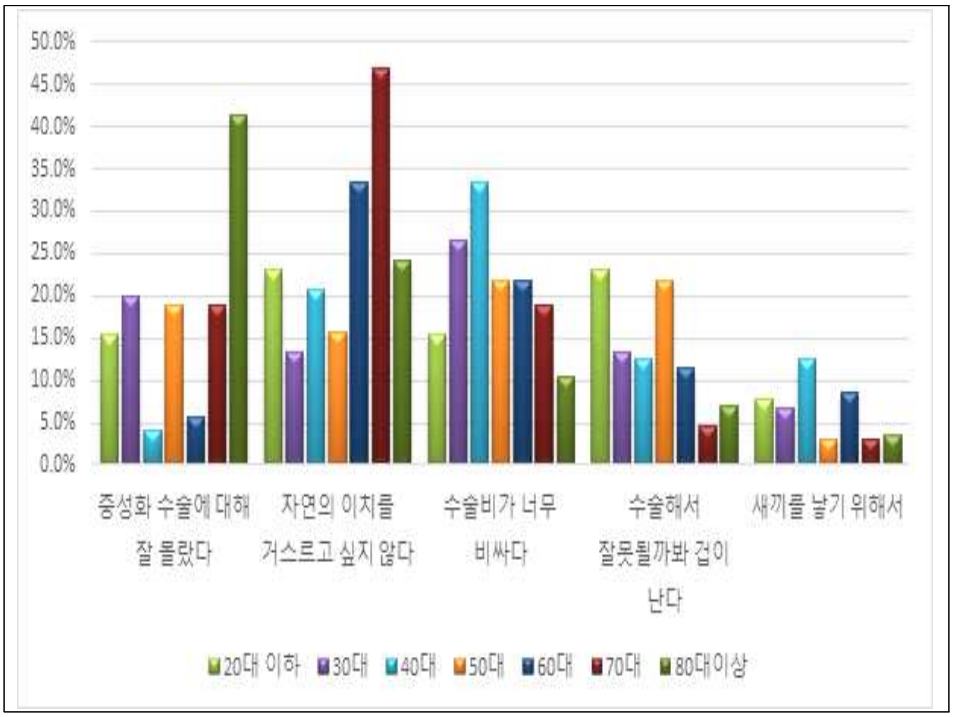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와 연령대를 교차분석 한 결과,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가 연령대 별로 유의미한 차이(x^2 =79.180, p=0.049)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가 '애견분양가게에서의 구입' 인 경우 20대 이하(36.6%)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유기견을 구조한' 경우도 20대 이하(9.8%)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김' 과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음' 은 각각 80대 이상(55.7%, 8.6%)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34>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에 따른 가구소득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와 가구소득을 교차분석 한 결과 상호 관련성이 있었다. 즉,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가 가구 소득에 따라 차이(x^2 =78.206, p=0.007)가 있었다.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가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은' 경우가 50만원 미만(52.0%)과 50~70만원 미만(50.9%)대의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소득이 높은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애견분양가게에서의 구입' 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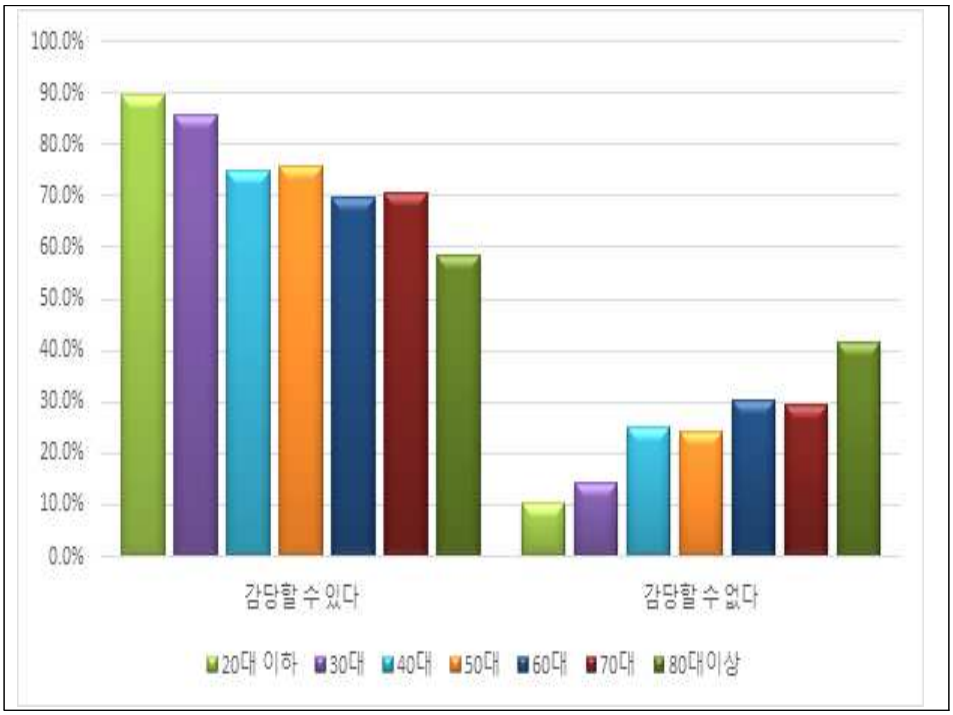
(4) 반려견 중성화 수술 안하는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35> 반려견 중성화 수술 안하는 이유에 따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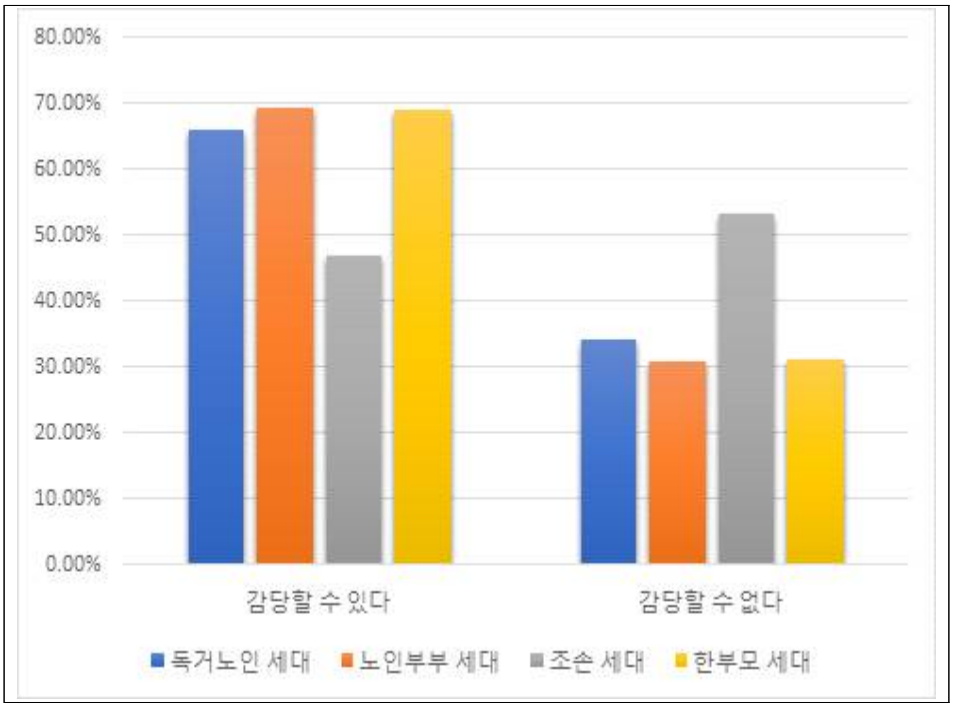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와 연령대를 교차분석 한 결과, 중성화 수술 안하는 이유에 따라 연령대 별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났다(x^2 =48.885, p=0.016).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안 한 이유 중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고 답한 비율이 80대 이상(41.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반려견 사료비 감당 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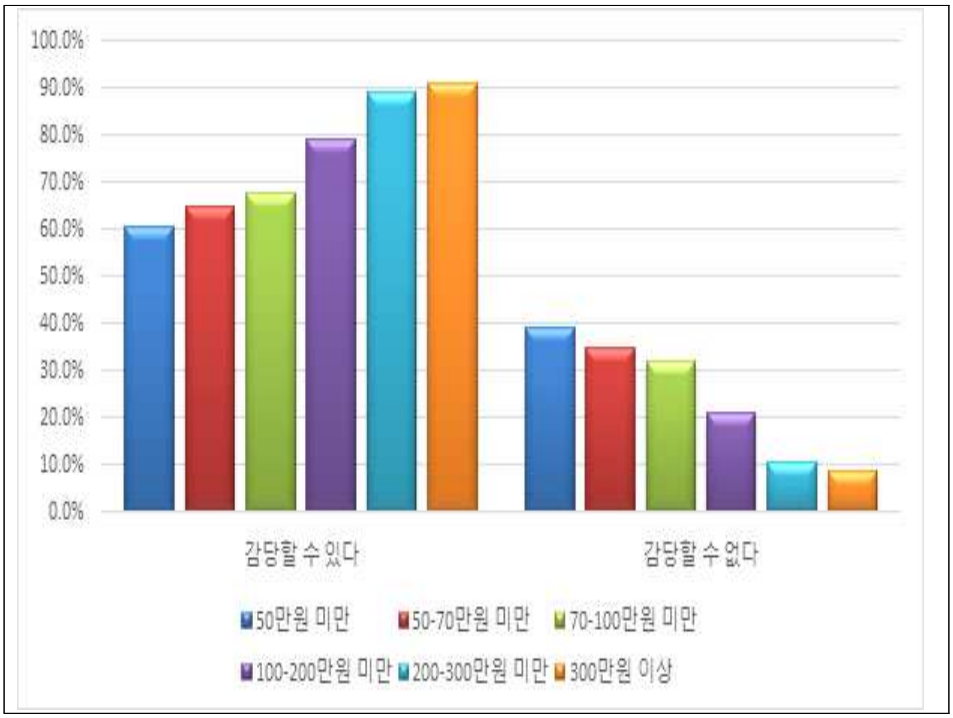
<그림 2-36>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연령대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와 연령대를 교차분석 한 결과, 사료비 감당여부에 대한 연령대 별 유의미한 차이가(x^2 =15.319, p=0.018) 나타났다.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반려견 사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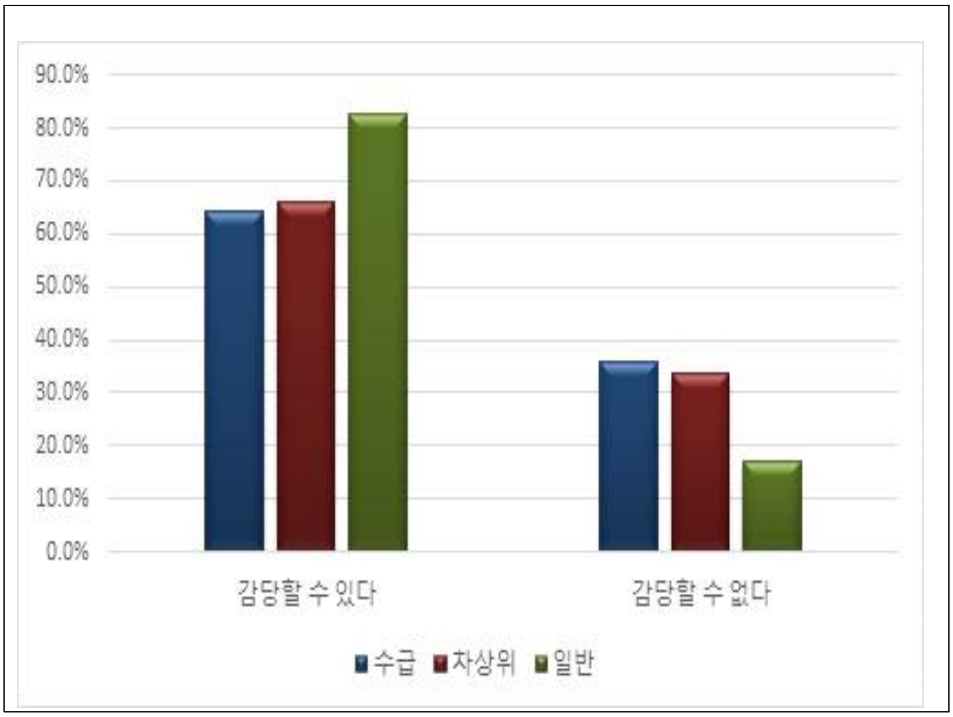
<그림 2-37>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가구형태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가 응답자의 가구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 =20.400, p=0.002). 조손 세대(53.3%)가 다른 세대보다 '반려견 사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2-38> 반려견 사료비 감당 여부에 따른 가구소득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가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x^2 =27.838, p=0.000). '사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응답한 가구는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50만원 미만(39.4%)에서 가장 높았고, 이후 소득이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 50-70만원 미만(35.0%), 70-100만원 미만(32.2%), 100-200만원 미만(21.1%), 200-300만원 미만(10.7%), 300만 원 이상(8.9%)으로 나타났다.



<그림 2-39>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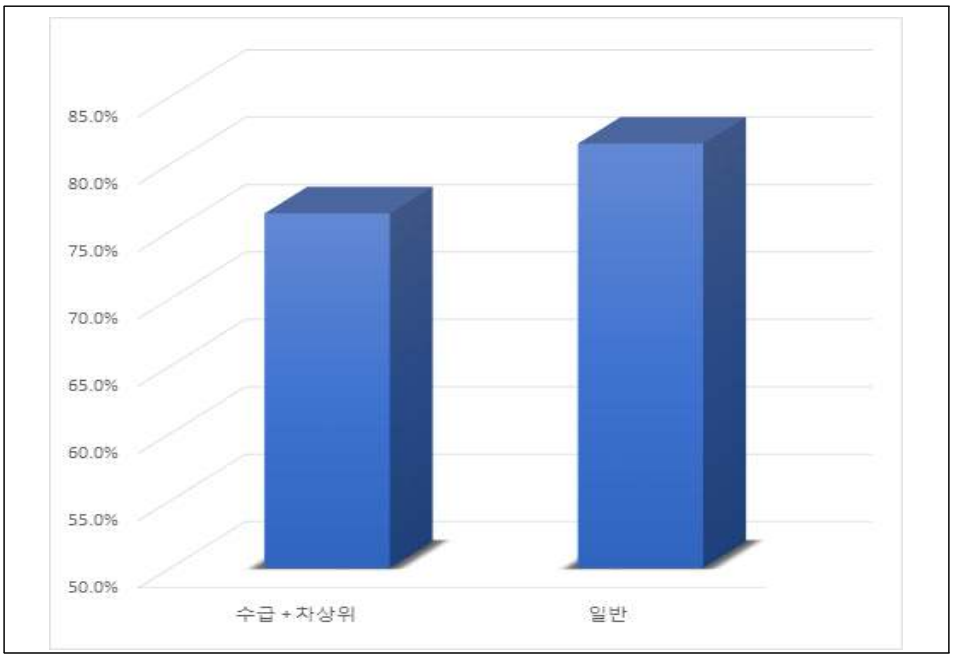
반려견 사료비 감당여부와 보호구분을 교차분석한 결과, 수급세대(35.9%)가 다른 세대에 비해 '사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x^2 =20.911, p=0.000).

(6) 반려견 의료비 감당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0> 반려견 의료비지출 감당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견 의료비지출 감당여부와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수급세대(29.8%)와 차상위세대(28.8%)가 일반세대(16.4%)보다 '반려견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x^2 =10.547, p=0.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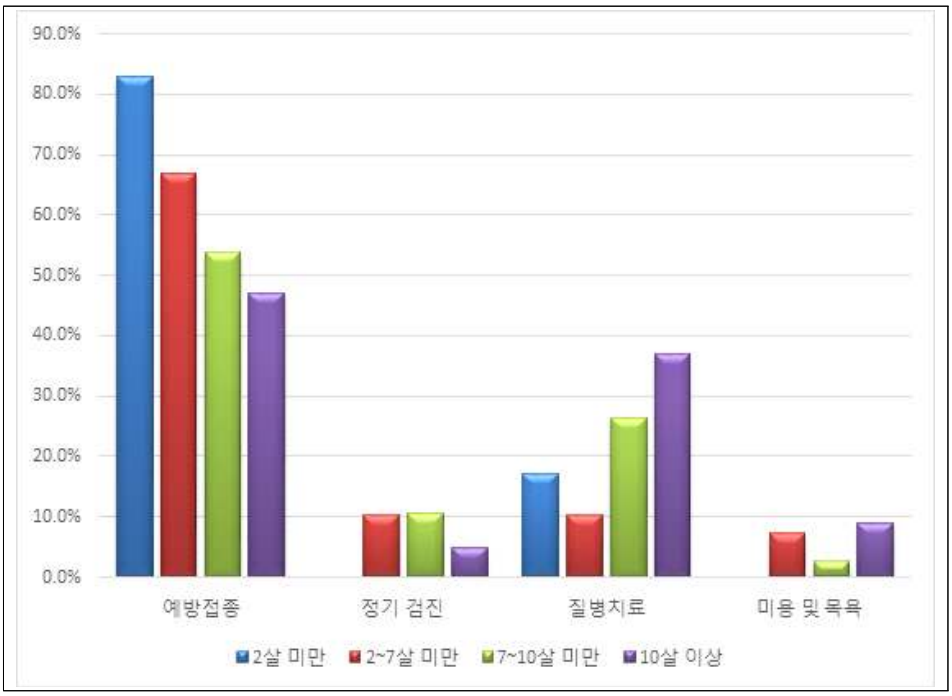
(7) 반려견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1> 반려견 1년 이내 동물병원 경험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견이 지난 1년 이내 동물병원 방문경험에 따른 보호구분 교차분석 결과 지난 1년 내에 동물병원을 방문한 비율은 일반세대가 81.5%로 수급+차상위세대의 76.3% 보다 높았다(x^2 =2.118, p=0.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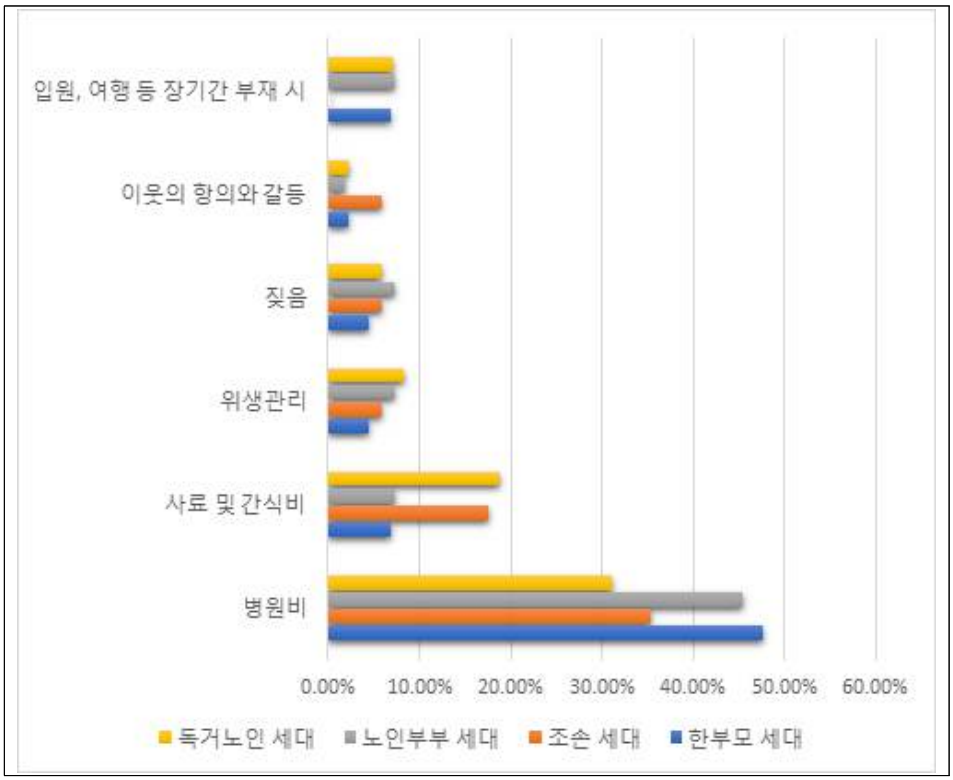
(8) 반려견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2> 반려견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따른 반려견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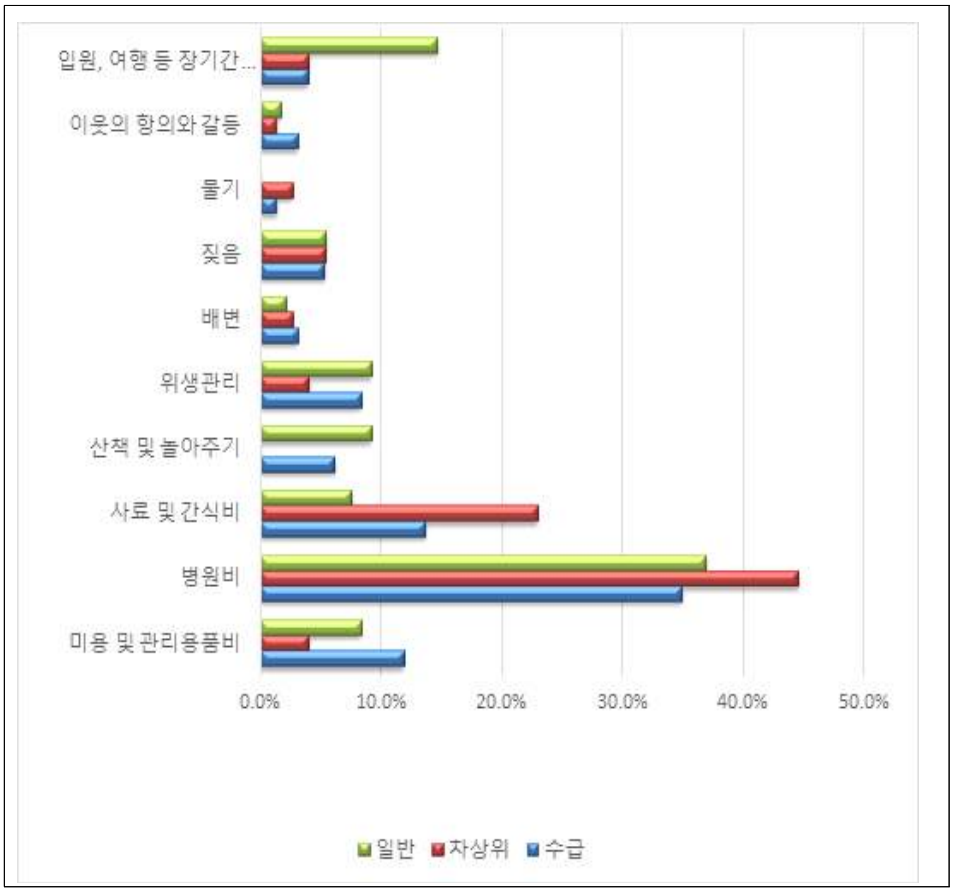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방문한 이유와 반려견의 연령을 교차분석 한 결과, 반려견의 동물병원 방문 이유에 따라 반려견 연령대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χ^2 =64.628, p=0.000). '예방접종'을 위해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2살 미만(82.9%)이 가장 높았고, '질병치료'를 위해 방문한 경우는 10살 이상(37.0%)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9) 반려견 양육 시 어려운 점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3> 반려견 양육 시 어려운 점에 따른 가구 형태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운 점과 가구형태를 교차분석 한 결과, 독거노인(18.7%) 및 조손세대(17.6%)가 다른 가구에 비해 '사료 및 간식비' 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병원비'에 대한 부담은 노인부부세대(45.5%) 및 한부모세대(47.7%)에서 다른 세대보다 높은 비율이 나타났다(x^2 =81.919, p=0.0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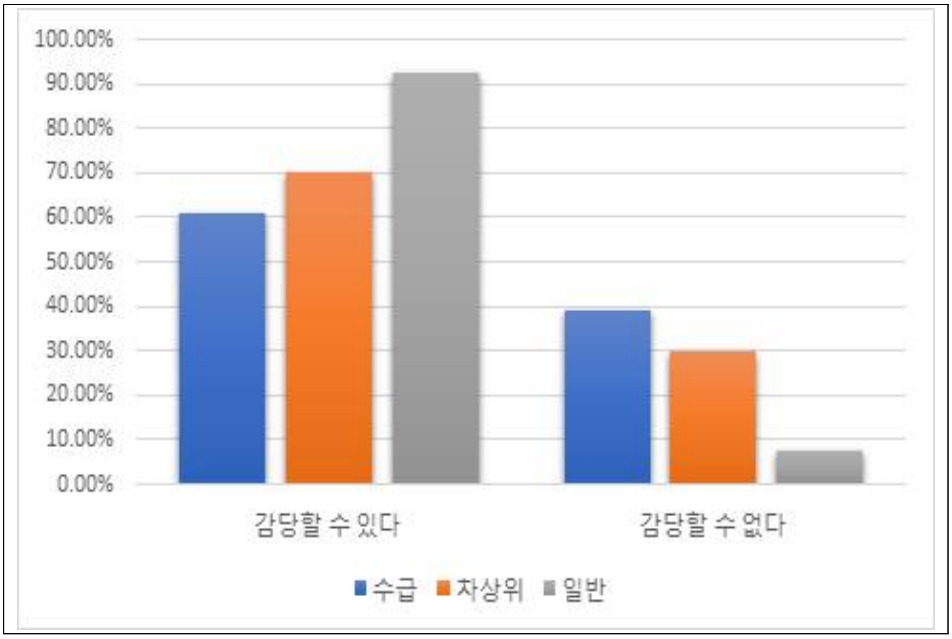


<그림 2-44> 반려견 양육 시 어려운 점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운 점과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일반세대(14.7%)가 다른 세대보다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의 외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수급세대(23.0%)가 다른 세대보다 가장 높은 비율로 '사료 및 간식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x^2 =52.963, p=0.000).

3) 반려묘 특성에 관한 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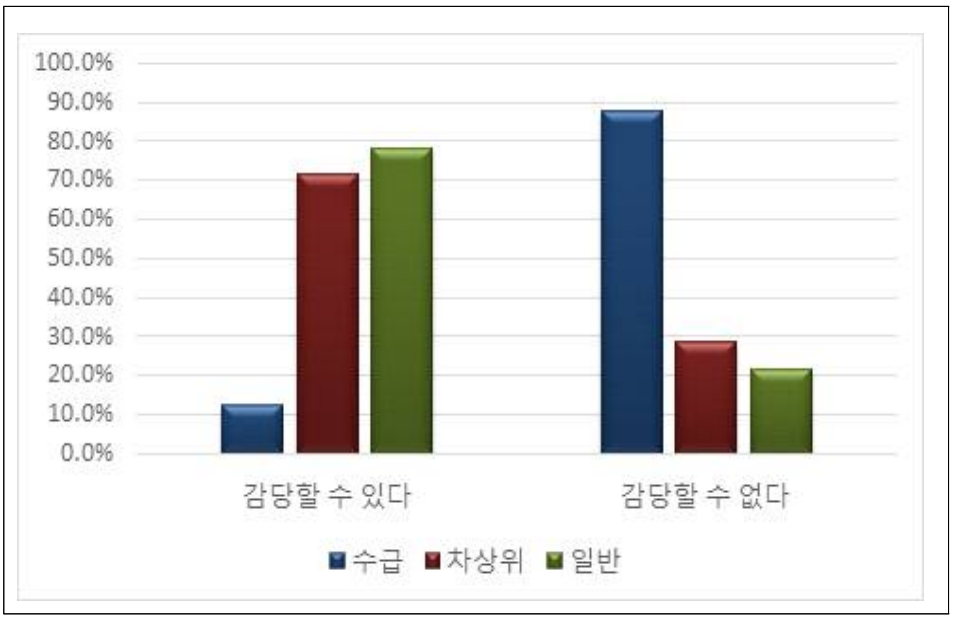
(1) 반려묘 사료비 및 간식비 감당 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5> 반려묘 사료비 및 간식비 감당 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묘 사료비 및 간식비 감당여부와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일반세대(92.7%)가 차상위세대와 수급세대에 비해 반려묘 사료비 및 간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았다(χ^2 =9.106, p=0.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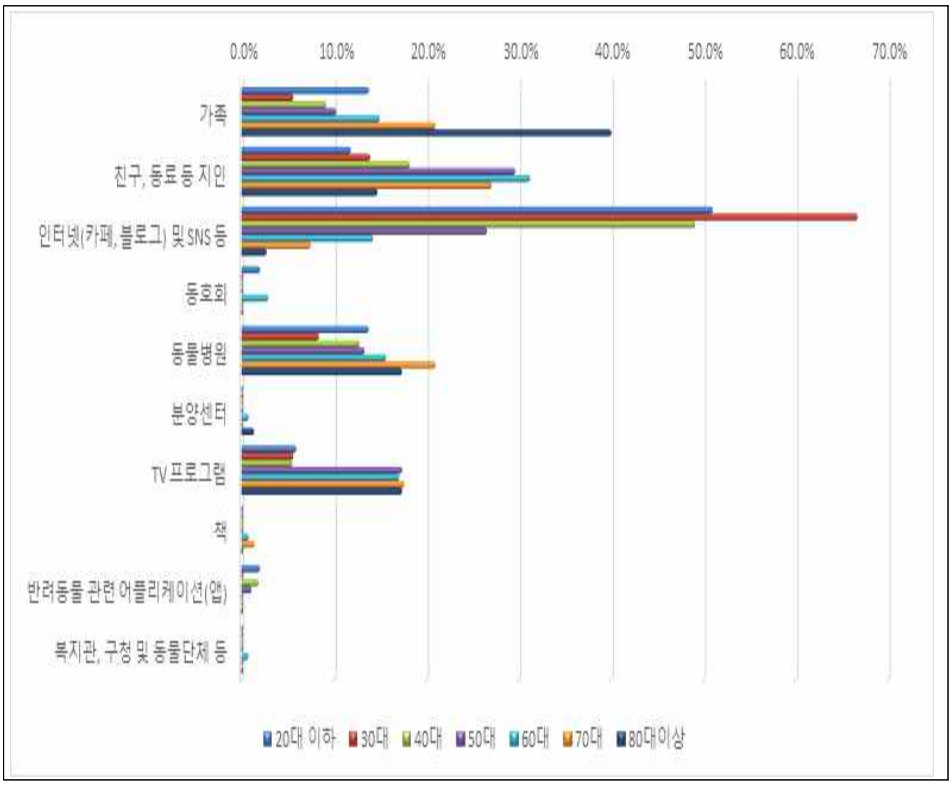
(2) 반려묘 의료비 감당여부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6> 반려묘 의료비 감당여부에 따른 보호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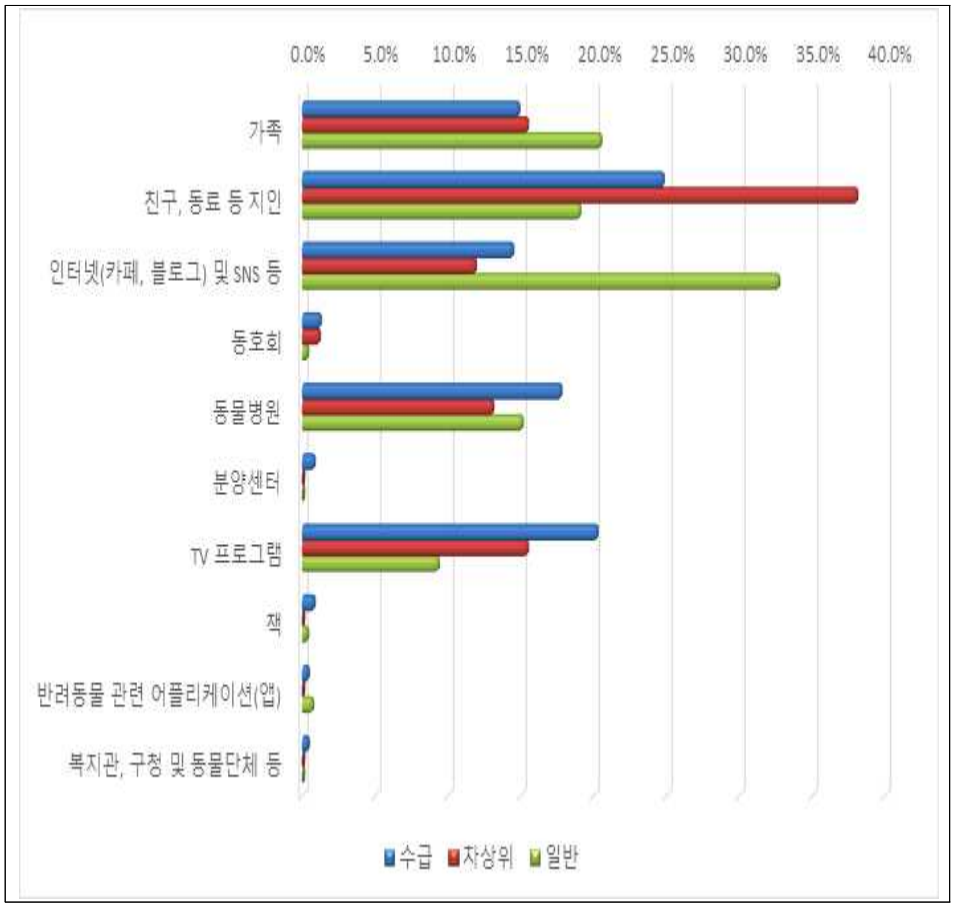
반려묘 의료비 감당여부와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일반세대(78.3%)가 다른 세대보다 반려묘의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차상위세대(71.4%)와 수급세대(12.5%)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χ^2 =11.283, p=0.004).

4)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7>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에 따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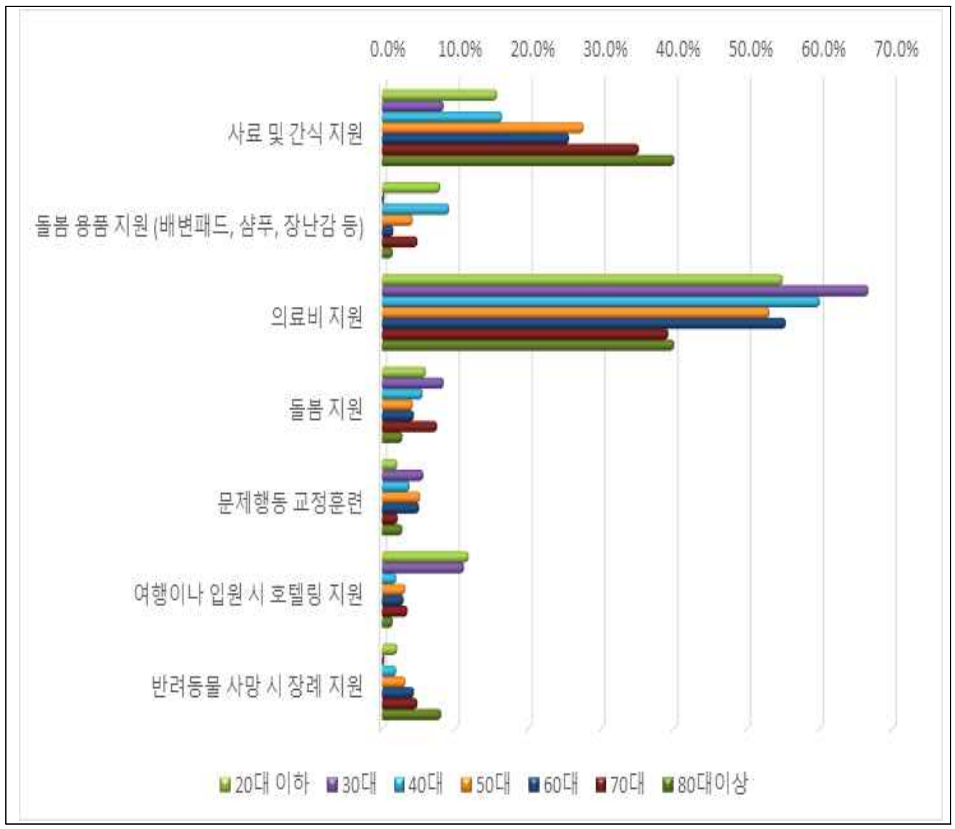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를 연령대와 교차분석 한 결과,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가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다(x^2 =196.420, p=0.000). ‘TV프로그램’을 통해 반려동물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연령층은 60대(17.0%), 70대(17.6%), 80대 이상(17.3%)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이었고, ‘인터넷(카페, 블로그) 및 SNS 등’은 60대(14.2%), 70대(7.4%), 80대 이상(2.7%)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2-48> 반려동물 정보파악 경로에 따른 보호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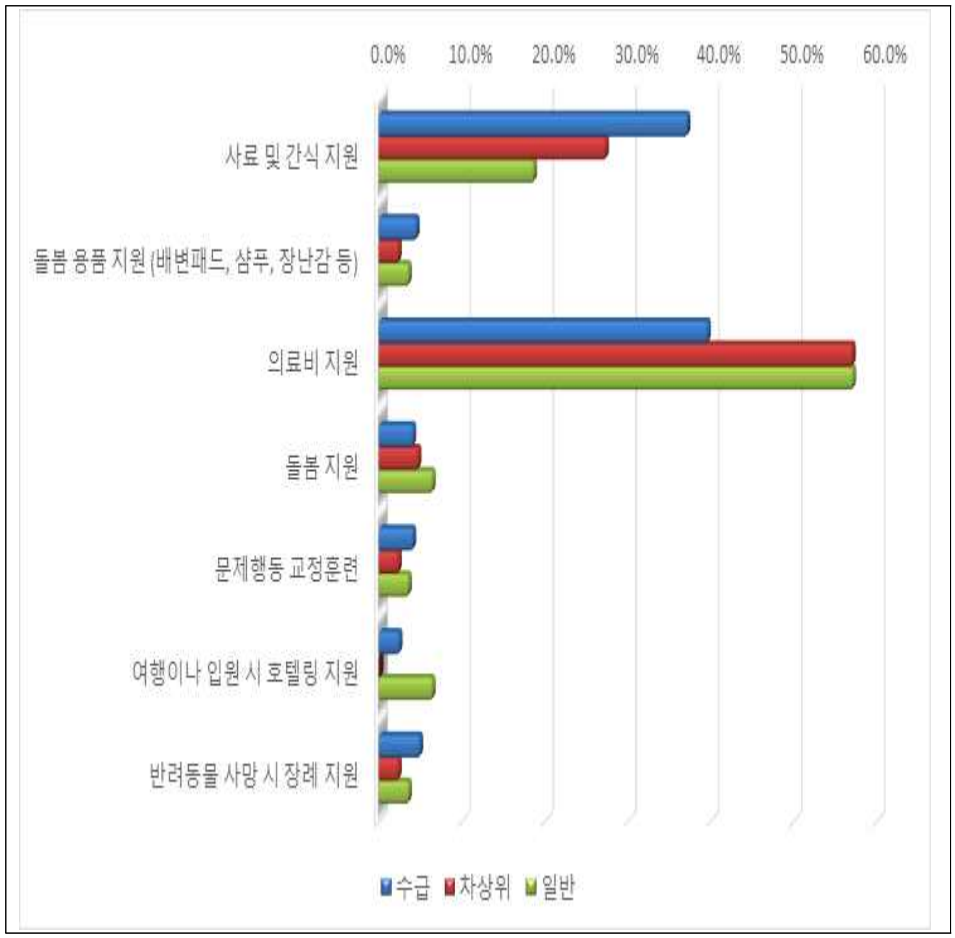
반려동물관련 정보파악 경로와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인터넷(카페, 블로그) 및 SNS 등'을 이용하는 경우는 일반세대(32.7%)가 수급세대(14.5%)나 차상위세대(11.9%)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대로 'TV프로그램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하는 경우는 수급세대(20.2%), 차상위세대(15.5%), 일반세대(9.4%)의 순으로 나타났다(χ^2 =58.808, p=0.000).

5)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49>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따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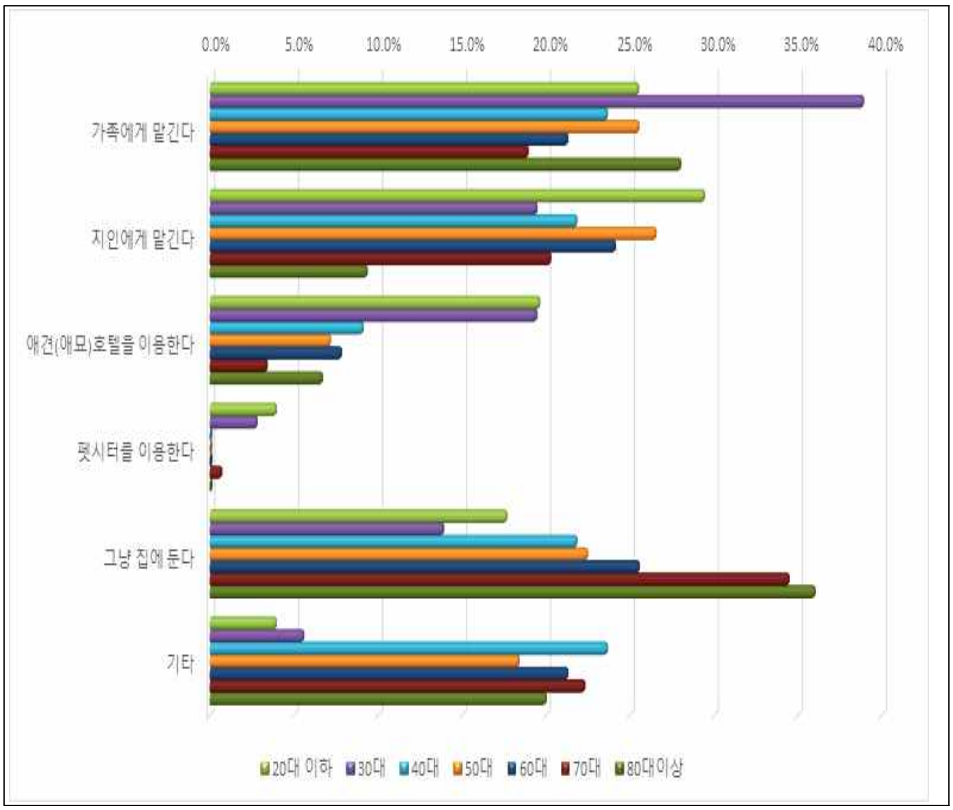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과 연령대를 교차분석 한 결과, '사료 및 간식비 지원'에 관한 욕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고, '의료비 지원'은 30대(66.7%), 40대(60.0%)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x^2=73.512, p=0.002).



<그림 2-50>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에 따른 보호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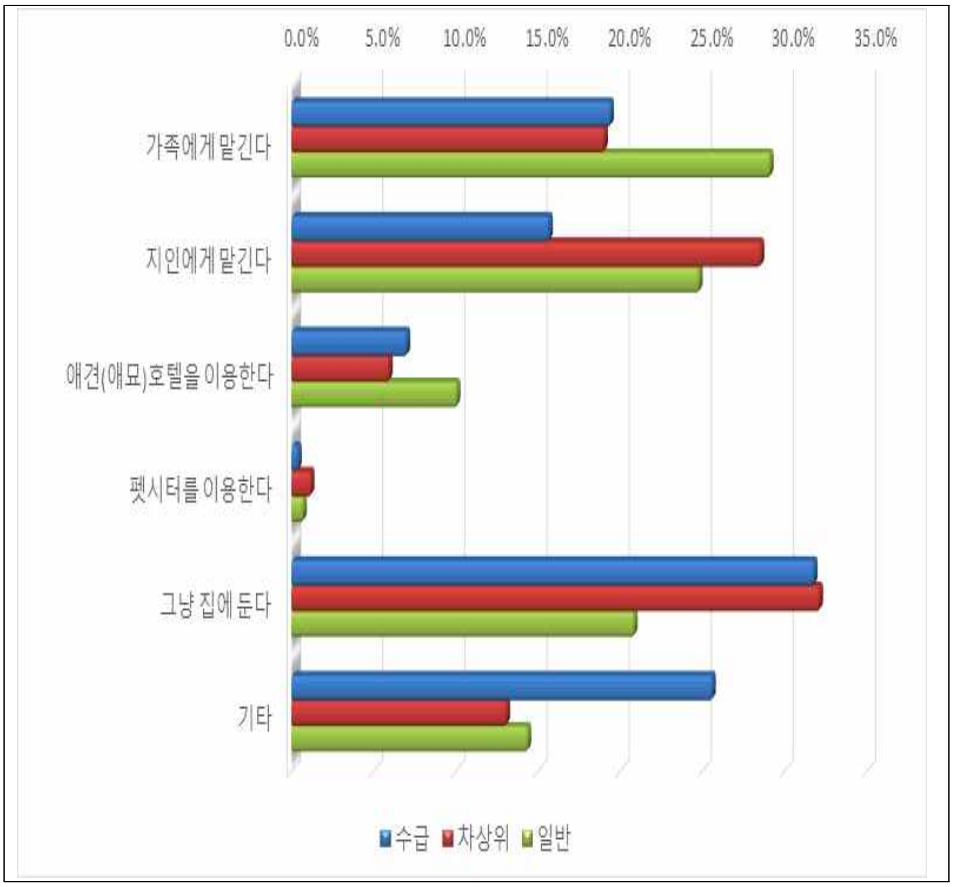
반려동물 관련 받고 싶은 지원과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반려동물 돌봄을 위해 받고 싶은 지원 내용이 보호구분 세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x^2 =44.298, p=0.000). '사료 및 간식지원'에 대한 욕구는 수급세대(37.2%)가 차상위세대(27.4%), 일반세대(18.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의료비지원' 욕구는 차상위세대(57.1%)와 일반세대(57.2%)가 수급세대(39.7%)보다 높았다.

6)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 방법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51>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 방법에 따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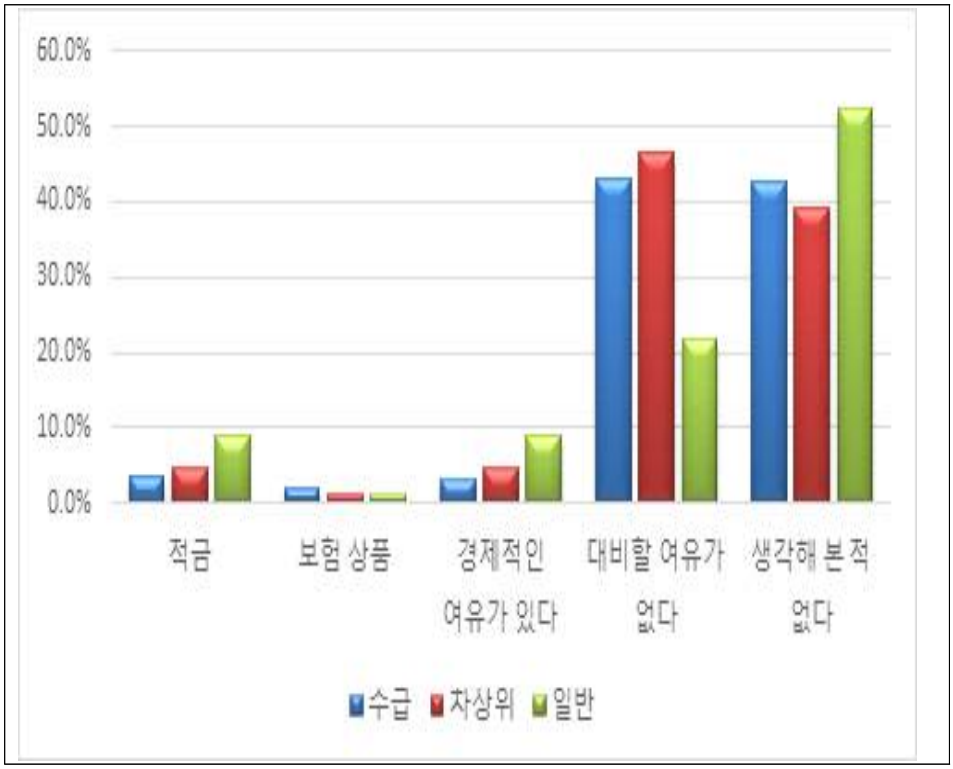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을 돌보는 방법과 연령대를 교차분석 한 결과, 장기간 외출 시 '애견/애묘 호텔을 이용' 하는 비율이20대 이하(19.6%) 및 30대(19.4%)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냥 집에 둔다' 는 70대(34.5%) 및 80대 이상(36.0%)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χ^2 =67.837,p=0.000).



<그림 2-52>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돌봄 방법에 따른 보호구분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 보호 방법과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장기간 외출 시 반려동물을 '그냥 집에 둔다' 는 비율이 수급세대(31.8%), 차상위세대(32.1%), 일반세대(20.9%) 순으로 나타났다(x^2 =33.021, 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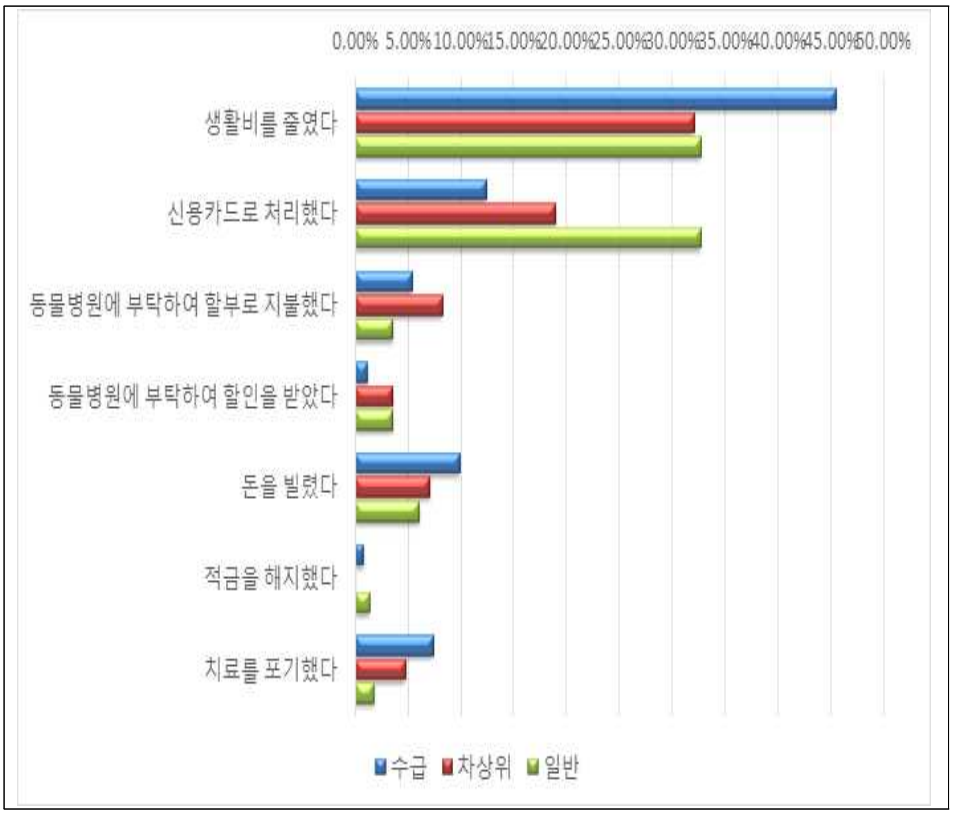
7) 반려동물 노후준비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53> 반려동물 노후준비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동물 노후 준비와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반려동물 노후를 '대비할 여유가 없는' 세대는 수급세대(43.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차상위세대(46.4%)와 일반세대(21.9%) 순으로 나타났다(x^2=40.654, p=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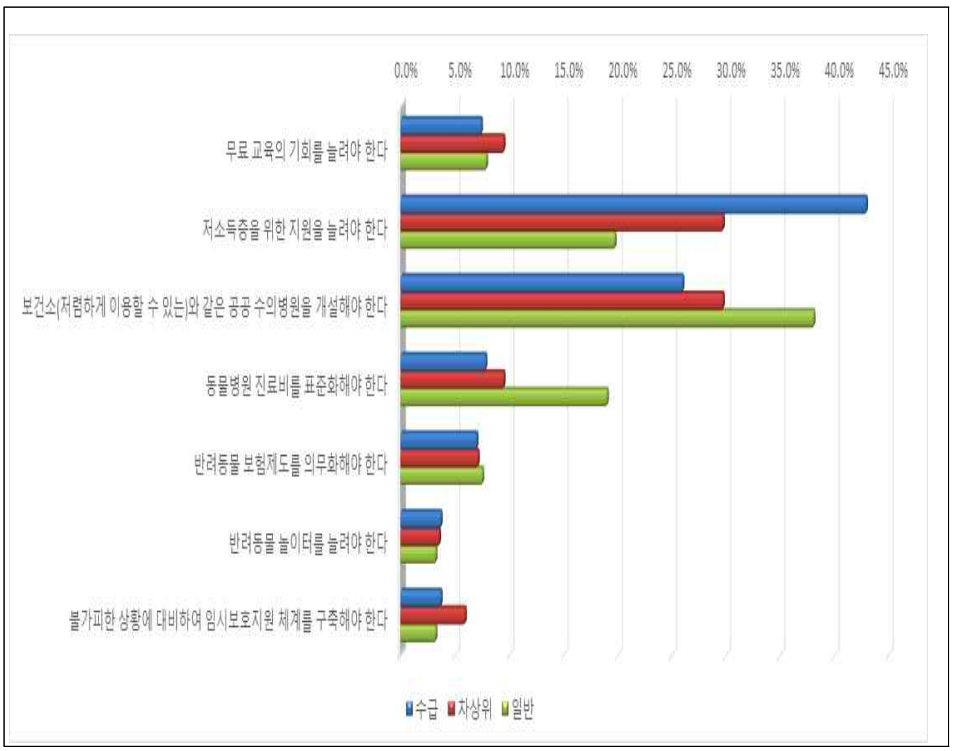
8) 반려동물 양육 시 어려움 해결방법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54> 반려동물 양육 시 어려움 해결방법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동물 양육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과 보호구분을 교차분석한 결과, '생활비를 줄였다'는 경우는 수급세대(45.5%), 차상위세대(32.1%), 일반세대(32.7%)순으로 나타났다(x^2 =51.820, p=0.000).

9)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욕구에 관한 교차분석



<그림 2-55>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 욕구에 따른 보호구분

반려동물 돌봄지원 및 제도에 대한 욕구와 보호구분을 교차분석 한 결과, 수급세대(43.0%)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에 높은 욕구를 나타냈으며, 일반세대(38.1%)에서는 '보건소(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와 같은 공공 수의 병원을 개설해야 한다'는 욕구가 높았다 (χ^2 =49.669, p=0.000).

10) 소결

본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인 취약계층의 주요 변수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을 모두 교차분석한 결과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내용내용만 보고했다. 그 결과 소득과 연령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실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이고 장애유무나 세대별 유형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의 방법적 한계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기에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은 교차분석의 주요 결과를 소개한 것이다.

반려견을 데리고 온 장소로는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은 경우가 42.3%로 가장 많았으며 애견분양가게에서 구입한 경우가 20.2%로 나타났다. 애견분양가게에서의 구입한 경우는 20대 이하(36.6%)가 높았고,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은 경우는 80대 이상(55.7%)이 가장 많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애견분양가게에서의 구입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려견 등록 여부는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단독주택(42.1%) 및 연립/빌라/다세대 주택(48.9%)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아파트(65.3%)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반려견 등록 비율이 낮았다.

등록을 안 한 이유로 잘 모른다(51.9%)가 가장 큰 이유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KB연구보고서(황원경, 2017)은 등록에 대한 필요성 느끼지 못함(33%),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16.6%), 의무/제재만 있고 혜택은 없어서(12.6%) 순이었고, 농림축산검역본부(2018)는 등록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49.7%),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하여서(31.4%), 동물등록방법 및 절차가 복잡해서(15.8%)였다.

반려견 중성화 비율은 53.2%이었으며 수컷(67.7%)이 암컷(45.3%)보다 높았다. 수급세대(46.0%)가 비수급세대(65.5%) 보다 낮은 중성화 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결과인 45.8%보다 높은 수치였다.

지난 1년 이내 반려견이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수급 및 차상위세대(76.3%)가 일반세대(81.5%) 보다 낮게 나타났다. 동물병원

방문 이유는 예방접종(31.3%)과 질병치료(21.0%)가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에서의 동물병원 방문 경험 77.8%와 비슷하였고, 방문 이유(중복응답)도 예방접종(59.6%), 정기검진(47%), 질병치료(34.1%), 상해치료(4.4%) 순으로 본 연구와 비슷했다. 반려견 연령에 따른 동물병원 방문이유를 살펴보면 예방접종은 2살 미만(82.9%)이 가장 높았고 질병치료는 10살 이상(37.0%)과 7~10살 미만(26.3%)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려견을 키우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병원비(23.8%)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인부부세대(45.5%) 및 한부모세대(47.7%)가 병원비 충당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독거노인(18.7%) 및 조손세대(17.6%)가 사료 및 간식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일반세대(14.7%)가 차상위세대(4.1%) 및 수급세대(4.0%)보다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의 외출 시 어려움을 호소했고, 수급세대(23.0%)가 사료 및 간식비 지출에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이내 반려묘가 동물병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2.9%였는데 이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의 60.2%와 비슷한 수치이다. 병원 방문 이유로는 예방접종(29.6%), 질병치료(18.5%)순이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중복 응답)는 예방접종(59.8%), 정기검진(47.1%), 질병치료(27.6%)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반려묘를 키우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위생관리(22.7%)와 병원비(20.5%)가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려동물 양육 관련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30.1%), 사료 및 간식지원(21.8%), 돌봄 용품 지원(11.8%),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10.8%), 돌봄지원(9.1%),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8.3%), 문제행동 교정훈련(8.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료 및 간식비 지원에 욕구가 높았고,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30대(66.7%)와 40대(60.0%)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수급세대는 사료 및 간식지원(37.2%)에 높은 욕구를 보였는데 동물권 행동 카라(2019) 연구에서도 소득 150만원 미만인 가구는 사료 및 간식비 지원의 욕구가 다른 집단 보다 높았다.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집에 둔다(26.8%), 가족에게 맡긴다(23.9%), 지인에게 맡긴다(21.7%), 애견(애묘)호텔을 이용한다(8.3%), 펫시터를 이용한다(0.7%)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70대(34.5%)와 80대 이상(36.0%)의 경우 외출 시 그냥 집에 둔다는 비율이 높으며, 수급세대(31.8%)가 외출 시 그냥 집에 둔다는 비율이 높았다.

반려동물의 노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자의 46.5%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33.8%가 대비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수급세대(43.0%), 차상위세대세대(46.4%), 일반세대(21.9%)의 순서로 반려동물의 노년기에 대해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돌봄 비용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해결 방법으로 조사 참여자의 37.7%가 생활비를 줄였으며, 이는 수급세대(45.5%), 차상위세대(32.1%), 일반세대(32.7%)의 비율로 수급세대가 차상위 및 일반세대보다 생활비를 줄인 경험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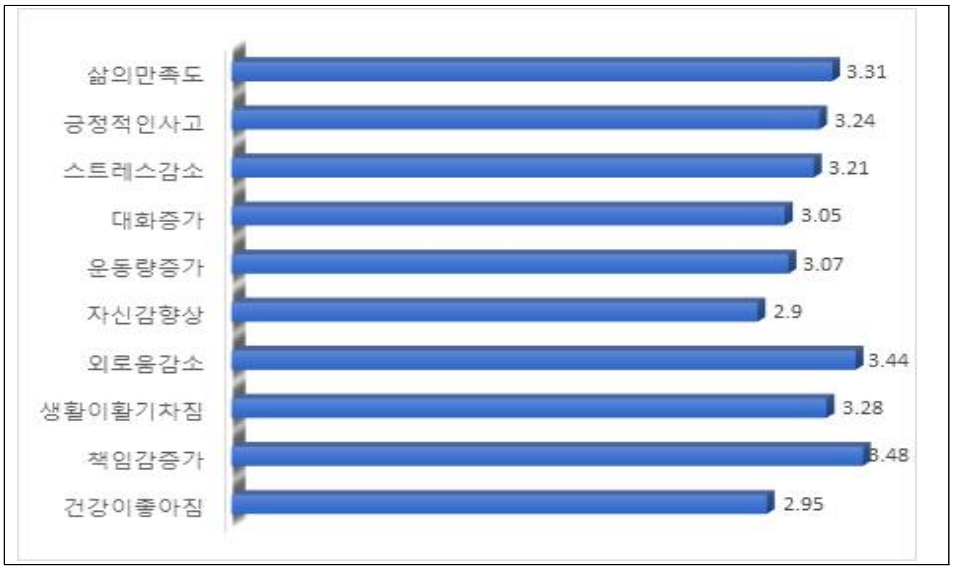
3.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1)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표 2-32〉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척도 신뢰도

구분	Cronbach' α	상관계수	삭제된 경우 Cronbach' α
삶의 만족도	.895	.666	.884
긍정적인 사고		.672	.883
스트레스 감소		.654	.884
대화 증가		.585	.889
운동량 증가		.588	.889
자신감 향상		.690	.881
외로움 감소		.611	.887
생활이 활기차짐		.742	.878
책임감 증가		.558	.890
건강이 좋아짐		.668	.883

본 연구의 연구진은 반려동물로 인한 반려인의 긍정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신뢰도(Reliability) 검증을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6보다 작으면 내적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표 2-3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반려동물로 인한 반려인의 긍정적 효과 척도 신뢰도는 .895로 신뢰도 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2-56>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반려동물로 인한 반려인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결과, 10가지 요소 중 책임감 평균이 3.48(SD=0.68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외로움 감소 평균이 3.44(SD=0.718)였고, 삶의 만족도 평균이 3.31(SD=0.771), 생활이 활기차짐 평균이 3.28(SD=0.816), 긍정적인 사고 평균이 3.24(SD=0.796), 스트레스 감소 평균 3.21(SD=0.901), 운동량 증가 평균 3.07(SD=0.972), 대화 증가 평균 3.056(SD=0.916), 건강이 좋아짐 평균 2.95(SD=0.967), 자신감 향상 평균 2.90(SD=0.959)순 이었다.

<표 2-33>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구분		N	%	평균	SD
삶의 만족도	그렇지 않다	16	2.6	3.31	.771
	그저 그렇다	67	11.1		
	그렇다	236	39.1		
	매우 그렇다	285	47.2		
	전체	604	100.0		

구분		N	%	평균	SD
긍정적인 사고	그렇지 않다	28	4.6	3.24	.796
	그저 그렇다	52	8.6		
	그렇다	271	44.9		
	매우 그렇다	253	41.9		
	전체	604	100.0		
스트레스 감소	그렇지 않다	46	7.6	3.21	.901
	그저 그렇다	57	9.4		
	그렇다	227	37.6		
	매우 그렇다	274	45.4		
	전체	604	100.0		
대화 증가	그렇지 않다	44	7.3	3.05	.916
	그저 그렇다	106	17.5		
	그렇다	229	37.9		
	매우 그렇다	225	37.3		
	전체	604	100.0		
운동량 증가	그렇지 않다	55	9.1	3.07	.972
	그저 그렇다	101	16.7		
	그렇다	197	32.6		
	매우 그렇다	251	41.6		
	전체	604	100.0		
자신감 향상	그렇지 않다	55	9.1	2.90	.959
	그저 그렇다	146	24.2		
	그렇다	208	34.4		
	매우 그렇다	195	32.3		
	전체	604	100.0		

구분		N	%	평균	SD
외로움 감소	그렇지 않다	12	2.0	3.44	.718
	그저 그렇다	45	7.5		
	그렇다	211	34.9		
	매우 그렇다	336	55.6		
	전체	604	100.0		
생활이 활기차짐	그렇지 않다	22	3.6	3.28	.816
	그저 그렇다	74	12.3		
	그렇다	222	36.8		
	매우 그렇다	286	47.4		
	전체	604	100.0		
책임감 증가	그렇지 않다	10	1.7	3.48	.685
	그저 그렇다	36	6.0		
	그렇다	210	34.8		
	매우 그렇다	348	57.6		
	전체	604	100.0		
건강이 좋아짐	그렇지 않다	52	8.6	2.95	.967
	그저 그렇다	142	23.5		
	그렇다	195	32.3		
	매우 그렇다	215	35.6		
	전체	604	100.0		

2) 소결

본 연구의 설문조사 문항 중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를 조사한 척도로 총 10개의 문항(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 운동량 증가, 자신감 향상, 외로움 감소, 생활이 활기차짐, 책임감 증가, 건강이 좋아짐)으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 α 값은 .895로 나타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10개의 문항 중 책임감 증가(3.48)가 높았으며 외로움 감소(3.44), 삶의 만족도 증가(3.31), 생활이 활기차짐(3.28), 긍정적인 사고(3.24), 스트레스 감소(3.21), 운동량 증가(3.07), 대화 증가(3.06), 건강이 좋아짐(2.95), 자신감 향상(2.90)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설문 문항 중 9개가 같은 동물권 행동 카라(2019)의 결과에서는 외로움 감소(3.77), 책임감 생김(3.72), 생활이 활기차짐(3.71), 대화 증가(3.52), 운동량 증가(3.51), 긍정적 사고(3.50), 스트레스 감소(3.50), 자신감(3.43), 건강이 좋아짐(3.43)의 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 결과의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낮았고, 순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차이분석

1) 인구학적 특성 집단 간 반려동물 긍정적 효과 차이 분석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에 있어 각 집단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test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다.

성별에 따라 반려동물 긍정적 효과는 남성(3.277)이 여성(3.162)보다 집단 평균이 높았다(t=4.154, p=0.42). 보호구분도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F=4.477, p=0.12). 일반세대(3.267)의 반려동물 긍정적 효과는 수급(3.150) 및 차상위세대(3.065) 보다 평균이 높았다. 장애인 세대와 비장애인 세대 간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도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F=8.540, p=0.04). 장애인 세대(3.242)가 비장애인 세대(3.087)보다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 효과의 평균이 높았다.

<표 2-34> 인구학적 특성 간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차이 분석

구분		N	평균	t or F
성별	여성	445	3.162	4.154*
	남성	159	3.277	
연령대	20대 이하	51	3.288	1.000
	30대	36	3.230	
	40대	55	3.225	
	50대	98	3.199	
	60대	141	3.243	
	70대	148	3.141	
	80대 이상	75	3.081	
가구형태	독거노인 세대	188	3.135	1.069
	노인부부 세대	61	3.350	
	조손 세대	19	3.157	
	한부모 세대	49	3.244	
	2세대 (부모와 자녀 거주)	216	3.196	
	1인 세대(청장년)	51	3.186	
보호구분	수급	242	3.150	4.477*
	차상위	84	3.065	
	일반	278	3.267	
장애	유	194	3.087	8.504**
	무	410	3.242	
장애등급	중증	101	3.051	.655
	경증	93	3.125	

*p< .05, **p< .01, ***p< .001

2) 보호구분 세대 간 반려견 지출 품목 비용 차이 분석

보호구분 세대 간 반려견 지출품목비용 차이분석은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반려견 지출 품목 비용을 보호 구분 세대(일반, 수급, 차상위)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반려견 지출 품목 비용에 따른 보호 구분 세대

간 차이분석 결과, ‘미용 및 관리용품비’가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였다 (F=7.665, p=0.01). 즉, 일반세대가 수급 및 차상위세대보다 반려견을 위한 지출 비용이 높았다. ‘의료비’도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보였는데 (F=3.297, p=0.38), 일반세대가 수급 및 차상위세대보다 의료비 지출 비용이 많았다. ‘총 지출 비용’의 집단 간 평균의 차이는(F=8.077, p=0.00), 일반세대의 반려견 지출 비용이 수급 및 차상위세대보다 높았다.

<표 2-35> 보호 구분 세대 간 반려견 지출 품목비용 차이

구분		N	평균	F
사료비	수급	217	52,412	2.549
	차상위	68	56,955	
	일반	221	62,162	
미용 및 관리용품비	수급	181	30,740	7.665**
	차상위	59	35,898	
	일반	201	43,355	
의료비	수급	144	42,496	3.297*
	차상위	56	60,714	
	일반	175	85,405	
총지출	수급	217	108,465	8.077***
	차상위	70	134,871	
	일반	224	168,587	

*p< .05, **p< .01, ***p< .001

3) 소결

반려동물의 긍정적 효과 10개의 문항 중 책임감 증가(3.48)가 높았으며 외로움 감소(3.44), 삶의 만족도 증가(3.31), 생활이 활기차짐(3.28), 긍정적인 사고(3.24), 스트레스 감소(3.21), 운동량 증가(3.07), 대화 증가(3.06), 건강이 좋아짐(2.95), 자신감 향상(2.9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3.277)이 여성(3.162)보다 높은 효과가 있었고, 일반세대(3.267)가 수급(3.150) 및 차상위(3.065)세대보다 높은 효과가 있었으며 비장애 반려인(3.242)이 장애가 있는 반려인(3.087)보다 효과가 있었다.

반려견 양육을 위한 총 지출은 수급세대(108,465원), 차상위세대(134,871원), 일반세대(168,587원), 총 평균 138,437원으로 나타났다. KB연구보고서(황원경 외, 2018)가 제시한 128,000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2018)의 96,000원 보다는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에서 보고된 145,000원보다는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반려견 양육을 위해 돈을 적게 쓰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

반려견 의료비 평균 65,241원[수급세대(42,496원), 차상위세대(60,714원), 일반세대(85,405원)], 사료비 평균 57,281원[수급세대(52,412원), 차상위세대(56,955원), 일반세대(62,162원)], 미용 및 관리 용품비 평균 37,180원[수급세대(30,740원), 차상위세대(35,898원), 일반세대(43,355원)]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자의 36.3%가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27.5%가 사료비 감당이 23.6%가 미용 및 관리용품비용이 부담된다고 했다.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비를 포함한 사료비와 관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의료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외(2018) 보고서에서 제시한 최근 1년 간 개 의료비를 보면, 정기 검진 평균 비용 24.3만원, 예방 접종 평균 비용 13.7만원, 질병 치료 평균 비용 33.2만원, 상해 치료 평균 비용 42.5만원과 본 연구 결과인 의료비 65,241원과는 차이를 보였다.

제3장. FGI 연구결과

제3장. FGI 연구결과

제1절. 반려인 FGI

<표 3-1>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 기호	나이	반려동물	경제상황	장애유무 (종류)	기타
A	72	반려견 수컷 6세	저소득	없음	
B	70	반려견 2마리 암컷 3세 8세	저소득	없음	
C	73	반려견 수컷 3세	저소득	없음	
D	51	반려견 수컷 5세 반려묘 2마리 수컷 1세 암컷 2개월	저소득	없음	
E	48	반려견 4마리	수급자	없음	우울증
F	49	반려견 2마리 수컷 1세, 암컷 7세	수급자	없음	

자료 수집은 2019년 12월 4일에 실시되었다.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FGI는 질적조사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고려사항을 준수하여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반 구조화된(semi-structured) 질문항목(표3-2 참조)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질문하고자 준비한 문항 외에 면접 중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거나 발견된 경우, 질문을 확장시켜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습득했다. 이후 녹취한 자료는 전사과정을 통해 자료로 구축했다. 본 연구를 위해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을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가 M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반려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적 성격의 조사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양육하

는 반려인들의 느낌과 경험들에 대한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서도 반구조화된 면접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반구조화 면접 질문 사용 시 연구자 자신의 성향이나 기존 문헌연구를 통해 얻은 선입관에 갇히는 오류 등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하였고,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더 깊게 듣고자 노력했으며 필요에 따라 질문을 추가했다. 또한 내용이 포화가 될 때까지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연구 분석과정에서는 본 사업을 진행해온 실천가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표 3-2> 반구조화된 면접질문

구분	질문항목
반려동물 소개	• 이름, 사연 등 •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된 시기와 계기는?
반려동물 양육관련	• 반려동물로 인해 좋은 점은? • 반려동물로 인해 나쁜 점은? •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어려운 점은? • 반려동물 양육정보 출처
반려동물 돌봄지원 경험	• 중성화 수술 지원 경험 • 자원봉사자 방문 경험
반려동물 양육관련 지원 욕구	• 비용부분 • 돌봄부분
향후 바라는 점은?	• 정부에 바라는 점 • 사회에 바라는 점

1. 연구결과

1) 반려동물 양육 특성

(1) 반려동물 양육 동기

□ 홀로 된 외로움 혹은 잃어버린 개에 대한 그리움

참여자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된 동기는 노부부가 살다가 배우자의 죽음으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거나 과거에 잃어버린 개에 대한 그리움을 채우기 위해서였다.

> 아저씨 돌아가시고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딸 집에 있는 강아지)두 마리 키우다 한 마리 우리 집에 왔지. (A)

> 어떻게 받았냐면 우리가 강아지를 15년 키웠어요.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데리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을 안 하고 앉아만 있으니까 딸이 어느 집에서 키우던 애를 갖다가 이사 간다니까 자기가 달라고, 자기가 팔라고 해서 사다가 갖다 줬어요. (C)

□ 내 편이 되어 준 강아지를 좋아하게 됨

참여자들 중에는 지인이 키우던 강아지를 자주 보게 되고 그 강아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는 경험을 하면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우연찮게 아는 언니네 강아지가 누가 날 이렇게 하니까 막 짖어대는 거야.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E)

□ 자녀를 위함

참여자 중 자신의 의지보다 자녀를 위하여 반려동물을 키우는 계기가 된 경우도 있었다. 이 참여자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막상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서 자신이 더 많이 좋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 하였다.

우리도 처음엔 안 키웠는데, 처음엔 안 키우려고 했어요. 딸내미 때문에 키우게 됐어요. (F).

(2) 반려동물 양육 경로

□ 돈을 주고 분양 받음

참여자들 중 가족 구성원 혹은 자신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돈을 주고 강아지를 분양을 받아 키우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걔(딸)가 예전부터 강아지 키우고 싶다는 걸 절대 안 된다고 내가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까○(강아지)를 분양해왔어요, 비싸게, ... 분양만 하는 데가 있어서 XX동까지 가서 새끼 강아지들 분양하는 데 있잖아요. ... 80만 원이요. (E).

분양받았어요. ... 40만원 (F).

□ 떠맡게 됨

가족이 기르던 반려동물을 임시로 맡았다가 키울 수 밖에 없기도 했다.

며느리가 배에 수술을 했어요. 위장 수술을 하면서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수술하고 나서 근 20일 넘게 나오니까 어찌했든 몸이 불편하다고 키우라고 해서 키웠어요. (B)

한편 유기동물을 돌보다 직접 입양한 경우도 있었다.

> 동네에서 돌아다녔는데 학교 주변이니까 애들이 이제 뭐, 햄버거랑 이런 거 먹으면서, 소시지랑 먹으면서 던져주니까 그걸 받아먹느라고 애들 따라만 다니고 하는 것을 누가 주워서 이 강아지 주인이 있을 텐데, 옷은 입혔어요. 옷은 입혔는데 때가 자질자질하니까 그래서 이걸, 차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하니까 박스에 넣어서 묶어놓고 주인 찾아가기를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거두게 된 거예요. (D)

□ 오랜 시간동안 지켜봤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서 데려옴

참여자들 중 지인 혹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가족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지켜보다가 직접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키우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 우연찮게 아는 언니네 강아지가 누가 날 이렇게 하니까 막 짖어대는 거야. 내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언니네 강아지를 이렇게 만져봤죠. 애가 애교부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상의했죠. (E)

> (강아지가) 처음 5살 때 우리 둘째 딸 집에서 왔어요. (A)

2) 반려동물 양육 관련

(1)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좋은 점

□ 나를 위로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교감하는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좋은 점은 주로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 중 대부분은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만족감을 표현했다.

어디 갔다 오면 반겨주고, 착하고 예쁜 짓만 골라하고, 나가면 남에게 귀여움 받고, 귀여움 받는 짓만 해요. (A)

말을 같이 하니까, 할 사람이 없는데, 늙어서 할 사람이 없는데 개하고 말을 많이 하잖아... 밥 먹자, 뽀뽀하자, 자자, 목욕하자" 그걸 개하고 다 하잖아요. 나는 좋아요. 같이 산책도 하고. (C)

말을 못한다 뿐이지 주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의중을 다 읽고, 다 해요.(D)

□ 자식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반려동물

참여자들은 반려동물로 인해 매우 큰 기쁨과 즐거움 뿐 아니라 자식이 하지 못하는 행복감을 받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자식은 그런 기쁨을 못 줘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 아빠한테 얘네들 만큼 기쁨, 웃음을 못 줘요.(D)

(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

□ 반려동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름

반려동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가 많았는데 대부분 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안 좋은 것은 좀 나가면 같은 강아지끼리 보면 좀 저기(사나워져요) 해요. (A)

3년 된 것이 이불에 똥을 싸놔요. 그리고 지가 먹어....먹어서...때려 놓고 왔어요.(B)

안 좋은 것은 하도 둘이 싸우고 짖어대고,,, 작고 그런 데 그렇게 짖어대요. (F)

그런데 얘가 얼마나 맞고 자랐는지,,, (중략) 지금도 안으려면 뒷걸음질 치고, 4년 됐는데도 그래요. 자기가 풍당 뛰어 올라오지 내가 안으려면 뒷걸음질을 쳐요, 지금도 그래요. (중략) 그리고 얘가 뭘 하면 때렸는지 어릴 때는 이것도 물어뜯고 저것도 물어뜯고 하잖아요. ,,, 집에서 놀지도 않고 부처님이에요. 예예, 집에만 오면 돌부처예요. (D)

(옆집) 할머니한테 미안하죠. 할머니가 한 번씩은 잔소리를 하세요. (중략) 노인분이 자다가 새벽에 강아지고 짖어대면 깨고 잠을 못 주무세요. (E)

□ 나의 죽음으로 인해 홀로 남겨질 반려동물에 대한 걱정이 많음

나이가 많은 참여자는 함께 사는 반려동물보다 자신이 먼저 죽게 될 경우를 떠올리며 반려동물의 돌봄을 걱정하였다.

뭐가 걱정이냐, ,,, 죽으면 걔는 어쩔까,,, 아직 3살밖에 안 됐는데 10년은 더 살 거잖아. 내가 10년 못 산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와요. (C)

□ 잘못된 급식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건강이 나빠짐

참여자들 중 반려동물을 돌봄에 있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는 등 올바른 양육방식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안 좋은 점은 이번에 중성화 수술하면서 검사하면서 간수치가 높다고 해서 처방, (중략) 사람이 먹는 것은 주면 안 된다는,,,(E)

□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장기간 외출도 못함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며칠씩 집을 비우지 못하다보니 친척들과의 왕래를 하지 못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한 휴가도 못가는 경우가 있었다.

> (휴가나 친척집에) 나는 안 가요, 일절 안 가요, ,,, 못 가죠, 한 마리 같으면 데리고 가는데 두 마리면 못 가요, 놀러도 못 가요, (B)

이와 같은 소위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으로 인해 이웃과 갈등을 겪는 사례, 자신의 휴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례 등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사회화교육이나 배변 훈련 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3) 반려동물의 돌봄 관련 정보 출처

반려동물 돌봄관련 정보를 얻는 출처는 대부분 복지관이나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대부분 M 복지관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에 참여했던 반려인이기 때문이다.

□ 복지관에서 정보를 얻음

> 여기 복지관에 와서 (E)

> 우리 OO복지관도 처음 그거 선생님 와서 알려줬어요, (B)

□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얻음

>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 동물농장 보면 (B)

4) 반려동물 돌봄지원 이용 경험

□ 산책 봉사자 프로그램

M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된 산책 봉사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학생들이 와서 장난감을 주니까 너무 잘 갖고 노는 거예요. 아가씨가 와서, XX대학 대학생 두 분이 오는데 장난감 세 개인가 갖고 왔더라고요. 소리 나는 것, 인형, 동그란 것. 아주 그걸 던져주면 OO가 물고 와서 또 손에 놔주고 또 물고 오고 계속 그것만 하자고 하고 그래서 좋고요. 또 산책을 해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아주 알아요. 산책을 시켜주고 가면 울어요, 엉엉. (B)

> 우리 XX는 학교 선생님들이 오면 (자원봉사)선생님 입이 하나도 안 남아나, 빨아서. (자원봉사)선생님이 얼마나 좋은지 입을 대주고 있어요. 딴 선생 같으면 안 그럴 텐데. (C)

5) 반려동물 양육관련 지원욕구

(1) 비용 분야

참여자들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비용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의료비였으며 이외에는 사료비, 미용 등이었다.

□ 많은 돈이 요구되는 의료비

> 작은 애가 3개월이니까 3개월만 있으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뭐, 50프로만 대줘도 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예방접종도 절반만 대줘도 (D)

보험을 들려고 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강아지 보험도 엄청 비싸고 또 제한이 있더라고요. 1년 지난 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다 큰 애들이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제 된다면 애기가 조그만 애가 하나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치료를, 아프게 되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D)

예방접종을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A)

□ 가장 기본이지만 부담이 되는 사료비

그러면 어쨌든 먹이고 그런 것은 글쎄 우리가 어차피 거두는 거니까 걔네들 살아 있는 동안 먹는 것은, 내가 먹으면서 걔네를 굶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D)

저희도 사료 값이 많이 들어가요. 저도 .... 돈 없어요. (F)

저 같은 경우는 큰 사고를 당해서 돈 나오는 것이 수급비밖에 없으니까 (중략)(사료를) 잘 먹다보니까 한 달에 드는 비용이,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가격이 또 올라서 한 네 봉지를 사거든요. 세 마리가 네 봉지를 먹고 조금 남아요. (E)

우리 OO가 사료를 안 먹어요. 비싼 것을 사다가 먹이잖아요. 1키로에 2만원이래. 내가 오죽하면 너는 나보다 더 많이 먹는다, 나는 밥 하루에 한 끼도 먹고, 반찬도 없는 밥을 먹는데 그걸 먹여야 먹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말은 굶기라는데 나 먹고 어떻게 굶겨, 먹여야 하잖아요. (C)

□ 미용비

미용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B)

(2) 돌봄 분야

참여자들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돌봄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은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주는 서비스와 임시보호서비스였다.

□ 반려동물을 산책시켜주는 서비스

(반려견 산책 봉사자가) 없으면 못하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데리고 나가요. 일하죠, 봉사하죠. 그러니까 못 데리고 나가요. (중략) (β)

□ 임시보호서비스

(휴가나 친척집에) 나는 안 가요. 일절 안 가요. ... 못 가죠. 한 마리 같으면 데리고 가는데 두 마리면 못 가요. 놀러도 못 가요. (β)

6)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사회에 대한 바람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사회에 대한 바람을 묻는 질문에는 동물병원의료비 정찰제, 동물학대 및 유기방지법 강화 등을 비롯한 동물복지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었다.

(1) 정부 차원

□ 동물병원 의료비 정찰제

저희 나라가 외국사례는 모르겠는데 병원비가 병원마다 다 틀려요. 새로 24시간 뭐가 생겼는데 강남에 하나 있고, 홍대 있고, 세 번째로 생긴 거예요. 저희 애가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갈 생각도 안 해요. 너무 비싸다고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이 동네에서 제일 싼 곳이 'XX병원' 이에요. (E)

□ 유기방지법 강화

강아지 유기견은 법이 바뀌었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 벌금을 내야돼요. (F)

일단 먼저 유기견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키우다가 버리면 그걸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고하는 시스템도.. (E)

□ 길고양이 번식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필요

아파트 단지들 보면 길고양이들이 많아요, 버려진 애들이. 그게 다 솔직히 집에서 기르던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자기 자립해서 먹는 게 없어요. 누군가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이러니까 솔직히 집에서만 안 기른다 뿐이지,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걸 잡아서라도 중성화를 시키고 내놓는다면 또... (정부가) 그걸 (중성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D)

그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개 도박하는 그것도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하더라고요. (F)

(2) 사회 차원

□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인식 변화 필요

온 국민이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동물도 가족인데 학대하지 말고. (A)

동물을 학대하지 말고 말 못하는 짐승도 다 알아먹으니까 (B)

□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중도덕

제발 다니면서 변들 좀 ... 나는 다니면서 남의 것도 주워 담는데 어떻게 변을 누고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C)

이 외에 본 연구에서 발견한 특이한 사항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이 가난함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실에 대한 편견을 힘들어 하는 것이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

수급자가 강아지 다 키운다고 그거 나왔는데 나 강아지 밥 먹이는 거 겁나요, 수급자인데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C)

그런 편견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수급자라고 해서 강아지를 (키우지 말라고 하는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 버리는 경우는 더 많아요. 차에 실어서 놀러가서 버리는 경우 많아요. 수급자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픈 사람들이고, 강아지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버리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오히려. (D)

수급자고 뭐고 편견 없으면 좋겠고, 편견 있으면 안 되지 (A)

수급자는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봉사를 많이 해요. OO복지관에서 봉사를 세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봉사하고 강아지 데리고 나가면 노령 연금 타고,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고 강아지 다 준다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어요. (B)

2. 소결

본 FGI 참여한 반려인들은 M사회복지관의 반려동물 돌봄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모두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였지만 동물등록, 접종, 치료, 돌봄 등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있었다. 그러나 반려견의 의료비 등 반려동물 돌봄 비용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올바르게 보살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려동물로 인한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반려동물들의 소위 '문제행동'에 대한 것들이 제시되어 반려동물의 사회화교육이나 문제행동 교정 프로그램은 물론, 반려인들의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 중 M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반려동물 산책봉사자 프로그램을 이용한 반려인들은 큰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본 서비스의 지속을 원했다. 이외에 동물병원의료비 정찰제, 동물의료보험, 저소득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등 국가나 사회 차원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한편, 조사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자신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해 비용을 들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타인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돌봄지원 정책시행과 서비스 제공 시, 사회적 편견이나 낙인을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제2절. 사례관리자 FGI

〈표 3-3〉 연구참여자 정보

참여자 기호	소속기관	부서	경력	기타
A	S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1년6개월	
B	Y 종합사회복지관	사례지원팀	10년 이상	팀장
C	D 구청	복지정책과 사례관리	10년 이상	고난도 사례관리
D	M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10년 이상	
E	J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제공	10년 이상	

〈표 3-4〉 반구조화된 면접질문

구분	질문항목
소개	• 소속기관 • 담당부서 및 업무, 경력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반려동물	• 업무현장에서 반려동물 관련 변화 경험 • 사회복지실천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돌봄 현황	• 대상자 및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돌봄 현황 • 참여자의 의식이나 태도 변화
반려동물관련 사례 경험	• 반려동물과 직접 관련된 사례 경험 • 어려운 점
제안	• 일반적 제안 • 사회복지실천 내에서 제안

1. 연구결과

1) 참여자 소개

본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구청(1명)이나 종합사회복지관(4명) 사례관리 담당자들이었으며, 경력은 1명(1년 6개월)을 제외하고 대부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회복지사들이었다. 이중 3명은 자신의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를 직접 경험했으며, 2명은 관련 경험이 없었다.

2) 사회복지실천 현장과 반려동물

(1)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려동물관련 변화에 대한 경험이나 의견

연구참여자들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련동물과 관련한 경험의 대부분은 반려동물을 양육,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웃과의 갈등 부분이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 중 자신의 이동 도구를 활용하여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 지역사회 주민간의 갈등

> 반려동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중략) 정확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을 하느라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변의 민원들,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소변을 그 동네 아무 데나 한다든지 아니면 사료 같은 것을 줄 때 고양이들이 몰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 (지역주민들이)쥐약 같은 것을 놓고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고 청소했는데 또 다시 고양이 키우면서 발생된 문제도 있었고요, (B)

주변 환경 이런 거를 되돌아 봐야 하는데 고난도 사례가 올라오는 대상자들은 예를 들어 지적 장애라든가 본인도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C)

영구 임대 아파트는 작잖아요. 작은 데 큰 개를 키우면서 풀어놓고 키워서 그 개가 지역 주민을 물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 신고가 이뤄지고 싸움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E)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함

저희 임대 단지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전동스쿠터에 강아지 한 마리씩 혹은 바스켓 앞에다 (반려동물을) 태우고 다니세요. 그래서 견사모,,,, 견사모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가지시더라고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끼리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A)

(2) 사회복지실천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연구참여자에게 사회복지사들 중 사회복지실천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를 알아보았더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50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A)

저는 긍정적인 것은 10퍼센트 정도 답변할 것 같고 나머지는 부정적일 것 같아요, 90퍼센트.(B)

저희는 많이 접하는데 거의 부정적인 것이 많았고요. 한 5퍼센트 내외일 것 같습니다. (C)

3퍼센트, 나머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D)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는데 좀 시선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 계에서 온도 차이가 심한 것 같아요.(중략) 제가 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5퍼센트 미만일 것 같습니다. (E)

(3)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에 대한 의견

연구참여자들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에 대해 돌봄 교육과 지원금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교육

제가 사례관리 사업 거의 11년 정도 했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이) TV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민원인이나 소지가 될 많은 지역 분들은 낮 시간대 TV를 많이 보는데 낮 시간대 프로그램이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 '세나개' 라든지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치료한다든지 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 내에서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가 많지 않지만 지역 사회 주민이나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끔씩 봉사자분들과 간담회 때 얘기해 보면 예전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왜 키워?'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최근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양육으로 인한 문제가 더 많이 논의, 더 많이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아지 짖거나 고양이 같은 경우도 저녁에 울음소리가 약간 애기 울음처럼 소리가 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 호소하는 문제가 더 많은 같아요.(B)

□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지원금 필요

만약에 반려동물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면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저소득계층에서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외국 사례처럼 반려동물의 수나 반려동물의 종류에 맞게 보조금을 추가로 책정해서 지원해준다면 그 지원금을 저희가 별도로 도입, 기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분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활용해서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B)

□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변화

취약 계층에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구성되는 사회적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취약 계층에서 실질적으로 반려동물에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반려동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반려동물 관련된 보호법이 왜 그런지 잘 알려준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D)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비슷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강아지 짖는 것이나 그런 문제요.(B)

3)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돌봄 현황

(1) 대상자 및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돌봄 현황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한 대상자 및 지역주민들의 반려동물 돌봄 현황은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점들과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점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잘못된 양육방법과 반려동물을 대하는 태도 등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대상자들

이 외롭게 홀로 살다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새로이 가족이 생기게 되면서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또한 이들은 반려동물의 양육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된 양육방법을 적용하면서 반려동물과의 긍정적인 역동이 생기게 되어 삶에 활기가 생겼다.

①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점들

□ 잘못된 급식과 사료 관리 못함

고양이를 집에서 양육하면서 올바른 양육 자세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고양이 소변이나 식사를 정확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걸 못하시고 아무 데나 사료도 이불 속에 넣고, 고양이가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장롱 뒤에 넣고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다시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었고요. (B)

어르신이 키우시는 강아지였는데 목욕이나 미용이나 위생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옛날처럼 사람이 먹는 밥 먹이고, 밥 주면 알아서 큰다는 개념으로 생기는 문제점들 (B)

개를 너무 많이 키워서 개 배설물을 잘 처리하지 못하셔서 (E)

□ 흡연으로 인한 반려동물의 건강이 나빠짐

흡연을 하는 어르신이었는데 강아지 옆에서 흡연을 하니까 강아지 건강도 안 좋아져서 기침을 하고, 강아지 털에서도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기도 했고요.(B)

□ 제대로 훈련하지 못함으로 인해 지역주민에게 위협이 됨

영구 임대 아파트는 (집 평수가)작잖아요. 작은 데 큰 개를 키우면서 풀어놓고 키워서 그 개가 지역 주민을 물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경찰신고가 이뤄지고 싸움이 나는 케이스가 있었고요.(E)

②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들

□ 가족이 된 반려동물로 인해 외로움 감소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면서 본인의 외로움이 감소됐고, 그리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 조금 가족 같은 느낌이었다는 내용에 많았고요. (B)

□ 반려동물 양육 방법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그분들은 대부분 독거 어르신이었는데 어르신들이 양육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TV나 거의 대부분 TV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본인들의 양육 방식을 갖고 키우는데 정서적으로나 강아지와의 역동관계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B)

(2) 참여자의 의식이나 태도 변화

연구참여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 경험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상자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생활이 대상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대상자들을 사례관리를 할 때 대상자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역할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 실천 현장 경험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상자를 이해하게 됨

사례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영구 임대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끼리 네트워크가 은근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 이걸 문제로만 봐야 할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변화까지 (E)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자라서 (개를) 항상 밖에서만 키우는 것을 봤거든요. 저도 성인이 돼서 서울에 왔는데 '왜 집안에 반려동물 그런 게 있지?' 정서에 맞지 않았던 거죠. 제가 사례관리를 하니까 이분들에게는 (반려동물이) 가족이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취약 계층들이거든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수급비 받아서 한 사람 키우는 몫이 들어가잖아요. 병원비며 먹이를 다 줘야하는데 그분들은 정서에 맞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면 이해할 것 같아요.(C)

반려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는 반려견을 키워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반려견을 키우면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인식이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강아지 입양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인에게 얻었고 숍에서 사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지인들에게 공짜로 얻어서 예방접종 같은 것도 잘 모르고 그냥 줬으니까 한 달에 1, 2만 원 사료 값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 키우다 보니 정이 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 얘를 키우고 있더라, 내가 얘를 위해서 살고 있다는 분들이 많아서 필요한, 복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A)

□ 반려동물을 직접 키우게 되면서 대상자들을 이해하게 됨

제가 재가복지사업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동물 키우는 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제가 동물을 키우기 전까지는 문제 중심으로 봤으니까 (E)

□ 사례관리 시 반려동물을 포함하여 클라이언트의 변화 이끌어 냄

관점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반려동물에게 관점을 둘 것인지, 대상자에게 관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서 예

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보면 동물에 대한 학대를 보더라도 지역 사회복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례관리자 입장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개입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동물이 학대당하지 않게 어디 보낸다든지 이런 역할보다는 오히려 클라이언트 변화시킨다든지 그 역할에 초점이 맞혀지는 것 같아요. (B)

4) 반려동물관련 사례 경험

(1) 반려동물과 직접 관련된 사례 경험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 경험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대한 욕구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역 자원 연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반려동물 관련된 프로그램과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면서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반려동물로 인해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표면에 드러나게 되어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독거 어르신들이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해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보는 대상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역 자원 연계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처음에 구청장님이 3년 전에 방문하실 때 배설물 냄새가 심하고 잘 치우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OO재단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복지관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보자는 취지로 해서 진행된 건데요. (중략)여러 가지 활동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D)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 드러남

실제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통해서 처음에 1차 년도에는 기관 안에서 진행했고, 2차 년도에는 OO구에 있는 임대 아파트 중심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을 거점으로 진행했는데 여러 가지 활동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D)

□ 반려동물로 인해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표면에 드러남

처음에 어르신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유일한 가족인 개가 있었거든요.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때문에 (도움을 찾게 되었어요) (E)

당사자들이 위생이라든가 반려견에 대한 문제점을 본인들이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본인들이 가족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생문제가 되고, 주변 환경 이런 거를 되돌아 봐야 하는데 고난도 사례가 올라오는 대상자들은 예를 들어 지적 장애라든가 본인도 관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반려견이나 이런 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C)

□ 가족인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책임감이 생김

그분도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한 달 동안 입원해 계실 때 강제로 본인이 (강아지)OO이를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가족보다, 자기 몸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강제로 퇴원하셔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려도 (집에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돌봤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아, 정말로 가족이구나!' (C)

제가 사례관리로 만나고 계신 분이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살 시도를 하셨었어요. 자살 시도를 했는데 자살 시도를

하고 병원에서 깨어나서도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병원에서 얼른 나와서 강아지를 돌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나와서 계속 사례관리를 하는 중에서도 내가 죽지 못하는 것은 반려견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많이 하고 계시고, 지지를...(A)

□ 반려동물을 키우는 대상자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됨

인내심하고 관심하고, 그분이 뭐가 가장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제도적 접근 쪽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그분하고 소통으로 열어놓은 거죠. (C)

결론적으로 저도 반려동물을 키워서 그런 시각이 있고, 현재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님도 같은 시각이거든요. 같은 시각이니까 어르신을 다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오히려, 가족들은 어르신이 입원해 있는 동안 제일 먼저 (반려동물을) 안락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르신과 같이 협의해서 안락사를 막고 계속 키울 수 있게 지원한 것들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이었는데 당사자와 같은 시각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E)

(반려동물)OO이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요양사가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이 연계가 돼서 그분이 OO이를 잘 전담하고, 요양사님을 또 복실이가 잘 따랐어요. 그러면서 삼박자가 잘 맞은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고, 요양사도 그렇고, OO이가 가족이 되면서 요양사님이 가족처럼 정말로 했는데... (C)

⑵ 어려운 점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클라이언트의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돌봄, 급식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서비스 거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의 미비로 인해 사례관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공공기관의 부서에서 일관적이지 못한 행정 처리로 인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의 돌봄을 도와줄 지역 자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연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당사자의 인식, 고집, 장애, 서비스 거부 등으로 인해 사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저희가 도와드리고 당사자도 설득을 하는데 당사자들이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적 장애이니까 외부인이 오는 것을 거부하는 상황인거죠. 저희가 (그 집에)갈 때마다 변화도 없고, 뭔가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거부를 하지만 (집에 물건들이)너무 발 디딜 틈 없이 당사자들이 인지를 못하니까 너무 안타깝죠. 저희는 그래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요. (C)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나는 반려견을 잘 키우고 있다' 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 반려견의 미용 상태, 청결상태, 관리 그리고 사료를 제때 주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비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A)

강아지 OO이가 거의 집안에만, 손톱, 발톱을 수년간 안 깎았고, 병원을 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사례관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었어요. 동물병원에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혀줄 수 없다. ... 그게 좀 애로사항이었어요. 이력이 없으니까 안 받아주는 것. 그리고 운동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OO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뭐라고 하죠? 생기가 없고, 먹이 주는 이런 것, 사료를 당사자가 언제 줘야 되는지 이런 시간관념이 없이 본인이 밥 먹던 것 주고, 제때 관리가 안 됐던

부분이 참 힘들었었어요. 저희가 볼 때는 어찌됐든 사람은 아니고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인식을 저희가 못 바꾸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C)

사실 당사자분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사람 먹이는 것 안 먹여야 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저희 어르신은 본인의 몸이 힘들고 불편하고, 이렇게 하다가 갈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이 개도 편안하게 그냥 먹고 싶은 것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나랑 비슷하게 가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 당사자의 인식이.. 그 개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저도 일정부분 내려놨지만, 나이가 어렸는데도 그렇게 키우셨다면 좀, 저는 약간 학대로 봤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제도화 되려면 당사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많이 도와주거나 아니면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고요. (E)

그분이 장애가 2급이신데 그분이 조현병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관리가 안 되니까 수시로, 우울증까지 동반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한 거죠. 이걸 어떻게 방법을 못 찾았잖아요. ... 그런데 당사자가 인식을 못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개선책은 없더라고요. (중략) 공권력을 활용해서 강제로 가서 위생환경 정리를 한 번 했었어요. 동(찾동 사례관리)하고 같이 협력해서 복지관하고 했었는데 2, 3일 지나니까 배뇨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니까 또 집안이 냄새로 배어서 위생환경이 전 상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걸 강아지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분에게 정서적으로 가족인데 저희가 강제 분리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심신 미약 상태인데, 남편이 구치소에 가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은 미성년자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분을 책임져 줄 사람, 지지체계가 없는 분이니까 결정권이 저희한테 없는 거죠. (C)

□ 제도적으로 반려동물을 위한 사례관리 예산 사용이 허용되지 않음

사례관리를 하면서 OO시에 한번 회의를 갔는데 사례관리 사업비가 구마다 천 몇 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구비, 시비도 있기도 한 데요. 한 사회복지사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반려견에 사례관리 사업비를 써도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 지침에 없거든요. 외부 자원만 연계를 하거나 서비스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C)

□ 부서, 사람마다 다른 행정 처리

같은 문제인데도 같은 구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대상자 입장에서 잘 하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민원 때문에 해결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떤 부서는 제도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부서는 제도 밖에서도 자원 연계가 가능한 부서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C)

□ 인적자원 연계와 지속성의 어려움

처음에 자원봉사를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D)

반려동물에 대해서 당사자가 가족으로 보고 있어서 그것을 사례관리자가 그 시각을 갖고 지원을 하려고 해도 사실 기관에서 허락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용인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그런 기관은 아니어서 외부 자원을 연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풀들이 없으니까요. 자원봉사 풀을 저희가 믿고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풀이 아예 지금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례관리자가 다 뭘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구하기가 어렵고, 연계하기가 어렵고, 금방금방 연계가 끊기는 것이 어려웠고요.(E)

5) 제안

(1) 일반적 제안

연구참여자들이 반려동물과 관련한 일반적 제안은 사회복지사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 모두에게 동물복지의 필요성과 인식을 개선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가 지원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 동물복지의 필요성, 인식 개선

사회복지사나 지역 주민에게 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루아침에 인식개선이 안 되니까 점차적으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교육을 해 나가면 그 아이들이 5, 10년 후면 많이 사회가 약간, 아이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변하잖아요, 가족도. (C)

교수님들조차도 매개복지, 동물을 매개로하는 복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인식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축산학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부터 다 인식개선이 돼야 해요. (D)

□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지원

동물 의료비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키울 때 돈 가장 많이 드는 게 병원비잖아요. 그걸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있어도 수월할 것 같아요. (E)

(2) 사회복지실천 내에서 제안

연구참여자들은 여러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문기관 설립, 전문 프로그램 및 국가 보조금의 지원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와 사회복지 학계 변화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관료제적으로 정부 혹은 기관의 상부조직의 지침으로 인한 위에서부터의 변화보다는 일선에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관점의 변화의 중요성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관, 프로그램 및 보조금 지원

2년 차 사업을 마감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일반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대학생들 그리고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흥미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D)

사회복지에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을 접목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시나 정부차원에서의 별도 기관이나 별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을 사회복지 계에 두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중략)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도 개입이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역량을 끼칠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되고요. 아마도 이건 인식을 바꾸더라도 별도의 기관이 생기지 않는 한은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B)

저는 복지 쪽을 접근한다면 기관의 변화는, 현장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관의 변화를 빨리 변화할 수 있는 것은 톱다운이죠... 톱다

운인데 관장님들을 설득하려면 관이 관심을 가져야해서 (중략) XX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들이 복지관이나 민간이랑 민관이 같이 해서 사례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문제 사례라는 호더 사례라든지,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이 프로그램화 되어서 모델링화 되면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톱다운 형태로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 쪽을 통해서, 저희들은 공감하고 있지만 밑에서의 변화보다 관에서, 보조금을 주는 기관들에서 하는 게 변화하는 게 빠르죠. (E)

자활사업단에서 한 번 시도를 해보면 그분들이 다 취약 계층이니까 ... 사업단을 하나 꾸리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C)

□ 학계와 제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함

학계에서부터 변화가 되고, 제도부터 변화가 돼야지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려동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없게끔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특화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모든 종합사회복지관이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수 있도록 ... (중략) 이런 게 사회복지 쪽에서 수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학계가 전환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D)

제가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 진행하려다가 포기했던 게 이게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위험하더라고요. 동물복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사람에게 보면 긍정적인 효과라든지 관련된 논문이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생각보다 이런 논문이 많은데 그런 것도 대부분 동물에 초점이 맞춰진 것보다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동물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복지를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물들이, 사회복지적 논문에서 대부분 도구로 쓰였더라고요. 그 관점을 완전히 바꾸기보다 관점을 좀 더 추가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 계에서는 반려동물 사업을 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B)

□ 일선 사회복지사들의 관점 변화 필요

실질적으로 톱다운 방식으로 하더라도 진행하는 것은 일반 필드 워커들이기 때문에 관점이 바뀌지 않은 이상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B)

□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 사례관리에 대한 사례 공유 필요

실제 사례관리 분야에서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런 것도 공유하는 자리면 참 좋겠는데 (E)

2. 소결

본 FGI에 참여한 사례관리자들은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나 욕구를 가진 반려인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 모두들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양육, 돌보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낮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웃과의 갈등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르신들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연구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관리대상자들을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동거하는 생활이 대상자들에게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례관리를 할 때 대상자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반려동물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역할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하게 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은 현재 사회복지전달 체계 속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보 및 지원체계의 부족, 기관관계자의 편견 및 인식부족, 관련 매뉴얼의 부재 등 다양한 사유의 한계를 호소했다.

이들은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추후 필요한 것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전

문기관 설립과 전문 프로그램 및 국가 보조금의 지원,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와 사회복지 학계 변화 우선시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복지실천현장 일선에서 대상자들을 만나고 사례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례관리를 공유하는 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제4장. 결론

제4장. 결론

제1절. 주요 결과 요약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들과는 달리 ‘외롭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외로워서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답이 많았다.

○ 본 연구에 참여한 반려인들이 그들의 반려동물로 인해 ‘삶의 만족도, 긍정적인 사고, 스트레스 감소, 대화 증가, 운동량 증가, 자신감 향상, 외로움 감소, 생활이 활기차짐, 책임감 증가, 건강 증진’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이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외 여러 연구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 본 연구에 참여한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들이게 된 경로로는 ‘친척/친구/지인으로부터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나이가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소위 펫샵이 아닌 친척/친구/지인을 통해 반려동물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억지로 떠맡게 된 경우도 4.4%에 달했다.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인식개선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 참여한 반려인들은 60.3%의 높은 반려견 등록률과 53.2%의 높은 중성화율을 보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시행되기 직전에 실시된 ‘집중단속’과 서울시에서 제공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중성화 지원 사업의 영향이라고 사료된다. 아파트(65.3%)나 공동주택시설(71.4%) 거주자가 단독주택(42.1%) 및 연립/빌라/다세대 주택(48.9%)에 거주하는 응답자보다 높은 반려견 등록률을

보였다. 한편 반려견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다른 연구와는 달리 “잘 모른다”가 가장 많았으며, 수급자(46.0%) 계층이 비수급자(65.5%) 보다 낮은 중성화율을 나타냈다.

○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소득이 많은 반려인에 비해 반려동물 돌봄비용을 적게 지출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나 가구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비를 포함한 사료비와 관리용품 구입에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일반세대가 차상위 및 수급세대 보다 입원 및 여행 등 장기간의 외출 시 반려견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수급세대는 반려견의 사료 및 간식비 지출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30%에 가까운 수급세대와 차상위세대가 반려견의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실제로 동물병원 방문 경험도 수급 및 차상위세대가 일반세대 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려묘의 경우에는 수급자세대의 87.5%가 의료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반려묘의 사료비 및 간식비 충당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는 38.9%, 차상위세대는 30%에 달했다.

○ 조사 참여자의 62.1%가 반려동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는 이면에는 그들의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돈을 빌리기도(7.8%) 하고 심지어는 치료를 포기하는(4.5%) 경우까지 있었다. 특히 수급세대(45.5%)가 차상위세대(32.1%)나 일반세대(32.7%)에 비해 생활비를 줄인 경험이 많았다. 반려동물의 노년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는 조사 참여자의 46.5%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33.8%가 대비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수급세대(43.0%)와 차상위세대(46.4%)가 일반세대(21.9%) 보다 두 배 이상 반려동물의 노년기에 대해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응답했다.

○ 반려동물 양육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로는 친구 및 동료, TV프로그램, 동물병원, 인터넷 및 SNS,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TV프로그

램을 통하여 정보를 파악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파악 비율은 낮았다. 이는 KB보고서(황원경, 2017) 결과 1순위로 나타난 인터넷이나 모바일 검색(76.8%)과 큰 차이를 보였다.

○ 반려동물 양육 관련 받고 싶은 지원으로는 의료비 지원(30.1%), 사료 및 간식지원(21.8%), 돌봄 용품 지원(11.8%),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지원(10.8%), 돌봄지원(9.1%),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8.3%), 문제행동 교정훈련(8.6%)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료 및 간식비 지원에 욕구가 높았고,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욕구는 30대(66.7%)와 40대(60.0%)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수급세대는 사료 및 간식지원(37.2%)에 높은 욕구를 보였다.

○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 대처방법으로는 70대(34.5%)와 80대 이상(36.0%)의 경우 외출 시 그냥 집에 둔다는 비율이 높으며, 수급세대(31.8%)가 외출 시 그냥 집에 둔다는 비율이 높았다.

○ 반려동물 지원 및 제도에 관한 욕구로 보건소와 같은 공공수의병원 개설(24.5%),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19.0%),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12.6%), 호텔링 및 임시보호 지원체계 구축(9.2%), 무료교육의 기회 확대(6.5%), 반려동물 놀이터 증설(6.5%)의 비율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세대(43.0%)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한다는 부분의 욕구가 높았으며, 일반세대(38.1%)는 공공수의병원 개설을 원했다.

제2절. 연구의 성과와 한계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조사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취약계층 반려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주로 저소득지역의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주요 대상인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의 참여가 일정한 비율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서울시를 4대 권역으로 나누어 약 25%의 비율로 균등하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둘째, 본 연구는 7명의 연구진 이외에 5명의 설문지 개발을 위한 외부 자문, 20여명의 사회복지관장, 30여명의 사회복지 및 동물보호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수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 및 외부자문을 위해 수차례의 공문발송과 개별 협조 요청을 통해 20여개 이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셋째, 설문조사 방식으로 수행된 양적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3회의 간담회(FGI) 및 관계자 이메일 의견수렴 등 질적 조사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양적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슈와 숨은 의미를 파악했다. 넷째, 반려동물관련 기존의 주요 통계조사와 보고서를 모두 분석하고 그 주요 결과를 본 연구와 비교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했다. 다섯째, 연구주제와 관련된 해외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소개하여 정책적·실천적 함의에 적용했다. 여섯째, 본 연구가 개발한 “반려동물로 인한 긍정적 효과” 척도는 높은 신뢰도(α=.895)를 보여 향후 타 연구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한정된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편의모집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취약계층 전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비교적 건강과 인지능력이 양호한 반려인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보다 취약한’ 계층에는 조사가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나 군집표집 방식 등 통한 확률표집방법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3절. 제언

○ 본 연구에 참여한 취약계층 반려인들의 대다수가 반려동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른 연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반려인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액수이다. 그 결과 반려동물을 돌보기 위한 비용 지출로 인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본 조사 참여자의 60% 이상이 반려동물 관련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며, 대부분이 반려동물의 노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거나(46.5%), 대비할 여유가 없다(33.8%)고 답했다. 이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반려인의 복지를 위해 반려동물 돌봄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취약계층 반려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쓸 돈도 없는데 무슨 동물복지냐?” 하는 편견과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반려동물을 키우냐?” 는 비난의 목소리이다. 그러나 각종 연구결과에도 있듯이 반려동물과의 건강한 유대는 반려인,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반려동물을 위한 것이 아닌 반려인을 위한 복지라는 인식을 늘려야 한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즉 투입비용대비효과가 높은 방법이다(Arrington & Markarian, 2018). 또한 반려동물을 잘 돌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비용이 더 소요되고 이는 비반려인을 포함한 모두의 세금이 사용된다. 따라서 취약계층 반려인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반려동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을 도움으로 해서 HAB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요소나 부작용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또한 FGI 결과에서 제시했듯이 취약계층 반려인을 위한 지원 시 사회적 편견을 예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조사 참여자들 중에서 누군가의 권유나 우연한 기회로, 심지어는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떠맡겨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게 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참여자들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며 겪는 비용 측면 이외의 어려움 중에는 소위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이 있다. 이는 반려동물을 어린 시기에 사회화 교육을 시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반려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 결과 반려동물 유기의 잠재적 사유가 된다. 실제로 반려인의 경제수준이 반려동물 양육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 수준이나 반려인의 지식과 태도가 반려동물 양육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Pet For Life, 2019; 우리동생, 2017). 따라서 반려동물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외롭거나 동물이 좋아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향후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반려동물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사회복지기관이나 지인들이 신중한 고려 없이 저소득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무분별하게 반려동물 입양을 권유하거나 소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의 행동과 습성에 대한 반려동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지인(22.7%)이나 가족(12.3), 그리고 TV프로그램(19.9%)을 통해 얻고 있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인터넷이나 SNS 보다는 TV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 반려인의 성향에 맞는 교육/홍보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아파트의 공지사항을 활용하거나 취약계층 반려인들이 친숙하게 이용하는 사회복지관 등의 적절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본 연구 결과, 소득이 낮은 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통계와 언론 보도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사안이다. 저소득층 반려인들이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할 때, 반려동물의 의료비, 특히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차원의 돌봄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제도적 차원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및 지원, 공공 동물병원 운영, 찾아가는 반려동물 돌봄지원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동물보호법 강화, 동물등록제 개선 및 강화, 동물번식/ 판매 산업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을 통한 성숙한 반려동물 돌봄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 저소득층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더 이상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약 15%의 응답자가 반려동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며 7.5%는 실제로 다른 곳으로 보낸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려동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잠재적 반려동물 유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사회가 소유자에게 동물을 인수해 다른 가정에 인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면 동물의 복지를 위해할 뿐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경제적・심적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이 사육을 포기한 반려동물의 인수・보호・재입양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체계나 시설이 부재한 상황이다. 유럽, 북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나 유기동물보호소가 시민이 양육을 포기하는 동물을 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동물보호조례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동물의 상태와 포기 이류를 불문하고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동물을 인수하는 오픈 어드미션(open admission)원칙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의 질적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취약계층 반려인의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인식과 지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례관리 개입이나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원만이 아닌 반려동물 관련 돌봄욕구사정 및 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지원 및 자원연계 노력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의 지원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 및 지자체단위의 담당부서와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사례관리과정에 반려동물관련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서울시 돌봄SOS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속에 시범적으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돌봄지원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취약계층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양적, 질적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및 전반적인 복지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국립수의과학검역원(2010). 『201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김선희(2013). 『반려동물 관련 소비실태 및 개선방안 조사보고서』13-21, 한국소비자원.

김성호・박종두(2018). “반려동물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고찰 - 서울시 M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중심으로“, 《슈퍼비전과 실천연구》, 3: 83-104.

김주경(2012).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책』. 국회입법조사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2). 『201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농림축산검역본부(2015).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

농림축산검역본부(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농림축산검역본부(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지인배・김현중・김원태・서강철(2017),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안 연구』, 농촌경제연구원.

동물권행동 카라(2019). 『서울시 돌봄 취약가구대상 반려동물실태조사』

마들사회복지관(2018). 『2018년 중계주공 1단지 반려동물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지역주민 전수조사』, 마들사회복지관.

문영희・김효정, 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455-477.

문화체육관광부・농촌진흥청・(사)한국펫사료협회(2018).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인식 조사보고서』

방하남・강신욱(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특별시・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2017). 『중계본동 백사마을 주민토론회 자료집』. 노원구.

손지연(2018). 『정보취약계층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법제 정비 연구. 법 제처.

스카이 데일리, “너도나도 반려시장…헛된 망상 빠뜨리는 불량통계” 2018년 1월 13일.
우리동생(2018).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돌봄과 과제』, 우리동생.
유기영(2004). 『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방안 연구』 . 서울연구원.
유기영・이종찬(2016).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시설 도입방안』. 서울연구원.
이준섭(2012).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 보호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정비 연구』. 법제처.
펫비지니스 월간지 펫저널(2018) “2017년 반려동물 산업 통계 분석과 개선방안”, 2018. 3월 21일. https://petjournal.tistory.com/22
한국갤럽(2015). 『반려동물과 동물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일보, 2018, “외로움 달래려 키우는 동려동물... 노인 취약층엔 관리 사각지대”, 2018년 2월 26일.
황원경(2017). 『2017 반려동물 양육실태조사』.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황원경・정귀수・김도연(2018). 『2018반려동물연관 산업 현황과 양육실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Arrington, A. & Markarian, M.. (2018). Serving Pets in Poverty: A New Frontier for the Animal Welfare Mov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Law & Policy Brief.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Boulin, D., (2012).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People and their Pets”, Sociology Compass, 6(11): 856-869.
Hosey, G., & Melfi, V. (2014). Human-animal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bonds: A review and analysis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Psychology, 27(1), 117-142.
Hoy-Gerlach, J. & Wehman, S. (2017). Human-Animal Interaction: A Social Work Guide. NASW.
KPFA(2017). 『2017 반려동물 보유현황 및 국민인식조사 보고서』. Gallup

National Pet Owners Survey (2017). The 2017-2018 APPA National Pet Owners Survey Debut.
https://www.mceldrewyoung.com/wp-content/uploads/2018/08/2017-2018-Pet-Survey.pdf
Thompson, K., Every, D., Rainbird, S., Cornell, V., Smith, B., & Trigg, J. (2014). No Pet or Their Person Left Behind: Increasing the Disaster Resilience of Vulnerable Groups through Animal Attachment, Activities and Networks. Animals : an open access journal from MDPI, 4(2), 214-240. doi:10.3390/ani4020214.

별첨1. 설문지

서울특별시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일련번호 : | | | | | |

서울시 반려동물 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욕구조사

□ 조사 일시 : _____ □ 조사원 : _____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와 <한국성서대학교>는 사람과 동물 모두를 위한 상생복지의 정착을 위해 서울시 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중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귀하의 댁에서 키우시는 반려동물의 건강도 지키고 사회에 필요한 동물보호에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년 10월~11월

■ **응답자 기초사항**

동물 보호자 성별	① 여성 ( ) ② 남성 ( )		
동물 보호자 연령	_____년 _____월 생		
거주 지역	서울시 ( )구		
주택 형태	① 단독주택 ( ) ② 아파트 ( ) ③ 연립/빌라/다세대 주택 ( ) ④ 기타(오피스텔, 상가 내 거처 등) ( )		
가구 형태	① 독거노인 세대 ( ) ② 노인부부 세대 ( ) ③ 조손 세대 ( ) ④ 한부모 세대 ( ) ⑤ 2세대(부모와 자녀 거주) ( ) ⑥ 1인 세대(청장년) ( ) ⑦ 소년소녀가장 세대 ( ) ⑧ 기타_____ ( )		
가구 월평균 소득	_____만원	동거가족 수 (본인 포함)	_____명
보호 구분	① 수급 ( ) ② 차상위 ( ) ③ 일반 ( )		
장애 유무	① 유 – 장애유형 ( ) / 중증 ( )경증 ( ) ② 무 ( )		
현재 반려동물 외 이전에 반려동물 키운 경험	① 있다 (기간: 년) ② 없다 ( )		

※ 장애유형 : ① 지체장애 ② 언어장애 ③ 신장장애 ④ 안면변형장애
⑤ 뇌병변장애 ⑥ 지적장애 ⑦ 심장장애 ⑧ 장루・요루장애
⑨ 시각장애 ⑩ 정신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질장애
⑬ 청각장애 ⑭ 자폐성장애 ⑮ 간장애

※ 1~2번은 공통 문항입니다

1. 귀하의 댁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아이를 위해서
② 동물을 좋아해서
③ 외로워서
④ 지인을 통해 받는 등 우연한 기회로
⑤ 유기동물이 불쌍해서
⑥ 전에 키우던 반려동물을 잊지 못해서
⑦ 기타 (구체적으로_____)

2.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삶의 만족감이 올라갔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감소되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늘었다.					
운동량이 증가하였다.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외로움이 감소되었다.					
생활이 활기차졌다.					
책임감이 생겼다.					
건강이 좋아졌다.					

※ 3~13번은 개를 키우고 있는 설문자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3. 현재 귀하의 댁에서 키우고 있는 개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 )마리

4. 현재 귀하의 댁에서 키우고 있는 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개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반려견 순서	개 1	개 2	개 3	개 4	개 5
반려견 품종					

※ 품종 :
① 골든 리트리버 ② 닥스훈트 ③ 래브라도 리트리버 ④ 말라뮤트 ⑤ 말티즈
⑥ 미니어처 핀셔 ⑦ 불독 ⑧ 비글 ⑨ 비숑 프리제 ⑩ 슈나우저 ⑪ 스피츠
⑫ 시베리안 허스키 ⑬ 시츄 ⑭ 요크셔테리어 ⑮ 웰시코기 ⑯ 혼종(믹스견)
⑰ 진돗개 ⑱ 치와와 ⑲ 코커 스파니엘 ⑳ 퍼그 ㉑ 페키니즈 ㉒ 포메라니안
㉓ 푸들 ㉔ 기타 (_____)

5. 현재 귀하의 댁에서 키우고 있는 개의 성별, 연령, 등록 유무, 등록 유형, 중성화 유무 그리고 개를 데리고 온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개를 데리고 온 장소는 아래 ※를 보고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table>
<tr><th></th><th>성별</th><th>현재
연령</th><th>등록 유무</th><th>등록 유형</th><th>중성화
유무</th><th>데리고
온 장소</th></tr>
<tr><td rowspan="2">개 1</td><td rowspan="2">수컷( )
암컷( )</td><td rowspan="2">살</td><td>등록( )</td><td>내장( )
인식( )</td><td rowspan="2">유( )
무( )</td><td rowspan="2">( )</td></tr>
<tr><td colspan="2">미등록( )</td></tr>
<tr><td rowspan="2">개 2</td><td rowspan="2">수컷( )
암컷( )</td><td rowspan="2">살</td><td>등록( )</td><td>내장( )
인식( )</td><td rowspan="2">유( )
무( )</td><td rowspan="2">( )</td></tr>
<tr><td colspan="2">미등록( )</td></tr>
<tr><td rowspan="2">개 3</td><td rowspan="2">수컷( )
암컷( )</td><td rowspan="2">살</td><td>등록( )</td><td>내장( )
인식( )</td><td rowspan="2">유( )
무( )</td><td rowspan="2">( )</td></tr>
<tr><td colspan="2">미등록( )</td></tr>
</table>

	성별	현재 연령	등록 유무	등록 유형	중성화 유무	데리고 온 장소
개 4	수컷( ) 암컷( )	살	등록( )	내장( ) 인식( )	유( ) 무( )	( )
			미등록( )			
개 5	수컷( ) 암컷( )	살	등록( )	내장( ) 인식( )	유( ) 무( )	( )
			미등록( )			

※ 데리고 온 장소 :
① 애견분양 가게에서 구입 ② 개인 애견분양 업자에게 구입
③ 애견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구입 ④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
⑤ 개인 구조자에게 입양 ⑥ 키우고 있던 개가 낳음
⑦ 친척/친구/지인에게서 받음 ⑧ 친척/친구/지인에게서 구입
⑨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김 ⑩ 유기견을 구조함
⑪ 기타 (_____)

6.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응답자만)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잘 모른다
②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③ 등록비용이 부담스럽다
④ 동물 등록 내장 칩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⑤ 절차가 번거롭다
⑥ 기타 (_____)

7.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응답자만) 지금까지 반려견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②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③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④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⑤ 새끼를 낳기 위해서
⑥ 기타 (_____)

8. 반려견을 위해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반려견 전체에게 드는 비용)

항목	한 달 평균 지출액	비용에 관한 응답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렵다
사료 및 간식비	( )원	( )	( )
미용 및 관리용품비 (샴푸, 치약, 옷, 배변 패드 등)	( )원	( )	( )
의료비	( )원	( )	( )
기타 ( )	( )원	( )	( )

9. 얼마나 자주 반려견을 산책(운동) 시키십니까? ( )

(현재 키우고 있는 개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개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매일 1회 이상 ② 매일 1회 ③ 일주일 5-6회 ④ 일주일 3-4회

⑤ 일주일 1-2회 ⑥ 아주 가끔씩 (이유 : _____)

⑦ 전혀 안 한다 (이유 : _____) ⑧ 기타 (_____)

10. 양육 중인 반려견이 최근 1년 이내에 동물병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 )

(현재 키우고 있는 개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개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있었다(☞ 11) ② 없었다(☞ 12)

11. 동물병원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해당 사항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① 예방 접종 ② 정기 검진 ③ 질병 치료 (_____)

④ 상해 치료 ⑤ 미용 및 목욕 ⑥ 사료 구입 ⑦ 약 처방

⑧ 호텔링 서비스 ⑨ 기타 (_____)

12. 다음은 반려견의 주요 예방(접종) 항목입니다. 예방 접종을 해주는 시기에 체크해 주십시오. (현재 키우고 있는 개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개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해준다	새끼 때 해줌	1년에 한번	뭔지 모른다	기타
종합백신					
광견병					
코로나장염					
켄넬코프					
신종플루					

	안 해준다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번	뭔지 모른다	기타
심장사상충					

13. 반려견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미용 및 관리용품비
② 병원비
③ 사료 및 간식비
④ 산책 및 놀아주기
⑤ 위생관리(목욕, 귀 청소, 발톱 깎기 등)
⑥ 배변
⑦ 짖음
⑧ 물기
⑨ 이웃의 항의와 갈등 (구체적으로_____)
⑩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⑪ 기타 (_____)

※ 14~24번은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설문자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14. 현재 귀하의 댁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 )마리

15. 현재 귀하의 댁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품종 :

반려묘 순서	고양이 1	고양이 2	고양이 3	고양이 4	고양이 5
반려묘 품종					

① 노르웨이 숲 ② 러시안 블루 ③ 렉돌 ④ 메인 쿤 ⑤ 샴 ⑥ 뱅갈
⑦ 아비시니안 ⑧ 아메리칸 숏헤어 ⑨ 혼종 ⑩ 스코티시 폴드
⑪ 재패니즈 밥테일 ⑫ 코리안 숏헤어 ⑬ 터키시 앙고라
⑭ 페르시안(친칠라) ⑮ 히말라얀 ⑯ 기타 (_____)

16. 현재 귀하의 댁에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의 성별, 연령, 등록 유무, 등록 유형, 중성화 유무 그리고 데리고 온 장소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오랫동안 기른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데리고 온 장소는 아래 ※를 보고 번호를 작성해주세요.

<table>
<tr><th></th><th>성별</th><th>현재 연령</th><th>등록
유무</th><th>등록 유형</th><th>중성화
유무</th><th>데리고 온
장소</th></tr>
<tr><td rowspan="2">고양이 1</td><td rowspan="2">수컷( )
암컷( )</td><td rowspan="2">살</td><td>등록( )</td><td>내장( )
인식( )</td><td rowspan="2">유( )
무( )</td><td rowspan="2">( )</td></tr>
<tr><td colspan="2">미등록( )</td></tr>
<tr><td rowspan="2">고양이 2</td><td rowspan="2">수컷( )
암컷( )</td><td rowspan="2">살</td><td>등록( )</td><td>내장( )
인식( )</td><td rowspan="2">유( )
무( )</td><td rowspan="2">( )</td></tr>
<tr><td colspan="2">미등록( )</td></tr>
<tr><td rowspan="2">고양이 3</td><td rowspan="2">수컷( )
암컷( )</td><td rowspan="2">살</td><td>등록( )</td><td>내장( )
인식( )</td><td rowspan="2">유( )
무( )</td><td rowspan="2">( )</td></tr>
<tr><td colspan="2">미등록( )</td></tr>
</table>

	성별	현재 연령	등록 유무	등록 유형	중성화 유무	데리고 온 장소
고양이 4	수컷( ) 암컷( )	살	등록( )	내장( ) 인식( )	유( ) 무( )	( )
			미등록( )			
고양이 5	수컷( ) 암컷( )	살	등록( )	내장( ) 인식( )	유( ) 무( )	( )
			미등록( )			

※ 데리고 온 장소 :
① 애묘분양 가게에서 구입 ② 개인 애묘분양 업자에게 구입
③ 애묘분양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 ④ 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
⑤ 개인 구조자에게 입양 ⑥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낳음
⑦ 친척/친구/지인으로부터 받음 ⑧ 친척/친구/지인으로부터 구입
⑨ 친척/친구/지인이 떠맡김 ⑩ 유기묘(길고양이, 아기고양이 포함)를 구조함
⑪ 기타 (_____)

17. (반려묘 동물 등록을 한 응답자만) 동물 등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8. (반려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응답자만) 지금까지 반려묘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중성화 수술에 대해 잘 몰랐다
②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
③ 수술비가 너무 비싸다
④ 수술해서 잘못될까봐 겁이 난다
⑤ 새끼를 낳기 위해서
⑥ 기타 (_____)

19. 반려묘의 건강과 정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 )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고양이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하루 30분 이상 ② 하루 30분 미만 ③ 하루 20분 미만 ④ 하루 10분 미만
⑤ 놀아주지 않는다 (이유_____)
⑥ 기타 (_____)

20. 반려묘를 위해 한 달 평균 얼마나 지출하십니까? (반려묘 전체에게 드는 비용)

항목	한 달 평균 지출액	비용에 관한 응답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하기 어렵다
사료 및 간식비	( )원	( )	( )
미용 및 관리용품비 (샴푸, 치약, 옷, 모래 등)	( )원	( )	( )
놀이용품 (캣타워, 장난감, 캣닢, 스크래처 등)	( )원	( )	( )
의료비	( )원	( )	( )
기타 ( )	( )원	( )	( )

21. 양육 중인 반려묘가 최근 1년 이내에 동물병원에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까? ( )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고양이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① 있었다(☞ 22)　　② 없었다(☞ 23)

22. 동물병원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사항 모두 작성해 주세요)
( )

① 예방 접종
② 정기 검진
③ 질병 치료 (_____)
④ 상해 치료
⑤ 미용 및 목욕
⑥ 사료 구입
⑦ 약 처방
⑧ 물품 구입
⑨ 기타 (_____)

23. 다음은 반려묘의 주요 예방 접종 항목입니다. 예방 접종을 해주는 시기에 체크해 주십시오. (현재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가 두 마리 이상인 경우, 가장 오랫동안 기른 고양이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안 해준다	새끼 때 해줌	1년에 한번	뭔지 모른다	기타
종합백신					
광견병					
복막염					
범백					

24. 반려묘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미용 및 관리용품비
② 병원비
③ 사료 및 간식비
④ 위생관리 (털 빠짐 관리 등)
⑤ 놀아 주기
⑥ 소변 스프레이
⑦ 발정음
⑧ 입원, 여행 등 장기간 부재 시
⑨ 난폭행동
⑩ 이웃의 항의와 갈등 (구체적으로_____)
⑪ 기타 (_____)

※ 25~37번은 공통 문항입니다

25. 주로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하신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가족 ② 친구, 동료 등 지인 ③ 인터넷(카페, 블로그) 및 SNS 등 ④ 동호회
⑤ 동물병원 ⑥ 분양센터 ⑦ TV 프로그램 ⑧ 책 ⑨ 반려동물 관련 어플리케이션(앱)
⑩ 복지관, 구청 및 동물단체 등 ⑪ 기타 (_____)

26.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반려동물 돌봄 상식 교육 (먹으면 안 되는 식품, 필요한 활동과 물품 등)
②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6개월령 미만 반려동물이 사람 및 다른 동물과의 관계를 배우는 과정)
③ 반려동물 의료 교육 (예방접종, 질병 종류 등)
④ 반려동물 행동 풍부화 교육 (산책 교육, 반려동물용 장난감 만들기 등)
⑤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개선 교육 (분리불안, 입질, 물건 파손 등)
⑥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준수사항 및 기본 에티켓 교육
⑦ 기타 (_____)

27.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지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사료 및 간식 지원
② 돌봄 용품 지원 (배변패드, 샴푸, 장난감 등)
③ 의료비 지원 (□ 예방접종 □ 정기검진 □ 중성화수술 □ 고가의료비 □ 처방약
□ 기타 (_____)
④ 돌봄지원 (□ 산책 □ 목욕 □ 미용 □ 투약 □ 기타 (_____)
⑤ 문제행동 교정훈련 (□ 그룹교육 □ 개별교육)
⑥ 여행이나 입원 시 호텔링 지원
⑦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지원
⑧ 기타 (구체적으로_____)

28.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가족에게 맡긴다 ② 지인에게 맡긴다 ③ 애견(애묘)호텔을 이용한다
④ 펫시터를 이용한다 ⑤ 그냥 집에 둔다 ⑥ 기타 (_____)

29. 반려동물이 아플 때나 노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

① 적금 ② 보험 상품 ③ 대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
④ 대비할 여유가 없다 ⑤ 생각해 본 적 없다 ⑥ 기타 (_____)

30. 반려동물 의료비 등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
① 생활비를 줄였다 ② 신용카드로 처리했다 ③ 동물병원에 부탁하여 할부로 지불했다
④ 동물병원에 부탁하여 할인을 받았다 ⑤ 돈을 빌렸다 ⑥ 적금을 해지했다
⑦ 치료를 포기했다 ⑧ 기타 (_____)

31. 나(가족)에게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구체적으로_____) (☞ 33) ② 없다 (☞ 32)

32. 없다면 어디에서 도움 받기를 원하십니까?
( )

33. 반려동물을 다른 곳(집)으로 보냈거나 또는 보내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까? ( )
① 보낸 적이 있다(☞ 34) ② 보내고 싶은 적이 있었다(☞ 34) ③ 없다(☞ 35)

34. 무슨 이유로 반려동물을 보냈거나 보내고 싶으셨습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집의 환경이 반려동물에게 좋지 않다고 느낄 때
② 이사 갈 때
③ 가족/이웃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④ 반려동물이 말을 듣지 않고 문제행동을 해서
⑤ 용변을 가리지 못해서
⑥ 털, 용변, 알레르기 등으로 위생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⑦ 비용문제로 반려동물을 감당하기 힘들어졌을 때
⑧ 목욕, 미용, 산책 등 관리해 주기가 힘들어서
⑨ 입원 등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_____)
⑩ 기타 (_____)

35. 현재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
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다
② 동물병원에 맡긴다
③ 산이나 마당에 묻는다
④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이용한다
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⑥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⑦ 기타 (_____)

36.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하여 어떤 지원이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무료 교육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
②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③ 보건소(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와 같은 공공 수의병원을 개설해야 한다
④ 동물병원 진료비를 표준화해야 한다
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의무화해야 한다
⑥ 반려동물 놀이터를 늘려야 한다
⑦ 입원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장기 호텔링 및 임시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⑧ 기타 (_____)

37.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어떤 동물보호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동물보호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야 한다
② 동물보호 단체들을 지원해야 한다
③ 동물보호교육을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④ 동물학대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⑤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리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⑥ 동물 판매 및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및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⑦ 기타 (_____)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 한국성서대학교 산학협력단

별첨2.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대상자용 설명문 및 동의서

연구과제명 : 서울시 반려동물 양육실태 및 돌봄지원 욕구 조사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의 반려동물 양육실태와 지원욕구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호 교수와 연구진이 시행하며, 동대학 산학협력단이 관리합니다.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설명서와 동의서를 신중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귀하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입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본 연구에 대해 그리고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음을 의미하며, 이 문서에 대한 귀하의 서명은 귀하께서 자신이 본 연구에 참가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일대의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및 건강관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동물복지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연구 참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일대의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분들은 본 연구에서 제외됩니다.

3. 연구 방법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설문조사자가 귀하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정도 걸릴 것입니다. (on-line 조사의 경우 만일 귀하가 참여에 동의하시면 설문조사 링크로 들어가셔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진행될 것입니다. 소요시간은 약 20분정도 걸릴 것입니다).

4.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보상 또는 비용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감사의 표시로 약 7000원 상당의 답례품이 지급될 것입니다.

5. 부작용 또는 위험과 불편함

본 연구 참여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위험은 없으나 참여 도중 불편함을 느낀다면 언제든지 설문조사를 멈출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본 연구는 무기명으로 수행되며 귀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연구를 위해 1년간 사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의사로 간주될 것입니다. 연구 종료 후 연구관련 자료(기관위원회 심의결과, 서면동의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현황, 연구종료보고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연구종료 후 3년간 보관됩니다. 보관기간이 끝나면 서류파쇄 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7. 자발적 연구 참여와 중지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또한, 귀하는 연구에 참여하신 언제든지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담당 연구원이나 연구책임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참여 중지 시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연구에 사용되지 않고 문서파쇄방법으로 폐기될 것입니다. (on-line 조사의 경우 참여 중지 시 귀하의 자료는 더 이상 저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8. 연구 문의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이름: 김성호 (연구책임자)　　전화번호: 010-8432-0789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02-950-5450

동 의 서

연구제목: 서울시 반려동물 양육실태 및 돌봄지원 욕구 조사

1. 나는 본 연구의 설명문을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6.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명:	서명일:
동의취득자	성명:	서명:	서명일:

별첨3. IRB 승인서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서식20] 결과통지서

심의결과통보서

2019년 10월 2일에 접수된 연구과제에 보완자료 확인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과제번호	제KBUIRB-201910-SB-004-01					
연구과제명	취약계층을 대상 반려동물 양육실태 및 돌봄지원 욕구 조사					
총 연구기간	승인일 ~ 2019 년 12 월 15 일					
연구책임자	성명	김성호	소속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	직위	조교수
연구종류	▣ 인간대상연구 □ 기타 :					
심의대상	▣ 신규(수정 후 승인) □ 재심의 □ 변경 □ 지속 □ 종료					
접수일자	2019.10.2		심의일자	2019.10.11		
심의위원회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종류	□ 신속심의 ▣ 정규심의					
심의목록	연구계획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설문지 등					
심의결과	▣ 승인 □ 수정 후 승인 □ 보완 □ 반려 □ 중지 □ 보류					
승인일자	2019년 10월18일		심의결과 통보일	2019년 10월18일		
승인 유효기간	2019.10.18일-2020.10.17					
승인번호	제KBUIRB-201910-SB-004-02					
연구의 위험도	▣ Level I (최소위험) □ Level II(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 Level III(중등도 위험) □ Level IV(고위험, DSMB 필요)					
심의의견	수정을 요청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승인된 모든 연구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연구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의 승인 이전에 연구대상자의 해당 임상연구의 참여 금지됩니다.
2. 승인 받은 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변경계획서에 대한 승인 이전에 연구계획서와 다른 연구의 실시는 금지됩니다.
3. IRB 승인 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연구대상자에게 강제 혹은 부당한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동의과정을 수행할 것이며, 잠재적인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참여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연구진행에 있어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어떠한 변경이든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대상자들의 보호를 위해 취해진 어떠한 응급상황에서의 변경도 즉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6. 연구대상자에게 즉각적 위험 요소의 제거가 필요하여 원 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증가 시키거나 연구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약물/의료기기 반응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의 안전성이나 임상연구의 실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7.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대상자 모집 광고문을 사용해야 합니다.
8. 위원회의 승인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연구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연차지속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9. 심의결과가 승인이 아닌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번 연속으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11. 연구 종료 시에는 종료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1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사법/의료기기법, 헬싱키 선언 및 ICH-GCP 가이드라인 등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3. 승인 받은 연구에 대하여 기관의 내부 점검 및 외부의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내부 점검자, 외부의 모니터요원 및 점검자, 규제기관의 실태조사자 등이 연구 관련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담당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한국성서대학교기관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인)

본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은 한국성서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본 연구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연구의 심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별첨4. 자료사진

<table>
<tr><td> </td><td> </td></tr>
<tr><td>설문조사요원 교육</td><td>설문조사요원 교육</td></tr>
<tr><td> </td><td> </td></tr>
<tr><td>설문조사요원 교육</td><td>설문조사</td></tr>
<tr><td> </td><td> </td></tr>
<tr><td>설문조사</td><td>설문조사</td></tr>
</table>

설문조사	설문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회의